

2010 교회의 사회적 책임 1(C+SR) 2.0 백서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포럼을 중심으로
환경/문화/대안경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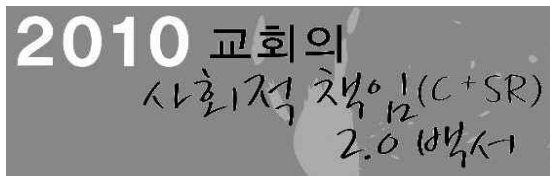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CHURCH TRUST NETWORK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백서



발행일 _ 2010년 2월 22일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양세진
편 집 _ 전선영, 조제호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trust@trusti.kr
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10 교회의

사회적 책임 1 (C+SR)
2.0 백서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포럼을 중심으로
환경/문화/대안경제/교육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CHURCH TRUST NETWORK

목차

○ 환경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10
- 송 준 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22
- 손 석 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 기윤실 재생종이사용캠페인	42
• 교회사례모음	47
○ 문화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 웹 2.0 시대와 문화선교	58
- 임 성 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문화선교연구원장)	
•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68
- 박 상 규 목사(문화 네트워크, 분당만나교회 문화지역담당)	
• 교회사례모음	80
○ 대안경제 ; 교회, 마을경제를 돌아보다	
•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100
- 김 범 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 사역적 기업, 커피밀	120
- 윤 선 주 목사(디딤돌교회, 커피밀 대표)	
• 교회사례모음	127

○ 교육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	
•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134
- 장 신 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school in school 프로그램	142
- 박 경 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 에듀투게더 :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152
- 김 운 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총론 ; 교회와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166
- 양 용 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엔씨스컴 대표)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177
- 손 병 덕 교수(충신대 사회복지학과)	
○ 부록	
• 교회의 사회적책임 활동 사례 목록	184
• 사회적 책임 관련 도서목록	190
• 2009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포럼 진행일정	192
• 기윤실 소개	194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백서를 발간하며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90점 만점에 40.95로 C-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감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섬김의 방식과 자세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뢰조사가 단순히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한 구성체로서 '사회복지를 넘어 사회적 책임' 을 인식하여, 이웃사랑의 방식이 교회중심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이웃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의 관점의 변화를 기대하며, 2009년 교회가 한국사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지역교회의 고민을 담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매회 진행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지평을 넓히고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을 논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주제별 전문단체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영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2010 교회의 사회적 책임(C+SR) 2.0 백서

지난 2009년 5월 8일 첫 번째 포럼인 <환경편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와 6월 11일 두 번째 포럼인 <문화편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9월 22일 세 번째 포럼인 <대안경제편 : 교회, 마을경제를 돌아보다>에 이어 12월 4일 네 번째 포럼으로 <교육편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깊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지난 1년간 주제별로 진전된 논의들을 모아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환경, 문화, 대안경제, 교육 그리고 총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 교회의 실천사례들과 인터뷰 등을 함께 엮었습니다. 부디 지역교회의 지역성과 교회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섬김을 실천해 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2010년 2월 22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사무총장 양세진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용 오정현 이동원

본부장 조성돈

지구적 교회, 지역 환경을 생각한다

- ☑ 생각나눔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 ☑ 실천나눔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 ☑ 재생종이사용캠페인
- ☑ 교회사례모음
 - 인터뷰-높은뜻정의교회
 - 사례조사-향린교회/청파교회/광동교회/서울복음교회
- ☑ 기사 및 국내외 환경관련단체 모음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송준인 | 청량교회 담임목사, 총신대 석좌교수

Think Globally

I. 생태신학의 위치

현대인은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유일한 삶의 공간인 지구의 환경이 훼손되어 인간 생존의 필수 요건인 공기, 물, 땅이 오염되고 있고 유한한 자원이 개발로 인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사막화되며 기후 붕괴로 인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환경 문제에 대해 기독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응답의 시도가 생태신학 내지는 환경신학이다. 이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사조로서 자연과의 사귄에 대한 신학적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창조론이 그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 신학이 제시된다. 현대신학은 일반적으로 상황신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대의 정황(context)이라는 관점에서 성경 본문(text)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생태신학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면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신학도 현대라는 정황이 만들어 낸 전형적인 상황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현대의 정황을 주제로 하여 전통신학의 창조 이해를 비판하고 창조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신학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이다.

II. 생태신학의 태동

생태학(ecology)이라는 말은 집과 학문을 의미하는 헬라어 οἶκος와 λόγος를 합성한 말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공간인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생태학이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WCC 총회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신학과 교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 위기상황을 성경적인 창조신앙에 근거한 생태학적 신학으로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태학적 성경해석이 시도되었다. 1983년에 Vancouver에서 열린 제6차 WCC총회는 자연보전의 문제가 신학적 토론과 실천과제임을 천명하고, 1990년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Justice, Peace, the Integrity of Creation을 신학적 주제로 새롭게 부각시키고,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는 주제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로 하고 부제를 창조보전으로 삼음으로써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Jürgen Moltmann이 쓴 <Gott in der Schöpfung>이 1986년에 김균진 교수에 의해 번역 출판되면서부터 생태신학이 소개되기 시작했다.¹⁾ 사실 생태학적 입장에서 창조론을 최초로 전개한 학자는 몰트만이었다. 그는 위의 책에서 현대의 생태론적 세계관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응답으로서 생태학적 창조신학을 제시하였다. 그 책의 부제가 “생태학적 창조론”이라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III. 생태신학의 과제와 동향

일반적으로 생태신학자들은 ‘환경’이라는 말 대신에 ‘생태’라는 말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환경’이라는 말은 그 중심에 인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이라는 말 대신에 생태라는 말을 즐겨 쓴다. 생태 문제는 사실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문제는 또한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정부, 기업,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생태계 위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문제는 우리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 과도한 낭비와 무절제한 삶의 방식도 생태계 파괴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철학적인 면에서의 인식론의 변화로 인간중심주의와 이원론의 극복이 하나의 과제일 것이고, 생태 정의 운동을 통한 사회적 제도나 체제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며,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²⁾

1)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86년)

이런 다차원적인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차원적인 신학적 응답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 모든 차원에 대해서 응답을 시도하기보다 철학적, 신학적 차원에서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중심주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생태신학의 동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생태신학의 주류는 인간중심주의를 배격한다. ‘하나님-인간-자연’의 위계 질서를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 왔고, 그 결과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하에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온건한 생태주의자들은 ‘하나님-인간/자연’으로 자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자연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뜻 같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공동 세계 속에 살아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생태신학자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자연-인간’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가이아 가설³⁾로 출발하여 오늘날 가이아이론으로 발전한 소위 범신론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자연이 인간과 대등한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으면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의 많은 생태신학자들 중에는 동양의 범신론에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처럼 생태신학의 중심적인 논의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계관과 생태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태 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IV. 생태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

1. 들어가는 말

인간의 인간중심적인 관점이 바로 인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생태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John B. Cobb, Jr.에 의하면, 40년 전 기독교의 신학은 주로 인간중심주의적이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자연을 비로소 신학의 주제로 삼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⁴⁾ 그리고 그는 서구의 인간중심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중심주의라고 주장하였

2) 『A Theological-eth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Justice and Economic Growth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Modern Korea』 (송준인, the Univ.ofStellenbosch,D.Th.Dissertation,1999,p.4.)

3) 가이아란 희랍 신화에 나오는 땅의 여신이다. 이것은 1970년대 영국의 과학자인 James Lovelock에 의해서 시작된 개념으로, 우주를 스스로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며, 의인화된 존재로 우주 안에 내재하는 신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Rosemary R. Reuther와 같은 여성신학자들이 선호하는 개념이고 P. Teilhard de Chardin과 같은 과정철학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개념이다.

4) *Sustainability*(1995,p.82)

다.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생태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생태중심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생태중심주의가 인간중심주의를 대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에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성경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중심주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세 가지 견해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생태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

1) 인간중심주의의 정의

Richard A. Young은 인간중심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실재를 보는 방식이다. 우주 만물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관심에 의해 판단된다. 그것은 인간을 가치와 의미와 윤리와 권리와 사회의 향방을 주관하는 최종적인 권위로 인식한다. 세속적인 형태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신격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조작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을 만한 더 높은 권위가 없다.”⁵⁾ 물론 모든 형태의 인간중심주의가 다 똑 같은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주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자로 우주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오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죄 받아야 한다. 더구나 기독교적인 인간중심주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신학적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신학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간중심주의적인 상황과 기독교

인간중심주의는 그것을 의문시하는 것조차 불경스런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이미 인간 생활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경제, 산업화, 진보와 풍요는 현대 사회의 당연하고도 올바른 특징들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 사회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인간이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는 것이 얼마나 자기파괴적인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수천 년 간에 걸친 서구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중심주의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창세기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라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든가, 인간의 구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성경은 외견상 인간중심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ynn White, Jr.는 이렇게 주장한다.

5) *HealingtheEarth*(1994,p.116)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는 가장 인간중심적이다. 고대의 이교주의나 아시아의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지지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남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⁶⁾

Lynn White, Jr.는 성경의 창조 기사가 명백히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역사학자들은 현대 과학과 기술이 기독교나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은 적어도 고전적인 희랍 문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와 과학은 종종 상반되는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⁷⁾ 한편 성경학자들은 창조 기사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성경적인 자연관에 대한 화이트의 견해는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창조 기사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한 것을 오해하였으며 그 본문을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을 따라 읽지 못했다고 비판한다.⁸⁾

W.C.C.의 ‘교회와 사회’ 부서의 책임자였던 Wesley Granberg-Michaelson은 역사적으로 교회에 서구 문화가 예측되어 있었던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서구 문화에 교회가 속박되어 있었던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현대의 다원적인 문화를 기독교적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자율성과 본질적인 선을 믿는 세속적인 휴머니즘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또 한 가지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세계를 인간과 자연이라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요소로 보는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Granberg-Michaelson은 Renè Dubos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기독교와 생태 위기에 관해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화이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가 몇 가지 잘못 해석된 성경 구절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듀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인간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파괴적이라면 그것은 과거보다 지금이 인구가 더 많아졌고 또 과거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파괴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는 바로 그것 때문이지 성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⁹⁾

3) 인간중심주의와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 내에도, 예컨대 Thomas Derr와 같이 성경이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친다고 보는 학자들

6)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Francis Schaeffer’s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1977, p.107.

7) *Creator & Creation*, R. A. Simkins, 1994, p.6.

8) *ibid.*, pp. 4-7.

9) *Ecology and Life*, Wesley Granberg-Michaelson, 1988, p.33.

도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명확히 인간중심적이다. 물론 인간의 지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은 배제하고서 말이다.” 그는 자신이 인간중심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생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단지 ‘휴머니스트’로 불리기를 더 선호했다.¹⁰⁾ Derr의 환경적인 주된 관심은 가난한 자와 억압 받는 자에게 있었으며, 그의 견해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와 같은 신약성경에서는 자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일차적인 초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구원, 화해, 죄, 용서, 믿음, 은혜, 자비, 회개 등과 같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단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중심주의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 John B. Cobb, Jr.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인간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가르친다”¹¹⁾

이 점에 관한 Richard A. Young의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경에는 자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마 서구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주제와 그 주제가 제시하는 세계관 사이의 혼동일 것이다. 예컨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자주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중심주의만의 세계관’(a theanthropocentric worldview)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결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밑바탕에 유신론적인 관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는 원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 사상이라든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같은 세속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인간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건은 타락한 인간이 그러한 인간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태도가 이기주의적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한 인간중심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ian Humanism, 1996, p.18.

11) Sustainability, 1995, p.92.

12) *op. cit.*, p. 120.

3. 생태중심주의(Biocentrism)

1) 생태중심주의의 정의

비교적 최근에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겨난 관심 중의 하나는 창조 중심의 영성이다. 그러한 관심의 중심에는 신학적 관심이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태중심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도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이다.¹³⁾ Richard A. Young은 생태중심주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윤리의 궁극적인 준거점이라고 가르친다. 지구의 생태계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지탱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다. 대신에 지구상의 모든 것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¹⁴⁾

Paul W. Taylor의 *Respect for Nature*(1986)는 생태중심주의적인 윤리를 철학적으로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태중심주의자로서 테일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계를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테일러는 이 관계를 모든 생명의 내재적인 가치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았다. 테일러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의 선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테일러는 그것을 자연에 대한 생태중심적인 조망이라고 불렀다. 그는 만일 생태중심적인 조망이 채택된다면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야말로 자연을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생태중심적인 조망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중요한 신념이 에워싸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⁵⁾

첫째,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듯이 다른 피조물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다.

둘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인 체계 속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호의존적이라 함은 각각의 생명체의 생존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물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유기체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그 자체의 선을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인 생명의 중심이다.

넷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요컨대,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복지가 근본적으로 전체의 복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자신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3) “Environmental Ethics”, in *Religious Studies Review*, vol.23, 1997, p.246.

14) *op. cit.*, p. 124.

15) *Respect for Nature*, 1986, pp.99-100.

2) 생태중심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¹⁶⁾

대부분의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두는 인간중심주의를 열정적으로 반대한다. 심지어 인간을 우월하게 본다고 해서 성경까지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생태중심주의는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었고,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만일 가치 구조가 부인된다면 서로 다른 관심이 충돌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만일 모든 차이와 이원성을 부인하는 일원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치 구조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인간은 바위나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우주적인 힘에서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둘 다 동일한 힘 속으로 합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 평준화가 바로 생태중심주의의 특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곧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중심주의로 가지 않고 그저 인간중심주의만을 포기하게 되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갈등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는 그 본질상 자연의 질서를 초월할 수 없고 그 결과 윤리를 다루는 형이상학적 차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면 인간의 비인격화가 초래되고 인간이 가진 특별한 특성이 무시되게 된다. 인간이 가진 특성들은 생태계의 일반적인 기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 생태중심주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인간은 더 이상 지구를 돌보는 일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연이 궁극적인 법의 수여자가 되고 그 자체를 통제하게 된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윤리가 규범이 된다.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 없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파괴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각이 있다. 인간에게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인간됨(humanness)을 파괴하는 것이다. 생태중심주의적인 견해가 받아들여지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셋째, 생태중심주의에는 실존적인 의무 내지는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자연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의 존재나 계속성을 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에게는 다른 생명체나 우리 자신들을

16)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Richard A. Young의 *Healing the Earth*(1994)와 Thomas S. Derr의 *Environmental Ethics and Christian Humanism*(1996), 그리고 Michael Cromartie가 편집한 *Creation at Risk?*(1995)를 참고하라.

보존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 자연은 말 없이 침묵하고 있다. 문제는 존재에서 당위(istoought)의 논리적 비약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생태중심주의의 문제는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생태중심주의에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공평하고 믿을 만한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심각한 생태중심주의의 문제는 숙명론이다.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what is)으로부터 존재해야만 하는 것(what ought to be)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따라서 그들의 바람직한 미래는 자연 세계가 그 자체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 그 근거를 얻게 된다.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어떤 유기체가 존재하면 그것 나름대로의 생태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유기체를 건드리지 말고 홀로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자연의 것들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선한 것들이다. 그래서 Derr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어떤 유기체가 생태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쨌든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유감스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은 개체들에게는 나쁜 것이지만, 생태계 전체에게는 유익한 것이다.”¹⁷⁾

4. 하나님중심주의(Theocentrism)

1) 하나님중심주의의 정의

하나님중심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며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Richard A. Young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중심주의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일된 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윤리의 원천이며 지탱자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준거점이 없이는 가치의 근거가 무너지고 생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¹⁸⁾

2) 진정한 성경적 대안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다. I.J.Hesselink는 칼빈주의의 특징이 하나님중심주의 신학이라고 하였다.¹⁹⁾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중심주의자가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아마도 기독교와 인간중심주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생태중심주의자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는 정말로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내지는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성(modernity)의 기본적인 가정들 중의 하나이다.²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것에 반

17) “The Challenge of Biocentrism” in *Creation at Risk?* edited by M. Cromartie, 1995. p.10.

18) *op. cit.*, p.128.

19) *On Being Reformed*, 1983, p.94.

대해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리들에 충실하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중심주의에도 불가피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현대의 인간주의나 인간중심주의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생태중심주의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Vincent Rossi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생태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에게 지구를 지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독교의 통찰력을 보존하는 견해이다”라고 말했다.²¹⁾

Paul Santmire 역시 하나님중심주의가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성경적 대안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편으로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는 것(인간중심주의의 경향)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정의를 갈구하는 인간성을 합치려는 위험성(생태중심주의의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근거를 갖고, 통일되며,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제안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중심주의적인 틀이다.”²²⁾

3) 하나님중심주의의 생태학적 의미

하나님중심주의의 생태학적 의미는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의 그것을 뛰어 넘는다. Richard A. Young은 하나님중심주의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해 놓았다.²³⁾

첫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존재로부터 당위성을 이끌어 내려는 무모한 시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중심주의의 모든 가치와 윤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의 독특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중심주의의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다. 인간은 창조라는 가족 내에서 겸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참된 청지기직은 하나님중심주의 안에서만 이론적 근거를 갖는다. 만일 인간이 지구의 청지기라는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장된다면, 그것은 이내 인간 자신의 이익 추구라는 위험성에 빠지게 될 것이다.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20) Vincent Rocci(“Theocentrism: Cornerstone of Christian Ecology”, in Granberg-Michaelson’s *Ecology and Life*, 1988, p.152)에 의하면, 현대성에서 합리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인간주의, 과학기술주의 등이 나왔으며 그 모든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단적인 것이라고 했다.

21) *ibid.*, p.158.

22) *Brother Earth*, 1970, p.104.

23) *op. cit.*, pp.129-131.

넷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평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로 탐욕과 착취와 힘의 남용과 자연의 오용이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 공동체가 작동하도록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다섯째, 하나님중심주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를 제공한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여섯째,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 단점들에 빠지지 않고 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만큼 포괄적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필요에 모두 민감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갖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끝으로, 하나님중심주의는 한 분이신 창조주가 우주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전체론적인 관점을 갖게 해 준다.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에 의해서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중심주의야말로 생태학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과 제언

결론적으로, 하나님중심주의는 현대의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도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또한 인간을 자연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인간에게는 가치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연도 인간의 숭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권리와 윤리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은 우주적인 질서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제자리를 찾아야만 그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전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중심주의는 피조물에게 존재의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계의 문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관점, 그리고 개인, 기업, 정부의 입장,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입장이 얽혀져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생태문제는 자연이나 환경 보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사실 빈곤의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당면한 사회생태학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만 해도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인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를 오늘날의 생태신학의 동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정통 개혁주의 노선에 서서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은 인간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중심주의임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지면상 자세히 논의되지 못한 영역은 하나님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의 문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훌륭한 생태신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어 이런 많은 과제들에 대하여 대화하는 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계 위기의 원인은 데카르트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 즉 실재를 정신과 물질, 둘로 보는 이원론이 철학적 배경을 제공했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삶의 방식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 또한 현대인의 가치관과 욕구가 소유와 소비와 향락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기독교의 신관과 창조론,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록 앞에서 기독교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은 성경 본래의 세계관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에 맞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임을 밝혔지만,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 비판을 받아들여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관과 창조론과 인간관과 자연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생태 파괴가 있다. 루터가 말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인 지식, 의, 거룩함의 파괴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무지를 낳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함으로 바른 상호관계가 파괴되었으며, 돌보며 섬겨야 하는 청지기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방종하고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생태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고 파괴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되찾아 자연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언자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태학적 신학의 가장 큰 공헌은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창조론을 신학의 주제로 새롭게 부가시켜 창조론의 부흥을 가져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경적 창조 신앙의 본래 의미를 탐구하여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태학적 신학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반면, 복음주의 내지는 개혁주의 신학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성경 본래의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자와 정복자가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의 의무를 지닌 청지기이다. 이러한 성경적 창조 신앙과 자연관을 확산시키는 것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신학이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손석일 | 높은뜻정의교회 전도사, 환경공학 박사

Act Locally

세계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각종 환경운동과 캠페인이 일어났고 추진되고 있다. 기독교계 내에서도 많은 환경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의 첫 주제로 '환경'이 다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이미 많은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도 '생명살리기운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 환경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환경운동, 가톨릭교계나 불교계와 같은 종교계에서도 많은 환경운동을 하고 있기에 반복하기 보다는 이번 포럼은 교회가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일반적인 환경운동의 내용들보다는 교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겠고 일부는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희망적인 제안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한 환경목회, 친환경적인 교회건축과 운영, 구체적인 교회 내에서의 실천운동, 환경을 이용한 선교, 환경교육, 환경을 통한 섬김과 교제, 예배와 설교 등 가능한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친환경 교회건축

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교회가, 아니 교회건물이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건물이 크다 보면 지역사회와의 융화가 쉽지 않고 에너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주일의 교통체증과 고인차량으로

인한 매연은 지역주민들과 교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건축비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규모의 교회당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간다. 100억 원대 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건축한 규모의 교회를 유지하는데 냉난방 등과 더불어 제반 유지비만 년 간 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천주교는 2~3천 명 정도의 성도가 되면 새롭게 건축을 한다. 개신교도 한 교회의 건물을 크게 재건축하기 보다는 주일 최대 2~3천 명을 수용하는 정도의 교회건물들을 계속 건축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와 조화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적일 것이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면 분립개척하여 다른 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과 호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회의 담을 헐고 정원을 가꾸어 친환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고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도 '교회를 푸르게' 캠페인을 통해 담장을 허물고 생울타리와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작은 정원이나 모퉁이 숲을 조성하거나 옥상에 하늘동산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들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교육관을 얻어서 주중 예배나 교육을 하는 것도 친환경적인 교회 건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강당과 교실과 운동장을 대예배실과 주일학교 예배실과 공과공부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교회건축이라 할 수 있겠다.

높은뜻정의교회는 정의여자고등학교의 강당을 빌려 대예배를 드리고 강당지하의 낡은 동아리 실들과 일부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사용한다. 운동장은 좋은 주차장이 되기도 하고 주일오후 교인들의 휴식공간과 주일학교 특별행사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음향장비나 가구, 케노피 등도 학교와 교회가 공유한다.

2. 친환경 교회 인테리어

교회 건축 시에도 당연히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테리어 또한 친환경적이어야 할 것이다. 재료도 재활용재료를 사용하고 가구도 재활용센터에서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비의 절감과 더불어 재활용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내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연채광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절약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여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무실과 복도에 공기정화식물을 두어 가꾸므로 교인과 교직원들의 마음도 편안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친화적인 실내디자인은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각종 실내오염물질들로부터 보호하고 안정감도 주어 업무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

3. 친환경 교회 운영의 시작

먼저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친환경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교단에서 좋은 친환경 운동을 하고, 환경단체에서 좋은 환경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해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의지가 없으면 그 교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교회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부' 내지는 '환경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환경전담 부서나 위원회의 역할이 지적하거나 질책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교인들이 친환경적인 교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제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께서 '환경과 생명' 2006년 가을호의 '새로운 녹색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환경운동의 한계와 문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늘 반대하는 형식으로 비취지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그 뜻은 귀하지만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친환경적 교인을 위한 홍보와 제안

그린피스 국제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슈는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 숲을 보호하는 것, 바다를 보호하는 것, 유전공학을 거부하는 것, 독성화학물질을 줄이는 것, 비핵화하는 것, 핵에너지를 끝내는 것, 친환경제품 무역을 권장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교회가 세계적인 친환경적 행동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친환경 운전실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속도 준수, 둘째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셋째 출발은

천천히, 넷째 공회전은 이제 그만, 다섯째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여섯째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일곱째 '정보우전'의 생활화, 여덟째 트렁크를 비우자, 아홉째 '친환경자동차'를 선택, 열 번째 '유사연료, 인증 받지 않은 첨가제는 No!' 가 그것인데 교회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나의 환경실천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생활', '쓰레기', '에너지', '교통지수'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환경실천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교회는 얼마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또한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10계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실내온도(18~22°C) 및 습도(40~50%)조절, 둘째 알맞은 환기(하루 3번 30분씩), 셋째 베개 및 침구류 관리, 넷째 숲(전자파 차단, 오염물질 흡착제거) 이용, 다섯째 식물(공기정화, 습도조절, 심신의 안정) 이용, 여섯째 공기청정기 이용, 일곱째 의류관리, 여덟째 금연, 합성세제 자제, 애완동물 주의, 아홉째 새집 이사 전 베이킹 아웃(실내온도 30°C로 5~6시간 유지하고 외출 후 돌아와 1시간 환기, 주 2회 이상 1달간), 열 번째 친환경 인테리어(친환경 자재)가 바로 그것인데 교회의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CO2를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를 제안하고 심각한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과 지구를 지켜 나가기 위해 작은 행동하나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1.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1도의 비밀)
2.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B.M.W 건강법)
3.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착한 선택)
4. 물을 아껴 씁니다. (Speedy 샤워)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I LOVE 머그컵)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Eco-드라이빙)
7.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플러그 OFF)
8.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초록사랑)

환경부에서는 여름철에 노타이 복장을 했을 경우 체온의 2도 저감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여름에 정장대신 노타이 등의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통해 사무실, 사업장, 차량의 냉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건강도 증진하는 기후적응형 복장 캠페인도 하고 있다.

5.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환경캠페인 참여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하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녹색교회 십계명’, ‘녹색기독인 십계명’, ‘기독인 물사랑 수칙’, ‘기독인 에너지절약수칙’, ‘생명밥상 수칙’, ‘녹색교회 다짐’, ‘녹색 수련회 지침’, ‘생활 속 CO2 다이어트 서약’ 등을 제안하고 있다.

<p>녹색교회 십계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주일(6월 첫 주일)을 정하여 지킵니다. 2.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3.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설교합니다. 4. 창조보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5. 환경전담 부서를 둡니다. 6. 환경을 살리는 데 예산을 사용합니다. 7.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고 소비를 절제합니다. 8. 냉난방을 절제합니다. 9. 중고품, 재활용품, 환경상품을 애용합니다. 10.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연대합니다. 	<p>녹색기독인 십계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2.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3. 삼갑시다. 합성세제 4. 사용합니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니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니다. 7. 짚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삽시다. 8. 팔지 않습니다. 소비광고에 한 눈을 9. 구합니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 10. 십자가 정신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습니다.
<p>기독인 물 사랑수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은 받아쓰고, 화장, 주방, 변기용으로 다시 사용하자. 2. 가급적 손빨래하고, 세탁시 빨래를 모아서 하자. 3. 세탁, 샤워, 머리감기 횟수를 줄이자. 4.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비누)를 쓰자. 5. 먹을 만큼 차리고 음식찌꺼기를 줄이자. 6. 변기세척제, 표백제 등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자. 7. 쓰레기와 오물을 하천, 바다에 버리지 말자. 8. 샴푸를 보호하고 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9. 지하수 이용을 절제하고 오염을 줄이자. 10. 중수도 설치, 수도물 누수방지, 수도물값 인상을 건의하자. 	<p>기독인 에너지 절약수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소한 생활로 소비를 줄인다. 2. 난방온도를 18~20도로 하고 내복을 입는다. 3. 여름에는 냉방온도를 26~28도를 하고 에어컨 사용을 절제한다. 4. 주거 및 집회, 업무공간을 최소화한다. 5. 중고품과 재생용품을 이용한다. 6.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기, 전기 제품을 이용한다. 7.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간다.

<p>생명밥상 수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2. 재철음식을 먹는다. 3. 가공식품을 삼간다. 4.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5. 계획 구매하여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6.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 만큼 담아낸다. 7.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8.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9. 생명주시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10.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소식한다. 11.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12.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p>녹색교회 다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물을 창조하고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2.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한다. 3. 창조보전에 대하여 교육한다. 4. 어린이와 청소년을 친환경적으로 키운다. 5. 환경을 살리는 교회조직을 운영한다. 6.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7. 생명밥상을 차린다. 8. 교회를 푸르게 한다. 9. 녹색살림터를 운영한다. 10. 창조보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대한다.
--	--

<p>녹색 수련회 지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발 전에 검소한 수련회가 되도록 녹색수련회 지침을 교육한다. 2. 예배순서(설교, 찬송 등)에 자연을 생각하도록 돕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3. 기도 중에 파괴된 자연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4. 시상품은 재생공책, 재생비누 등 환경상품으로 준다. 5. 흙, 나무, 곤충 등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6. 노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 간식은 자연식으로 한다. 8. 식사 전에 창조에 관한 성구를 암송한다. 9. 식사 전에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10. 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하고 인스턴트나 수입식품을 피한다. 11.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번 사용한다. 12. 합성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식기세척, 머리감기 등) 13.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을 두고 분리하여 버리도록 교육한다. 14. 수련회 장소 주변의 동식물을 보호한다. 15. 수련회를 마칠 때 주변을 잘 정리하고 쓰레기는 되가져온다. 	<p>생활 속 CO2 다이어트 서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플러그를 꼭 빼놓겠습니다. - 냉난방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 에너지 효율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 -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 공회전을 없앨 뿐 아니라 승용차를 덜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 환경상품을 사용하고, 포장을 줄이겠습니다. - 나무를 많이 심고 돌보겠습니다.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 함께 하겠습니다.
--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녹색교회 21' 실천 확산을 위해 1999년 5월에 실시한 '교회 환경실천 실태조사'의 설문조사내용

- 선포(Kerygma)

1. 하나님의 피조물을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한다.
2. 예배당에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피한다(꽃꽂이 대신 화분을).
3. 교회력을 창조보전의 의미를 살려 지킨다(예. 창조주일, 추수감사주일).
4. 환경주일(6월 첫 주일)을 정하여 지킨다.
5. 음향설비에 지나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6. 전도 활동시 환경캠페인을 겸한다(환경전도지 활용).
7. 자연예배를 드린다.
8. 대예배 기도할 때 이웃과 자연을 위해 기도드린다.

- 교육(Didache)

9.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경공부를 한다.
10. 교회학교, 자치단체, 구역모임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11. 환경을 생각하는 수련회나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갖는다.
12. 농촌을 방문하여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한다.
13. 환경특강, 세미나, 창조신앙 사경회 등을 개최한다.
14. 일회용품과 합성세제 안 쓰기. 시장바구니 보급, 재생화장지 쓰기 등 가정에서의 실천을 교육한다.
15. 교회학교에서 간식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우리 농산물로 된 먹거리를 제공한다.
16. 교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중고품 시장을 열어 참고서, 학용품 등을 함께 교환하여 쓰도록 교육한다.

- 친교(Koinonia)

17.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18. 주방에서 합성세제를 쓰지 않는다.
19. 야유회를 이용하여 피조물과의 친교를 도모한다.
20. 자신이 사는 곳을 교회 근처로 옮긴다.
21. 주일은 영과 육이 안식하도록 노력한다.
22. 지역주민의 친교공간으로 교회를 개방한다.
23. 교회의 담장을 없애고, 온갖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 봉사(Diakonia)

24. 환경을 살리는데 예산을 사용한다.
25. 교회가 환경친화적인지 살핀다(환경감사).
26. 과도하게 주차장 이용을 절제하도록 한다.
27. 주일에 자가용 이용을 절제하도록 한다.
28. 교회 건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다.

29.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한다(한 교회, 한 프로그램 실천운동).
30. 지역사회, 교회들 간에 환경보전을 위해 연대한다.

- 조직(Organization)과 행정

31. 환경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32. 교회물품 소비를 감소하게 한다.
33. 일회용품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불필요한 인쇄를 하지 않는다.
35. 주보나 인쇄물을 재생지로 인쇄하도록 한다.
36. 이면지를 활용하고 분리수거에 힘쓴다.
37. 잡동사니 우편물을 거절한다.
38. 냉난방을 절제한다.
39. 교회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
40. 물품 구입 시 가능하면 재활용품이나 환경상품을 쓴다.

위와 같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좋은 환경 캠페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교회의 복도, 엘리베이터 안과 밖, 화장실 등에 예쁘게 부착하여 교회 내에서 오가며 교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교회 환경실천 설문조사'는 각 교회가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여기에 '예배(Leitourgia)' 항목을 추가하여 2번, 3번, 4번, 7번, 8번을 이 항목으로 이동하고 '선포(Kerygma)' 항목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나라(북한, 아프리카)에 식량이나 생활용품을 보낸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사막화를 막을 수 있도록 중국이나 몽골에 나무 심기를 지원한다',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환경재난을 겪고 있는 세계의 이웃을 돌본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하수를 식수로 개발해 준다', '친환경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현지 입양을 교인들이 하게 한다' 등의 선교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캠페인 외에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는 '환경통신강좌', '생태기행', '생태적 삶을 위한 훈련과 전문 강좌'와 같은 환경교육과 '환경주일 지키기', '생명밥상운동', '녹색교회선정', '교회를 푸르게', '녹색살림터', '환경전도와 창조신앙사경회', '주말농장' 등의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환경적 운영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다른 단체들에 의한 환경 운동

천주교에서는 천주교환경연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 환경사목위원회가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1990년에 '환경보전처'로 시작하여 2000년에 '환경사목위원회'로 승격하여 '창조영성 연구', '창조영성 기도, 피정, 미사', '환경 교육(특강, 강좌)', '환경 탐방, 캠프, 전시회, 음악회', '도보 생태 순례와 자연미사', '환경신학, 교리서, 지침서, 동화발간' 등의 일들을 하고 있으며, '도농 교류프로그램'이 활발하여 '정월대보름행사(2월)', '토마토, 수박, 고추, 양배추 모종심기(4~5월)', '딸기 따기, 사과 꽃따기, 뽕잎 따기(5월)', '오리 넣기, 풍년기원미사, 손모내기(6월)', '가을걷이 벼 베기, 매뚜기 잡기, 고구마 캐기, 꽃감 만들기(10월)', '도농 한마당 잔치(11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서약으로 '즐거운 불편'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에서는 발우공양을 현대화한 '빈그릇운동'을 2000년 초부터 추진하여 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빈그릇운동 총 서약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다. '빈그릇운동'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김없이 깨끗하게!"를 모토로 한 생활인들의 웰빙, 청정, 나눔운동이다. 빈그릇 운동의 실천 방법을 '장보기', '음식만들기', '공양하기', '설거지'의 4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방세계 대신 '친환경 수세미(아크릴섬유)사용과 남은 음식물의 '지렁이화분'에서의 완전분해로 '음식물쓰레기zero운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빈그릇운동으로 환경보호와 나눔까지 연결하고 각종 생태교육과 생태학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봉은사 등과 같은 주요 사찰들의 참여로 운동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의 '생명밥상 빈그릇 서약운동과 유사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작년부터 10만인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에 불교계에서는 2006년에 이미 150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름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세균번식이 없고 세제가 필요 없는 '친환경 아크릴사 수세미'의 보급과 음식물을 분해하는 '지렁이화분'의 보급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 밖에도 녹색연합에서는 재활용지 국정교과서운동을, 환경재단에서는 그린페스티벌, 환경포럼, 생명의 우물, 그린아시아, 버드맵, 기후변화센터 교육, 어린이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재단 대표 최열께서 집필하신 '지구온난화 이야기'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행동 달력'을 소개하고 있어서 31일간 매일 실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지구온난화 베스트 영화리스트와 베스트 책리스트, 그리고 베스트 체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7. 친환경 교회 운영에 대한 제안

앞서 언급한 환경부나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서약이나 환경 10계명들을 교회에 비치하여 교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와 교인의 친환경적 의식변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각종 환경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교회의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교회활동과 제안을 주관하도록 한다. 부서와 예산배정 없이는 친환경적인 교회가 되기는 어렵다.

주보나 인쇄물을 재생지로 제작하고 복사용지까지도 가능한 재생지로 사용한다. 사실 가장 쉬운 것이 재생지 사용이다. 재생지는 교회가 결정만 하면 어느 교회나 실천 가능한 친환경 활동이다. 그리고 주보를 비롯한 각종 인쇄물에 “이 주보(인쇄물)는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어 졌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면 좋은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유인물이나 인쇄물에 불필요한 코팅을 하지 않음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해마다 재활용지로 교회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어리는 앞에 월간 계획표를 만들고 뒷면에는 메모할 공간을 많이 줌으로써 설교메모와 장보기 메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고 늘 들고 다니므로 인해서 친환경 전도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일학교의 각종 선물이나 달란트 잔치에서도 재생노트와 재생종이 볼펜이나 재생종이 연필 같은 친환경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

헌금봉투는 교회의 대표적인 종이쓰레기일 것이다. 헌금봉투를 재사용이 가능하게 월별이나 주별로 기입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매 주나 매 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금봉투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름이 있는 헌금봉투는 교회의 한 쪽 코너에 가나다 순으로 배치된 헌금봉투함을 두어 개인이 직접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교회의 로고를 새긴 분리수거백을 제작하여 교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하는 것도 좋은 운동과 더불어 교회가 분리수거에 앞장선다는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메시지가 담긴 장바구니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교회의 각종 도농교류 거래나 재활용품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교역자나 직원들은 교회에 자기 컵을 비치해 두었다가 사용하기가 쉽지만 성도들은 개인 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즐거운 불편’을 기쁘게 감당하는 분위기로 ‘개인 컵 소지’를 권장하도록 한다. 의외로 교인들 중에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교회로고를 새긴 다양한 종류의 컵(스텐레스컵, 머그컵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수익금은 물론 환경선교를 위해 사용하면 될 것이다. 교회행사의 기념품으로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긴 스텐레스컵(짧은 층)이나 머그컵(중년층)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면 그 컵이 바로 들고 다니는 전도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녹차잎을 거를 수 여과망이 있는 컵으로 제작하게 되면 녹차티백의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화장실의 손 닦는 휴지나 젖은 손을 말리는 전기드라이보다는 수건을 비치하여 두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며 친근해 보인다. 또한 교인들에게 손수건휴대를 권하여 가능한 자신의 손수건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본 교회에서도 화장실에 수건을 비치하여 두고 사용하고 있으며 세탁의 문제는 주변 세탁소에서 저렴한 가격의 세탁비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있다. 교회의 각종 행사 선물로 교회의 로고와 친환경 메시지를 새긴 손수건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손수건 들고 다니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커피도 가능한 봉지믹스커피 보다는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실 수 있게 하고 자판기도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원두커피나 녹차를 대형 물통에 준비하여 개인이 적당량 따라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름에는 교인과 직원과 더불어 교역자까지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한다. 교역자는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타이 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름에는 에어컨만으로 냉방을 하지 않고 선풍기와 병행하고 부채사용을 권장한다. 교회의 전도용 부채를 예쁘게 제작하여 교인들이 구입하고 선물로도 줄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다. 물론 부채에는 좋은 친환경적인 그림이나 글을 잘 도안해 넣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구역(순)별로 교인들의 카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녹색가게’를 상설하여 교회 내에 설치하거나 주일만이라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교회나 농촌 유기농 농가의 제품을 연계하여 매 주일마다 공동구매할 수 있다. 한 주전에 주문하고 다음 주일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하면 편리하다. 저희 젊은부부 부서에서는 2006년에 유기농가에 방문하여 수련회를 한 뒤로 유기농 유통란을 매 격주마다 공동구매하고 있다.

젊은부부 부서에서는 임신부복과 각종 유아용품과 동화책, 옷 등을 서로 물려 입는다. 어른 옷들도 작아진 옷을 물려 입는다. 유모차, 카시트, 아기 장난감, 아기 옷, 그네, 보행기 등 아기용품은 이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물려 쓰기에 충분히 깨끗하고 멀쩡하다. 자연스럽게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운동이 교회 내의 부서와 구역(순)에서는 가능하다.

생협이나 구청과 연계하여 ‘녹색가게’와 같은 상설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깨끗한 매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가게가 될 것이다. 단 매장을 꾸밀 때 깨끗하고 멋있는 매장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나뭇대로의 분위기가 있는 매장 인테리어와 더불어 재활용품이지만 현 것 같지 않고 특별한 리폼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에 카페를 만드는 교회가 늘고 있다. 기왕이면 카페에 유기농 차를 마실 수 있고 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이고, 카페와 더불어 한 쪽에 책이나 천연비누나 유기농 제품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녹색카페’가 될 것이다.

교회에서 ‘개인 컵’을 들고 다니거나, 에너지 절약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활동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을 선별하여 매 달 ‘녹색선교사’로 임명하고 녹색청지기의 역할과 녹색위원회의 회원의 자격을 주어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삶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이미지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이 교회는 환

경에 관심을 가진 교회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교인들도 각 가정에서 친환경 경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만 기재된 교패에서 친환경적인 메시지가 담긴 교패로 교체할 수 있겠다.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크게 기록하고 아래에 조그맣게 교회의 이름을 기재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액자형 교패를 사용하여 절기나 계절마다 속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물론 너무 크지 않고 보기에 좋고 따뜻함이 전해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회의 친환경적 변신은 의외로 쉽다. 먼저 친환경적인 의식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식만 이라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교인 한두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시작하게 될 것이다.

8. 친환경 녹색선교

일단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담을 헐고 교회의 마당을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해야 한다. 계절마다 예쁜 꽃도 심어놓고 산책과 쉼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꽃나무를 파기는 경우나 교회시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일 것이다.

지난 해 높은뜻승의교회에서는 주변지역에 껌때기 선교를 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봉사자 조끼를 입고 바다에 쪼그리고 앉아서 껌을 때는 장면은 주변의 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 선교에 충분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어린이적십자의 주최로 걷기대회를 참가했을 때 1미터에 1원씩 5킬로미터를 걷고 5천원 후원금을 내는 것을 보았다. 교인들이 지역의 경치 좋은 곳을 걸으며 쓰레기도 줍고 걸으며 자연도 만나고 걸은 거리만큼 선교헌금도 하고 도착지의 자연 속에서 예배와 성찬도 한다면 좋은 친환경적 선교가 될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아무리 학용품을 아껴 쓰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적당하게 사용한 몽당연필과 몽당 크레파스, 그리고 교인들의 오래 된 안경, 옷들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교회에 상설 배치하여 교인들이 항상 가져와서 모을 수 있게 하고 모인 것들을 선교지에 보낸다면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더불어 선교에도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월드비전에서는 해마다 '세계 물의 날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빈곤지역의 식수펌프 개발과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식수위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재단에서는 '생명의 우물'후원을 통해 캄보디아와 몽골에 우물을 만들어 주고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오염된 물을 같이 마시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식수를 개발해 주고 같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선교인 때이다.

몽골선교사로 가면서 황사걱정을 하는 선교사를 본 적이 있다. 몽골처럼 사막화가 일어나는 선교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환경적 활동을 통한 녹색선교일 뿐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다. 올해 4월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사막화방지를 위한 NGO 푸른 아시아'는 몽골 현지에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무 심기를 통한 조림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만원의 행복, 사막의 푸른 꿈을'이란 기치로 후원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녹색선교'인 것이다.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유기농 농사법을 배워서 선교지에서 적용한다면 선교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연해주에서는 유기농 콩 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거기는 땅도 넓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쓸 돈도 없어서 자연농법으로 콩을 재배하기에 알맞아 좋은 선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기농법 농사를 통해 얻어진 농업부산물들을 발효하여 친환경 닭 모이로 사용하고 닭장 아래에 깔아놓아서 닭들이 배설하게 한 별짚과 같은 것들을 퇴비화 하여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등 유기순환농법도 선교지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의료선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녹색선교'도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막에 나무심어주기, 식수가 부족한 곳에 지하수 개발해 주기, 오염된 환경을 복원해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쓰던 학용품과 옷가지들 보내기 등 다양한 녹색선교의 아이템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9. 친환경적 예배와 설교

환경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에 환경의 복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기도 시에도 창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신음하는 지구환경과 지역환경에 대한 회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야외예배도 기쁨 드리고, 예배당 곳곳이 대신 화분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장식과 과소비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친환경 녹색설교는 복음적인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 자칫하면 설교가 환경운동 강연처럼 될 수 있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말씀을 전하더라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환경오염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설교하게 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고 인간의 죄로 인해 황폐화하게 된 자연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고 청지기정신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재확인하면 될 것이다.

오존층과괴에 대한 환경문제를 설교할 때에는 태초에 창조하신 빛과 오존층의 오묘한 섭리를 전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오존층과괴와 피해를 알려주고는 영적인 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두웠던 세상이 태초의 빛으로 밝은 세상이 된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도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밝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물 오염에 대하여 설교할 때에는 태초에 만드신 물과 물의 오묘한 성질에 대하여 전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물 오염을 소개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생수이신 성령님 없이는 결국 죽어 갈 수 밖에 없음을 전할 수 있다.

공기오염을 전할 때에는 하늘에 가득 찬 공기들과 그 역할들을 전하고 인간의 죄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전한 다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과 영적 하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함을 선포할 수 있다.

흙 오염에 대하여 전할 때에는 어머니와 같은 흙의 역할과 기능을 전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흙이 오염되고 있는 실태를 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오염되지 않고 잘 가꾸어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오십 배 백배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 받이 되도록 권면한다.

동식물 멸종위기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오묘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동식물에 대하여 전하고 인간의 욕심 가득한 활동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있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고 참새 하나라도 먹이시고 들꽃 하나라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첨가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해를 알려주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전한다.

환경호르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육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환경호르몬의 위협의 실태를 전한 다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과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도 소망할 수 있도록 전한다.

사막화와 고령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복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땅의 사막화와 고령화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우리에게도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는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 주었던 온실효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온난화가 기후재앙을 불러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따뜻함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한다.

산성비에 관해서는 때마다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유익한 비가 해로운 산성비로 바뀌었고 그 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늘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농약과 화학비료에 관한 농작물의 오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풍성한 것들에 감사하고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 땅도 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땅을 쉬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확대하듯 생산한 죄를 회개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오염된 농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과 다시 친환경농사법으로 돌아가야 함을 전하고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주신 것과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전한다.

자원고갈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연자원들을 묻어두셔서 인간이 개발하여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인간의 욕심이 과소비를 통한 자원고갈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림과 동시에 영적자원인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까지 함께

전할 수 있다.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에는 썩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화석에너지원의 고갈과 더불어 재생가능한 천연에너지를 주셨으니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함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는 사랑임을 강조하고 사랑은 화석연료가 썩어서 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서 사랑을 베풀도록 권면한다.

악취공해에 대해서는 향기를 만들어주시고 맡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그 좋은 냄새를 악취라는 공해로 만들어 버린 것과 그 피해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며, 우리는 또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선포할 수 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소리를 만들어주시고 듣고 즐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들을 소음으로 만든 인간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믿는 우리들은 늘 입에서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다.

특히 환경주일(6월 첫 주,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더불어 3월 22일 물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등이나 창조주일, 추수감사주일 등에는 이런 친환경 녹색설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사순절에도 경건과 절제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낭비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실천해 보도록 하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도농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친환경 활동이나 농산물을 구매하고 부활절 계란도 농촌교회에서 생산한 유기농 계란을 이용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필요성과 농작물을 보살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 친환경 교회교육

교회에서의 환경에 관한 교육은 주일학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젊은 부부층과 더불어 장년층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교인들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차원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권하고 각종 환경운동이나 캠페인 포스터를 교회에 부착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를 권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된다.

친환경적인 삶을 잘 실천하는 성도들을 '녹색선교사'로 뽑아서 격려함으로써 불편함을 무릎 쓰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교육, 환경특강, 환경학교, 생태학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주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서 재활용품 공예교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교실 등의 교양교실도 가능하며, 친환경 화초 키우기, 텃밭 일구기, 지렁이 화분으로 음식물분해하기, 친환경 아크릴수세미 만들기 등의 친환경적 삶에 관한 교실들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수강을 열어두어 지역선교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계절마다 농촌교회나 기독교농가들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말농장이나 모내기, 열매숙기, 열매 따기, 고구마 캐기 등 다양한 계절 도농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젊은 부부 몇 가정이 함께 유기농 배나무 한 그루씩을 분양받아서 꽃 수정하기, 열매 숙고 작은 봉지 씌우기, 큰 봉지 씌우기, 수확하기 등 봄부터 가을까지 4번의 방문을 통한 수정부터 수확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수련회도 유기농 농가와 연계하여 생태캠프로 진행해도 좋다. 2006년 젊은부부 모임은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친환경 공동체를 방문하는 수련회를 하여 유기농 밭과 유기농 닭사육장 등을 견학하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의 영성강의와 더불어 선교 비전도 공유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주변 계곡에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물놀이도 하는 등 자연 속에서의 친환경 수련회였다.

주일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든지 친환경 농가 방문과 실습,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 장소를 섭외하여 자연을 접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함께 여러 가지 친환경 활동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교회와 연계하여 농촌교회에서 숙식하며 그 지역에 농가와 연계하는 친환경 수련회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의미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도시교회로

초청하여 도시적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교류 수련회도 가능할 것이다.

주일학교의 주말 생태캠프나 가족 생태캠프를 통해 자연과 만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친환경 자녀교육캠프나 치유캠프가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오리농마을, 누에마을, 더덕마을, 버섯마을, 억새풀마을, 갯벌체험마을 등과 같은 체험마을이나 포도, 사과, 복숭아, 배 등을 친환경농업을 재배하는 주말농장 등을 찾아서 농촌문화체험이나 산어촌문화 체험, 과수원체험 등을 통해 도시교인들의 휴식과 정서에도 좋은 프로그램들도 가능할 것이다.

주일학교를 위한 친환경 교육을 위해서는 각 주제별로 다양한 환경적인 내용과 더불어 성경말씀과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친환경활동들을 공과시간에 곁들임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의 주제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창지기의 사명’, ‘빛의 창조와 빛 되신 예수님’, ‘물의 창조와 생수이신 성령님’, ‘하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품’, ‘흙의 창조와 우리의 마음 밭’, ‘동식물의 창조와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남자와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소중함’, ‘다스림의 사명과 달란트 비유’, ‘지구온난화 문제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산성비의 문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친환경 먹거리와 영적 먹거리인 말씀’, ‘자원고갈문제와 영적자원인 은사’, ‘에너지 문제와 영적 에너지인 사랑’, ‘악취문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소음문제와 감사와 찬양의 삶’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주제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림과 환경선언’, ‘무지개 만들기 활동과 세상의 빛 된 삶의 실천’, ‘물 정화 실험과 물 사랑 결단하기’, ‘촛불에 의한 공기오염 실험과 공기사랑 결단하기’, ‘흙의 정화능력 실험과 땅 보호 약속하기’, ‘멸종위기 동물에게 위로의 편지쓰기와 동물보호 결단하기’, ‘건강한 육체를 위한 체육활동과 더불어 건강심계명 실천하기’, ‘환경호르몬 없는 천연플라스틱 만들기와 환경호르몬 줄이기 약속하기’, ‘지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세상 그리기와 환경지킴이 다짐하기’, ‘온실효과 실험과 지구온난화로 힘들어 하는 세계의 각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 ‘산성비 실험과 때를 따라 남을 돕는 결단하기’, ‘세계 곳곳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과 편지하기와 생명밥상 수칙 결단하기’, ‘재생종이 만들기과 생활 속 재활용 약속하기’, ‘친환경 에너지 체험하기와 에너지 절약법 실천을 약속하기’, ‘아로마 향기초 만들기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성령의 열매 맺기’, ‘재활용품 악기 만들기과 기쁜 말하기와 기쁜 소식전하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맺는 말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친환경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 친환경적인 활동들이 하나둘 시작될 것이다. 교회가 의지만 있다면 참으로 다양한 친환경적인 운영방법과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처음부터 모든 친환경적인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친환경적 녹색교회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친환경적인 교회운영은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사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더불어 시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친환경적인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적인 교회의 운영과 교인의 삶들이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통한 지역선교와 복음전파, 그리고 세계 선교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산물의 애용이 친환경적인 사치나 건강의 이상화를 초래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삶의 실천이 단순히 환경보존만을 강조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나 교육 또한 환경보존 캠페인 강연이나 환경과학교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요소를 반드시 잊지 않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매 번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이나 행사진행자가 복음적인 목적을 늘 잊지 않고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녹색세계선교는 굳게 닫혀 있는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수를 개발해 주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며, 친환경농사법을 가르쳐주어 질병과 식수난과 공해와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친환경 선교를 어느 나라가 거절하겠는가?

이제 교회의 친환경적인 운영과 활동은 필수이다. 최소한 한두 가지라도 실천하여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는 날을 기대한다.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녹색교회를 선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교회 후보만 **재생종이 사용** 해도

연간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윤실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 안내

“재생종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생종이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누런종이’로 표현하며 예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색빛 나무를 원료로 하는 종이와 푸른빛을 띄는 백색종이로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화학적 인공적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환경오염의 보이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무줄기를 이용해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150여년! 숲에서 벌목하는 나무의 42%가량은 펄프의 원료로 사용되며 이 펄프는 종이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종이이지만 이 종이로 인해 지구전체 원시림의 2/3가 훼손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새 하얀종이를 보고 무덤덤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재생종이의 은은한 미색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한국교회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종이를 통해 후보나 인쇄물을 만드신 후 번거로우시겠지만 제작하신 후보나 인쇄물 샘플을 보내주시면 운동을 확산해 나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40-011)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기윤실 조제호 팀장 앞

재생종이! 너는 누구냐?

1. 재생종이란?

재생종이는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리는 종이입니다. 일반 종이가 나무에서 섬유소를 뽑아 만든 펄프로 만들었다면, 재생종이는 폐지를 그 원료로 합니다. 재생종이가 모두 100% 폐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 100% 재생종이는 품질이나 가격 등의 문제로 구하거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종이 함유율(고지율이라고도 합니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율 50%라면 이 종이에겐 재생종이가 50% 사용되었지만, 나머지는 재생종이가 아닌 목재펄프나 비목재펄프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보통은 목재펄프만 사용됩니다. 비목재펄프가 사용된 경우는 아주 고가의 수입지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율이 높을수록 좋지만, 재생종이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라면 고지율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재생종이가 함유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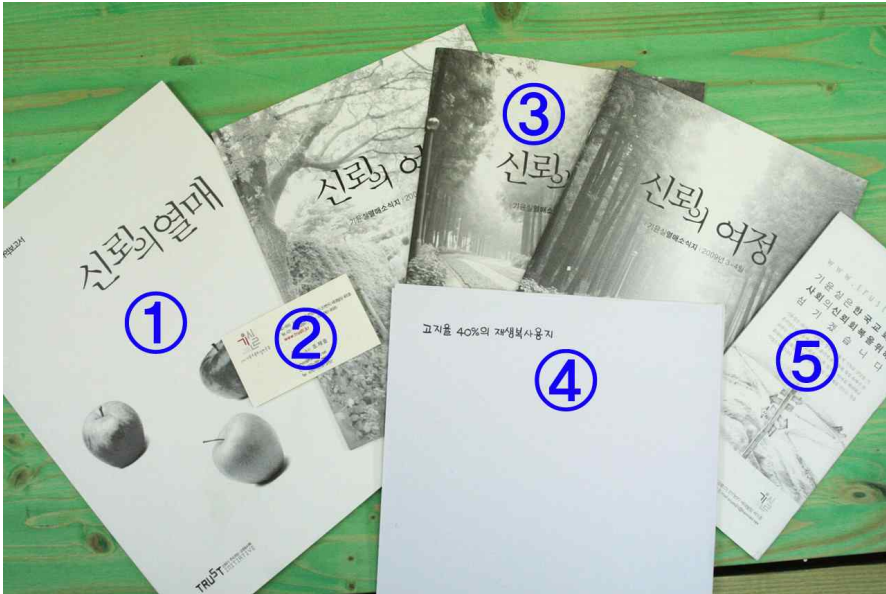
2. 사용 전 고지와 사용 후 고지??

사용 전 고지는 제지사에서 종이를 만들고 가공을 하면서 버려지는 찌가리를 다시 모아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사용 후 고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지수거를 통해 만들어진 재생종이를 나타냅니다. 기윤실 소식지는 표지는 사용 전 고지 55%, 내지는 사용 후 고지 60%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재생종이의 경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일반적으로 재생종이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 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물론, 폐지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폐지를 사용한다든지, 공정에 따라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흔히 인쇄에 사용하는 종이 모조지인데, 모조지와 가격이 비슷하면서도 수급에 문제가 없어야 재생종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윤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생종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록은 기윤실에서 여러번에 걸쳐 인쇄에 사용해 본 것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서(대다수 재생종이의 경우 이윤문제로 인해 일정수량 이상이 되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반종이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더 저렴한 재생종이들입니다. 일반종이와 가격이 비슷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재생종이를 더 조사해서 계속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름	고지율	특징	기윤실사용
인쇄용	중질만화지(70g)	사용 후 고지 60% 이상	본문종이용으로 사용	①, ③
	양코르지(130g)	사용 전 고지 55%	표지종이나 브로슈어용으로 사용	①, ③, ⑤
복사용	친환경복사용지(75g)	고지율 40%	일반복사용지와 품질차이 없음.	④
명함	스코틀랜드(220g)	고지율 70%	명함인쇄소에 제공하는 재생종이	②



교회 주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연간 2만 2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인은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62만여명에 달한다.
매주 862만여명이 모두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겠지만, **매주 만들어지는 주보의 양은 862만여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매주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862만여장(주보의 크기를 A4, 매수를 1장으로 가정했을 때)의 주보를 재생펄프 함유율(고지율) 50%의 종이에 인쇄했을 때 **매주 431그루(통상 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은 A4 기준 1만장이다)를 살릴 수 있고, 연간 52주로 계산했을 때, 2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궁인 덕수궁의 경우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창덕궁의 경우 5만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다)

즉, 계산식으로 보면

$8,620,000\text{장(통계청 조사에 근거한 개신교인수, 주보를 A4 1장이라 추산했을때)} \times 52\text{주} \div 10,000\text{장(30년생 원목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 \div 2(\text{고지율 } 50\% \text{ 적용}) = 22,412\text{그루}$

현재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궁인 덕수궁의 경우 1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창덕궁의 경우 5만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는데, 교회들이 주보만 재생종이 사용해도 덕수궁에 심겨져 있는 푸른나무의 2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 뿐 아니라 복사용지, 인쇄물까지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덕수궁, 창덕궁이 아니라 서울숲(41만여그루), 서울월드컵공원(73만여그루)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재생종이! 이것이 궁금해요

1. 재생종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나쁜 것은 아닌가요?

재생종이 공정 또한 수거/탈묵 단계를 제외하고는 일반종이 공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이쓰레기를 매립, 소각하면 더 큰 오염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의 나무를 벌목하고, 가공해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익이 됩니다.

2. 재생복사용지는 복사기에 자꾸 걸리지 않나요?

시중에서 A4나, B4사이즈로 제단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생복사용지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평량이 50~60g/m²의 '중질지', '갱지'와 75g 이상의 '친환경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중질지와 갱지의 경우 고지율이 더 높고, 저렴한 재생종이지만, 일반복사기에서 사용할 경우 적은 평량으로 인해 걸림, 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복사용지'는 평량이 75g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복사기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복사기의 성능에 확신이 없을 경우 평량이 75g 이상인 '친환경복사용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생종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에 비해 비싼가요?

재생종이의 경우 고지율 함유율이 높을수록 누런색깔을 띠고, 종이질이 떨어집니다. 다만, 고지율이 높으면서도 희고, 종이질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종이들은 주로 수입재생종이로 고가입니다. 기윤실이 추천하는 재생종이(만화중질지, 양코르지, 재생복사용지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조지나 레자크지, 복사지에 비해 구입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저렴합니다.

4. 재생종이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재생종이(복사용지)는 일반종이에 비해 어둡고, 섬유소가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컬러인쇄(복사)의 경우 색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거나, 고속/고열 복사의 경우 걸림 또는 휨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율 100%의 재생종이가 아니고, 평량 70g 이상의 재생종이를 사용한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흰 종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재생종이! 어떻게 사용하나요?

1. 교회 사무실 A4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기

모든 교회, 단체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4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교회 사무실에서 출력용이나 복사용으로 사용되고, 작은 교회의 경우 복사용지에 주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생복사용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는 불가능하고, 성림몰(<http://sunglimmall.net>)과 곱두리몰(<http://gom.or.kr>)에서 친환경복사용지라는 이름으로 A4와 B4 구매가 가능합니다. 옥션 등에서도 친환경복사용지로 검색하면 판매하는 곳이 나옵니다. 단, 이 경우 재생종이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본 안내서 3페이지 2번 질문 참조)

2. 기획사와의 작은 전쟁! 주보와 헌금봉투 바꾸기

교회 복사용지를 재생복사용지로 변경했다면 이제 주보와 헌금봉투도 재생종이로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의 경우 기획사나 인쇄소에 의뢰해서 주보나 헌금봉투를 인쇄하게 되는데, 보통 기획사나 인쇄소의 경우 재생종이 사용을 꺼립니다. 이때 그냥 재생종이를 사용해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본 안내서 2페이지에 있는 재생종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쇄를 요청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쇄수량이 너무 적거나, 인쇄를 급박하게 요청하시는 경우, 지역에 따라 수급 문제로 인해 재생종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렵거나, 인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3. 명함도 재생종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윤실이 사용하는 명함종이는 스코틀랜드라는 재생종이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수입 재생종이로 아주 고가의 종이이지만, 서울의 명함 전문업체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종이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기윤실은 성진애드캡(<https://dtpia.co.kr>)이란 업체를 통해 명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인쇄만 해 주는 곳으로 디자인은 직접 해서 넘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를 재생종이로 변경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를 계산해 보세요~

30년생 원목 1그루가 생산하는 종이량은 A4 기준 약 10,000장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인쇄부수 × A4 변환 장수(사이즈를 대략 A4에 맞춰 계산합니다) × 52주
× 60%(재생종이함유율) ÷ 10,000장(원목1그루가 만들어내는 종이량) = 00그루
예) 매주 A4 4장 분량의 주보를 500부 인쇄하는 교회가 한해 살릴 수 있는 나무
500부 × 4장 × 52주 × 60% ÷ 10,000장 = 6그루



높은뜻정의교회(오대식 목사) - 서울 도봉구 소재

* 인터뷰어 : 조제호 탐장(기윤실) / 인터뷰이 : 이동명 간사(높은뜻정의교회)

기윤실에서는 2009년 재생종이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재생종이 정보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인식부족과 사용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여전히 재생종이 사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해 주보 및 교회문서를 재생종이로 바꾼 높은뜻정의교회(오대식 목사) 사례를 통해 실제 재생종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회에 유익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재생종이로 주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높은뜻정의교회로 분립되기 전 높은뜻송의교회 시절부터 월간지인 '높은뜻'을 만들어 왔습니다. '높은뜻'의 경우 표지를 코팅한 종이를 사용했었는데, 코팅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부터 재생종이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연했기에 시도하지 못했는데, 기윤실의 재생종이 사용캠페인을 보고 용기를 얻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높은뜻정의교회에서 사용하는 재생종이는 어떤 것이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현재 매주 2,000부(A5 8페이지)씩 찍고 있는 주보는 '만화중질지(고지율 60% 이상)'를, 헌금봉투는 '그린라이트(고지율 20%)'를 사용해서 인쇄했으며,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를 모두 고지율 40%의 재생복사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높은뜻정의교회의 헌금봉투는 봉투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헌금봉투에 십일조, 감사헌금 등 항목을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헌금봉투임)

3. 재생종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획사를 통해 인쇄를 하려고 보니 기획사에서 정보가 부족했고, 특히 인쇄소에서 종이가 좋지 않아 인쇄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수급의 문제로 인해 주문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쇄 하루 전에 미리 종이를 주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4. 재생종이 사용 전과 후의 교회(교인)의 반응이 있었나요?

생각만큼 많은 반응이 있지는 않았습습니다. 그러나, '우리교회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 모임 중에 종이컵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텐레스 컵을 구입한다던지,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 교회들이 재생종이를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재생종이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용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성경공부교재가 있고,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환경을 위해 재생종이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교인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또한 제도적으로 개 교회들이 재생종이를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 공동주보 제작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제작 주보인쇄에 재생종이가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향린교회(조현정 목사) - 서울 중구 소재

* 자료조사 : 김열 추명성(장신대 신대원)

1. 농촌교회와의 자매결연

①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이후 한국농촌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게 되면 겨우 명맥을 유지해오던 농촌경제가 삼시간에 무너질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에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1995년 5월에 향린교회도 전북 김제에 위치한 들녘교회(구 금평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기에 이르렀다. 향린교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들녘교회 교우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공급받아 교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어려운 농촌경제를 돕고 또 저들에게 유기농법을 권유함으로써 생태계를 살리는 선교를 전개하고 있다.

※ 자매결연 공동선언문 중에서

<우리들의 약속>

1. 우리는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 돕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환경을 살리는 바탕 위에서 자매결연관계를 발전시킨다.
3.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환경과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의 생활과 삶을 살림으로써 죽어가는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생활로 고백한다.
5. 우리는 이 자매결연의 시작은 작지만 도시와 농촌을 이어나가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씨앗을 키워 나가기 위해 힘쓴다.
6. 우리는 이 자매결연이 자녀들에게 참된 생명과 신앙의 공동체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뜻있는 장이 되리라 믿으면서 이를 위해 힘쓴다.
7. 우리는 이 자매결연 운동이 다른 교회와 사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한다.

② 농활과 의료 선교 및 교우들 간 교류

매년 6월에 청년신도회와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들녘교회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함으로써 저들의 유기농사를 돕고 있으며, 자매결연 기념주일에는 의료선교위원회가 전 마을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기도 한다. 자매교회 관계는 단순히 생산과 판매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교우들간의 교류로도 이어지는데, 격년마다 들녘교회 전교인이 서울을 방문하여 향린 교우들의 가정에서 민박하며 우애를 돈독히 하고, 주일에는 들녘 향린 연합예배도 드리고 여로 곳을 관광하기도 한다. 특히 향린교회 교우들 중 들녘교회 근방으로 이사를 간 교우들은 들녘교회를 출석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③ 햇빛발전소 건립 준비

향린교회는 교회 조직인 환경생명위원회 외에도 교인 소모임인 평화나눔공동체가 있다. 환경생명위원회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평화나눔공동체는 삶에서 실천한다. 주말 농장을 하고 생태적 삶에 대해 공부한다. 평화나눔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향린교회가 있는 위치는 햇빛도 들지 않고, 현재 주변 지역이 재개발을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자매교회는 들녘교회에 장소를 빌리기로 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1가족 1구좌' 운동을 벌이고 있다. 1구좌는 10만 원이고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려면 230구좌가 필요하다. 현재 70가정 정도가 약정한 상태다. 들녘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수익은 농산물로 받기로 했다.

2. 아나바다 운동

향린교회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자동차, 피아노 등 큼직한 물건들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물건들은 경매를 한다. 교회를 창립한 원로 장로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기증받아서 경매하기도 한다. 교인들이 아나바다 장터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대감을 안고 물건을 준비한다. 들녘교회 사모님이 솜씨를 발휘해 보자기를 만들어 보내주기도 한다. 먹을거리 장터도 열린다. 이렇게 모은 돈은 들녘교회에 보내지고 있다. 작년에는 '아나바다' 두 번에 450만 원 정도가 모아졌다. 일 년 동안 농산물을 팔아도 수입 100만 원을 내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큰 규모다.

3. 환경강좌와 생태기행

향린교회는 매년 환경주일을 지키면서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허병섭 목사(환경운동가)·임락경 목사(시골교회) 등을 강사로 초빙해 특강을 듣기도 한다. 또한 비상시적으로 강사를 초빙해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특강을 듣다가 환경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도 창조 보존과 관련해 교육한다. 1년에 한 번 이상 생태 기행을 다녀온다. 현재 새만금도 다녀오고 홍성도 다녀왔다. 또한 강화도 갯벌과 팔당 유기농 농촌, 경부 대운하 생명의 강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4. EM효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판매



청파교회(김기석 목사) - 서울 용산구 소재

* 자료조사 : 김열, 추명성(장신대 신대원)

1. 7년 전 교회 담장을 헐고 지역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열린도서관을 만들었고, 교회 안의 공간을 단장하여 뜻있는 단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2. 생협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일에 함께 나누는 식단에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고 있다.
3. 2004년부터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과 음식쓰레기 제로 운동도 펼치고 있다. 주일 300명 교인의 점심식사 쓰레기가 단 16g에 불과할 정도로 교인들의 환경의식이 높다.
4. 공공시설로는 세 번째, 기독교 시설로는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청파햇빛발전소)를 건립하였다.
5. 2008년부터는 주일 예배용 주보를 재생용지로 쓰고 있다. 또한 김기석牧사는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회자로 유명하다.
6. 중구 용산지방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대학을 열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교회 홈페이지에 환경교육게시판을 따로 두어 교우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



광동교회(방영철 목사) - 서울 관악구 소재

* 자료조사 : 김열, 추명성(장신대 신대원)

1. 2000년에 교회 담장을 허물었고 교회 마당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들어내고 흙을 깔았다. 그곳에 나무를 심고, 실만한 의자를 놓아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했다.
2. 주말에는 생태교실을 열어 교인은 물론 지역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책상 의자 등 교회 사무실내 집기도 새것이 없고, 행정적으로 교회 비품을 구입할 때도 친환경 상품인가를 꼼꼼히 고민한다.
4. 옥상 슬래브 지붕을 타고내리는 빗물은 호스를 활용해 커다란 통에 가뒀다가 정원용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교회 지하수는 구덩이를 파서 한데 모아 펌프를 통해 다시 드럼통에 저장한다. 이 물은 호스를 통해 정원의 연못으로 흘러가고, 잉어와 곤충, 새, 고양이의 식수가 되고 있다.
5. 생명밥상운동과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6. 방영철 목사는 이면지애다 쓴 설교문을 이 서류철에 철한 채로 강단에 서고 있다.
7. 옥상에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복음교회 - 서울 종로구 소재

* 자료조사 : 김열, 추명성(장신대 신대원)

1. NCCK가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참여함.
2.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음교회에서 실시한 세미나 및 강의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을 위한 건강 세미나 - 건강 밥상 강의
 - 환경호르몬에 관한 강의 -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 물 수질오염을 막는 대책과 물 사용 방법에 관한 강의
3. 농산물 직거래
전북 김제 관상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그 곳에서 생산을 쌀을 가져오고 있으며, 청주교회와도 결연을 맺어 농약을 덜뿌린 못생긴 사과를 구입하고 있다. 농촌교회도 돕고 유기농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4.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소·절약 운동
 - 자동차 안타는 주일 선정
 - 차량 덜 타고 걸어다니기, 자전거 타기, 소등, 음식 덜 남기기 등의 운동
 - 재생지와 이면지 사용
 - 교회 주차장 앞 공간에 작은 숲을 만들
5. 향후 농촌 직거래 담당 부서, 에너지 전담 부서, 자동차 전담 부서를 따로 두어 전 교인이 청지기적 삶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



‘하나님 섭리 그대로’ 환경선교 실천

* 국민일보 2008년 5월 27일 / 김성원 기자 kemeli@kmib.co.kr

경기도 부천시 지평교회(이택규 목사)는 2005년 교회 내 환경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이산화탄소 가계부는 교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을 한눈에 파악하게 했다. 일명 'CO2다이어트'다. 2006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차 없는 날로 선포했다.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남짓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가족간 막혔던 대화가 회복된 교인도 있다. 2년 전 국내 교회에서는 생소하기만 했던 햇빛발전소를 처음 도입한 교회이기도 하다.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서울 청파교회(김기석 목사)는 6년 전 교회 담장을 없앴다. 교회 마당과 도로의 경계를 허물어버림으로써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도록 배려했다. 2004년부터는 생명밥상운동과 음식쓰레기 제로 운동도 펼치고 있다. 주일 300명 교인의 점심식사 쓰레기가 단 160g에 불과할 정도로 교인들의 환경의식이 높다. 지난해 교회 옥상에 햇빛발전소도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주일 예배용 주보를 재생용지로 쓰고 있다. 김기석 목사는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회자로 유명하다.

서울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앙교회(차정규 목사)는 관악산 공원녹지라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000년부터 교회 텃밭에 채소와 성서 속 식물을 심어 반찬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새터민을 위한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이다. 1990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동네에 유치하려던 소각장 반대 운동을 벌여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는 26일 지평교회 청파교회 신앙교회를 2008 녹색교회로 선정했다. 예배와 조직, 친교 등 성서적 관점에서 환경 선교에 앞장서 왔다는 게 선정 이유다. 지금까지 석포교회 백석교회 내동교회 광동교회 들녘교회 송악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됐다.

녹색교회 선정식에 앞서 청파교회에서 열린 2008 환경주일 연합 예배에서 김기택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은 설교를 통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다"며 "최근 잇따른 지구촌 환경 재앙이 인간의 자연 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지난 3월 열린 서울연회를 유기농 식사, 대중교통 이용한 연회 참석, 초록가게 운영 등 환경연회로 치렀다"며 "교단 차원에서 환경 선교를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예배 행사로 도농간 생명의 쌀을 나누기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도시교회로는 대덕교회 나섬교회 등 7개 교회, 농촌교회로는 경북 병성교회, 강화환경농업농민회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들 교회는 유기농쌀 직거래를 비롯한 농촌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국 교회는 84년부터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을 전후로 한 6월 첫째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다.



지평교회 태양광 발전기
(출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친환경 ‘녹색 교회’ 만들기

* 국민일보 2008년 1월 10일 /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

고유가 시대는 대체에너지 개발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꿀 것도 촉구하고 있다. 교회도 환경 친화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른바 녹색 교회.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 연합감리교회가 올 봄 대대적인 내부 수리에 들어간다. 1년 반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태양력 발전, 빗물저장 장치, 폭풍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용성 아스팔트, 지붕 정원 등을 갖춘다. 첨탑으로 상징되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바꾸는 것이다.

실내 공기 청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자재로 바꾼다. 교회측은 이같은 내용의 건축 계획서(사진)를 산타크루즈 카운티에 제출했다. 교회는 2000년 화재로 전소돼 뼈대만 남았었다. 전화위복의 경우다.

미국에서는 현재 개신교를 포함해 수백개의 가톨릭, 유대교 녹색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의 파파고교회는 교회 벽면의 90% 이상을 재생 철근을 활용했다. 지붕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한 벽돌을 썼다. 자연 친화와 함께 지역 친화까지 내다본 것이다. 주차장 노면도 둔탁한 화강암에서 지질공학적인 재질로 바꿨다. 교회 주변 조명도 낮은 볼트의 광전지로 교체했다. 화장실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를 들여놨다. 브루클린의 올세인트교회회는 난방 시스템을 30년 된 스팀 라디에이터에서 온수 라디에이터로 100% 교체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가스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연 1만70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전기시스템도 영구적인 것으로 바꿨다. 지구 온난화, 스모그,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올세인트교회는 2003년 미 환경부로부터 에너지절약상을 받기도 했다.

환경 - 관련정보 모음

- 가톨릭환경연대 www.cen.or.kr
- 경실련 www.ccej.or.kr
- 그린넷 www.greenet.org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www.greenfamily.or.kr
-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http://greenlamp.org>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www.kcem.s.peacenet.or.kr
- 내셔널트러스트운동 www.nationaltrust.or.kr
- 녹색교통운동 greencity.peacenet.or.kr
- 녹색미래 www.greenfuture.or.kr
-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 녹색평론 www.greenreview.co.kr
- 대화문화아카데미 www.daemuna.or.kr
- 동강보존본부 www.dongriver.com
- 백두대간보전회 www.baekdudaegan.or.kr
- 무지개운동 www.ecorainbow.or.kr
- 불교환경교육원 www.jungto.org
- 환경정의시민연대 www.ecojustice.or.kr
- 생명민회 www.lifeweb.or.kr
- 생명의 숲 가꾸기운동 www.forest.or.kr
- 생태도시포럼 <http://ecopolis.withyou.net>
- 생태환경문제연구소 <http://myhome.netsgo.com/j9042>
- 숲해설가협회 www.foresto.org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www.waste21.or.kr
- 에너지절약시민연대 www.enet.or.kr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www.refarm.org
- 전국습지연대회의 <http://ecoserve.kfem.or.kr/wetland>
-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www.sunchonbay.or.kr
- 지속가능한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KSDN) www.ksdn.org
- 청년환경센터 www.eco-center.org
-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www.fulssi.or.kr
- 환경과 공해연구회 www.ecoi.or.kr
- 환경교육협회 www.greenvi.or.kr
- 환경마크협회 www.kela.or.kr
- 한국반핵운동연대 www.antinuke.org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www.kengo.or.kr
- 환경보전협회 www.epa.or.kr
-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www.ktu.or.kr/~konect
-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UNEP 환경위원회 www.unep.or.kr

정부기관 및 연구소

- 환경부 www.me.go.kr
- 국립환경연구원 www.nier.go.kr
- 한국자원재생공사 www.koreco.or.kr
- 환경관리공단 www.emc.or.kr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www.konetic.co.kr
- 국립공원관리공단 www.npa.or.kr
- 자연보전협회 <http://user.chollian.net/natcon>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www.pcsd.go.kr
- 에너지관리공단 www.kemco.or.kr

외국기관

◆ 환경 관련 국제 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 기후변화협약 www.unfccc.d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www.ipcc.ch
- 생물종다양성협약 www.biodiv.org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www.cites.org
- 람사습지협약 www.ramsar.org
- 몬트리올의정서 www.unep.org/ozone
- 바젤협약 www.basel.in
- 이동성생물협약 www.wcmc.org.uk/cms
- 런던협약 www.londonconvention.org

◆ 외국 환경민간단체

- 월드워치연구소 www.worldwatch.org
- 어스워치연구소 www.earthwatch.org
- 세계자원연구소(WRI) www.wri.org
- 그린피스 www.greenpeace.org
- 시에라 클럽 www.sierraclub.org
- 지구의 친구들 www.foe.org
- 어스퍼스트 www.earthfirst.org
- 국제자연보전연맹 www.iucn.org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 ☑ 생각나눔 : 웹2.0시대와 문화선교
- ☑ 실천나눔 :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 ☑ 교회사례모음

인터뷰 - 창천교회/ 새로남교회

사례조사 - 본교회/ 문래동교회/ 수유리성결교회/ 제주성안교회/ 동송교회

웹2.0시대와 문화선교

임성빈 |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문화선교연구원장

Think Globally

들어가며

2008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시위와 2009년의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그 이후 조문정국은 우리에게 21세기적인 문화변동을 경험하게 해 준 사건이다. 우리는 인쇄 매체가 디지털 영상매체로 전환된 사회를 실감했으며, 이른바 웹 2.0 시대로 명명되는,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쌍방향성의 문화가 도래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만약 촛불과 조문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 이는 아직 이 시대의 문화변동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반면,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 교회의 문화선교적인 노력은 너무도 아쉬운 점이 많다.

문화 선교적 노력이 회중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성육신적인 자세와 태도를 전제로 한다면, 교회에게는 무엇보다 웹 2.0 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회가 먼저 이 세대의 감성과 가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에 바탕한 신학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세대를 향한 적합한 설교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사역을 통한 삶의 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1. 웹 2.0 세대의 등장

이른바 웹 2.0 세대는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공동체적인 인정을 갈구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전문성과 신속성을 담보한 문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웹 2.0

세대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포스트 모던 문화와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인터넷 문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배경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이해한다면, 아직은 비교적 낮은 웹 2.0 세대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나'를 갈구하는 포스트 모던적 문화의 특성

이성을 중심으로 한 보편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급부상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상의 영원불변한 요소, 즉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웹 2.0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심: 상대성과 다원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상은 전통적으로 관용(tolerance)을 주요한 덕으로 표방해 왔던 서구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자신의 주도권이 은연중 전제된 가운데 다른 이들을(others) 관용하였던 자세에서,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특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다원주의(pluralism)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신학에서는, 현대 해석학이 전제로 하는 해석자와 텍스트의 시원적인(genealogical) 다원성을 근거로 성서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다원성이 요구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특정한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나 신학에 독립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이거나 인간적인 경험, 즉 어떠한 외부적인 기준도 있을 수 없다'¹⁾는 주장을 낳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유의 양상은 문화현상적인 다양성을 배태한다. 전통적이고 독점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새로운 세대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며 각자의 '튀는 문화'를 조성한다.

억압에 대한 저항: 상대성과 다원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존의 질서(status-quo)가 갖는 억압성에 저항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코넬 웨스트(Cornel West)등은 사상이나 텍스트, 이론들과 언어의 사용 등으로 구성되는 담론들(discourses)이 그 자체가 일종의 실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백인우월주의에 기초한 인종차별주의의 예에서 관찰되듯이, 인종차별주의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며, 사상과 텍스트, 이론을 통해 조장되고, 언어의 사용 등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억압들이 이러한 담론들에 의해서 매우 교묘하게 조장되고 있음을 간파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독특한 공헌 중 하나이다. 담론들의 형태 뿐 아니라, 담론적인 억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주는 보다 '비담론적인 것들(extra-discursive affairs)'-예컨대 사회제도, 계급구조, 경제적 필요와 제도적 기구 등-의 존재에 의

1) Francis Schussler Fiorenza, *Foundational Theology: Jesus and the Church*(New York: Crossroad, 1984), p. 289, Mark K. Taylor, *Remembering Esperanza: A Cultural-Political Theology for North American Praxis*(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0), p.37에서 재인용.

하여 억압이 가능해진다는 관찰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정치적으로도 매우 저항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한다.²⁾ 우리가 60년대 말에 미국과 불란서 등지에서 목격하였던 체제저항운동이 이러한 사조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담지하고 있는 주요한 경향중의 하나는 ‘억압에 대한 저항성 (Resistance to Domi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모더니즘에서도 기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저항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그것이 보다 시원적(genealogical)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과연 이렇게 철저하며 근본적인 저항성이 지향하는 결국은 무엇일까? 이러한 저항성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인가? 해체가 종착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와 기초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이 앞으로의 기독교가 응답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강조: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의미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권위의 모순에 도전하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연속성을 갖는다. 즉 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에 도전하면서 이성을 강조하였던 계몽주의자들과도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롭게 형성된 권위와 질서에 반기를 든다.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의심없이 수용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고자 했던 ‘명확하고 분명한’ 이성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는 구별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체주의자들에게서 극치를 보이는 가차 없는 비판은 허무주의 내지는 상대주의로 귀결될 뿐이다.

이러한 난국을 간파한 일단의 학자들은 모든 것이 파편화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담보하는 방편으로서 ‘전통’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매킨타이어(Alistair MacIntyre)로 대표되는 일군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전통’은 매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체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이들 대부분이 계몽주의 및 그에 기초한 모더니즘, 나아가 모더니즘에서 비롯되는 현대문화 및 사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이다.³⁾ 이러한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은,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모더니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일단의 신학자들에 의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른바 ‘후기자유주의 신학(post-liberal theology)’을 주창하는 조지 린백(G. Lindbeck), 하우워와쓰(Hauerwas)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전통이 강조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화적 보수로 회귀하지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신학 등의 해방신학 및 다양한 맥락적 신학들(contextual theologies)들에서는 전통 안에 감추어져 왔거나 억눌려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들의 주장에 역사성을 부여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2) Mark K. Taylor, *Ibid.*, pp.37-38.

3)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245

4) Mark Taylor, *op.cit.*, Richard Foster는 전자를 ‘postmodernism of reaction’으로 후자는 ‘postmodernism of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한때 문화제왕으로 군림했던 서태지가 ‘하여가’와 ‘발해를 그리며’ 등의 노래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면, 이는 이러한 문화적 양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는 세상에서 민족의 뿌리를 노래한다는 것은 많은 젊음이들에게 나름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전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절박하게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질문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야 할 질문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릎 쓰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특징을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전통이나 이성애에 근거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성의 권위에 반항하며, 온갖 형태로 ‘튀어’ 보지만 결국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몸부림치는 현실이 곧 포스트 모던적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웹2.0이 갖는 특징-자기표현에 대한 욕구와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인정의 과정-이야말로 포스트모던적 문화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을 갈구하는 디지털 사회의 문화적 특성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방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이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매개체인 미디어는 수단 이상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매체를 요구하고,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간다고 하지만, 21세기 미디어는 기존과는 또 다른 문화적인 문법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간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른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간의 갈구는 디지털 기술을 빌어 혁신적인 도약단계에 이르렀다. 디지털 기술로 상징되는 멀티 미디어의 등장, 그로 인한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문화에 놀랄만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뉴 미디어⁵⁾란 ‘기존의 미디어에 새로운 컴퓨터 및 통신기술이 결합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수집, 처리와 가공, 전송, 분배와 이용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⁶⁾이다. 반도체 기술과 컴퓨터의 개발이 정보처리 기술을 급격하게 발전시켰다면, 통신위성이 발사되고, 광섬유가 활용되면서 정보전송 기술

resistance’로서 분류하였다.

5) 혹은 뉴 미디어와 멀티 미디어를 대화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그 차이를 절대적인 의미에서 구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러나 IPTV의 실용화가 현실화된 오늘 대화성의 강화, 즉 쌍방향성의 강화로 상징되는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가 더욱 강화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6) 김영석, *op. cit.*, p.26.

또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처리 기술과 전송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기술적인 개념들이 이제 사회문화적인 양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적 개념으로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⁷⁾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디지털화⁸⁾ 및 종합화(integration)⁹⁾와 융합화(convergency)¹⁰⁾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다른 기술적 요인들과 어우러져 쌍방향성(interactivity), 영상화(visualization), 탈대중화(demassification) 및 비동시성(asynchronicity)¹¹⁾이라는 문화적 양상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세대는 인터넷을 매개로 세계와 개인적이고 주체적이며 쌍방향적인 관계를 맺어 간다. 때문에 이들은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와 감성에 바탕을 둔 지적 개방성을 문화적 특성으로 갖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세계내의 다양성을 체험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 포용적일 뿐 아니라, 쌍방향적인 관계성을 지향한다. 이들은 관계적인 대화를 통해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시도하고, 문화적인 혁신을 추구해 간다. 이 외에도, 성숙성에 대한 집착, 다소 성급한 신속성의 추구, 끊임없는 사실확인을 통한 신뢰추구 등은 디지털 세대의 대표적인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세대가 추구하는 변화가 실제의 삶 속에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웹 2.0세대는 조직 문화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낸다. 철저한 개인주의 문화는 조직 안에서 분자화를 추구하며, 감성적 지적 개방성은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요구한다. 또한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하여 수용적인 개인 문화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강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문화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근무환경을, 성숙성에 대한 집착은 능력위주의 평가를, 또한 끊임없는 사실 확인을 통한 신뢰는 사실성에 바탕을 둔 신뢰와 신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며 또한 요구한다.¹²⁾

(3) 포스트 모던적 요구와 디지털 문화의 성숙단계로서의 웹 2.0 세대

진정한 '나의 발견을 갈망하며 몸부림치는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적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웹 2.0 세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웹 2.0은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응답이며, 디지털 문화의 성숙과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 *Ibid.*, pp.59-60.

8) 디지털화 된 정보는 아무리 여러 번 복사하여도 화질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열화(劣化)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9) 종래에는 문자, 음성, 그림, 영상이 각기 다른 전용장치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멀티 미디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기기로 네 가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10) 과거에는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전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멀티 미디어의 등장으로 각 미디어간의 구분이 허물어져서 결국은 하나로 융합하게 되었다.

11) 예컨대 전자우편(e-mail), 전자게시판 및 자동응답기 등이 이러한 문화를 현상적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최근 IPTV의등장이 그 대표적 예이다.

12) 돈 텡스콧,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물푸레, 2000), pp.354-5.

특별히 개인주의적인 '단핍' 자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자아 표현을 통한 '열린'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웹2.0은 의미가 있다. 웹 2.0의 특징인 '1촌 맺기' 등의 관계 맺기는 자아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갈망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기존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문화가 익명성으로 인한 폭력성과 무책핍성을 과제로 가졌다면, 웹 2.0문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초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해 준다.

또한 웹 2.0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익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이분화 현상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이전에 흥미를 제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비교적 손쉽게 웹 2.0을 통해서 사이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웹 2.0은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 이제 웹 2.0은 특정 제품 뿐 아니라,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기존 소비자들의 평가를 제공하고, 문화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주권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웹 2.0은 기존 언론을 견제하는 대안 언론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기성언론이 강대국들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면, 이라크 전쟁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평범한 건축가 살람 파크스의 '라에드는 어디에 있나'라는 개인 블로그는 이해관계와 무관한 대안적인 보도의 형태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참여적 민주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웹 2.0 세대의 부상과 교회의 과제

이른바 웹 2.0 세대가 우리사회의 문화적 주류를 부각되면서, 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특별히 오늘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선교적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들에게 종교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첨단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이들도 신비의 세계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그러나 아 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성 종교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담은 이른바 '안티 기독교'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웹 2.0 공간에서 제도권인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웹 2.0 문화에는 여전히 신비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이 왕성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정통 기독교나 교회의 가치관과는 다르

지만, 뉴에이지나 요가, 도 등 인간의 구원과 수양, 영혼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전생과 영혼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을 보면, 여전히 웹 2.0 문화는 종교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1) 웹 2.0 문화의 종교적 특징

웹 2.0 문화는 종교적 신비나 영혼의 문제가 왜곡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이 존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왜곡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수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분석적 시도가 요청된다.

첫째, 웹 2.0 문화는 기성·제도적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다. 예컨대 인터넷에서는 기존 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기성 종교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성직자에 대한 비판이 성행한다. 이것은 웹 2.0 문화에서는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¹³⁾

둘째, 종교적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초월에 대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웹 2.0이 정보 교환에 있어서 비약적인 속도를 담보한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속도(speed)는 시간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을 통하여 나와는 다른 실재(reality)들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절실히 경험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실재의 발견은 자신의 존재를 상대화하게 되며, 결국 이성의 한계 안에서 포용할 수 없는 세계의 다원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다원성 인식은 결국 상대적인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셋째, 웹 2.0은 인류의 병, 죽음, 고통의 문제를 통해 종교를 인식한다.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의 곤궁한 환경을 접하면서, 이들은 고통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탐색을 시도한다. 이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진리나 교리를 통해서 종교를 경험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¹⁴⁾

넷째, 웹 2.0의 주요한 종교적 특징은 모호함이다.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정통성이 중요했던 반면, 웹 2.0 환경 속에서의 신앙은 다원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검색하면, 하이퍼텍스트로 바벨론 신화나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 비판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때문에 그들은 교회가 특정한 교리적 차원의 가르침만을 고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 된다면, 이를 위해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바른 해석과 신학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정보력에 교회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반기독교적 편견과 오해들은 더욱 확산되어 갈 것이다. 더욱이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웹2.0 세대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13) Tom Beaudoin,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Jossey-Bass Pub., 1988), pp.51-72.

14) 위의 책, 96-110쪽

욱 적극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¹⁵⁾

(2) 웹2.0 세대를 향한 교회의 과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웹 2.0 세대의 갈망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나를 찾으려는 갈망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웹 2.0 세대로부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꾸미기 등의 경향을 발견한다. 이 때 교회는 남을 의식하며 ‘꾸민 나라든지 남에 의하여 ‘꾸며진 나’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야기한대로,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을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 진정한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알아야 그 출처와 용도를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행 17:28)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 분을 힘입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 즉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웹 2.0 세대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초대와 자리로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관계맺기가 나를 꾸미기 위한 너와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관계를 맺어가는 소그룹을 활성화해야 하며, 인격적인 대면에 기초한 만남을 실현해야 한다. 교회는 웹 2.0을 통해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웹 2.0세대에게 증거해야 한다. 교회는 이들이 사이버 세계에서 꿈꾸는 삶이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웹 2.0 세계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바쁜 삶을 영위하는 웹 2.0 세대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의 관심과 소망이 표현되는 웹 2.0에 선교적 관심으로써 참여해야 한다. 이 때,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비록 웹 2.0이 기존 홈페이지에 비해 참여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직도 디지털 기술과 전문지식의 유무로 인한 정보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기존 문화로부터 학습된 성향이 웹 2.0 문화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모두가 웹2.0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웹 2.0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글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0대들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웹2.0을 운영하고 또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육 목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이버 문화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

15) 위의 책, 121-142쪽

와 지식을 나누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는 웹 2.0 안에서 토론과 관심 나눔에 선교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만, 매우 겸손한 태도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요즘 교회는 사이버 세계에서 반기독교 단체와 개인들에 의하여 집단적 매도를 당하는 일들을 빈번히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특별히 사이버 상으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혹 반론을 펴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일부는, 비기독교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방법, 즉 무례한 태도로 무식한 주장을 함으로써 교회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오프라인에서의 전도 훈련뿐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전도 훈련과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교회는 웹2.0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복음적 응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이제 교회는 웹 2.0 세대에게 웹 2.0으로써 다가가고, 복음을 삶으로써 증거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웹 2.0 시대, 문화선교의 방향

교회는 웹 2.0 시대의 문화를 ‘문제아’ 내지는 ‘타락한 탕자’로 여기는 배타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극복해야 한다. 사실상 N 세대는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역이자, 교회로서도 선교 2세기의 주역이다. 교회는 오히려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선언해야 한다. 여전히 종교적 욕구를 가진 웹 2.0에게 그 방식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본적으로 웹 2.0에 젖어있는 이들을 우선적인 교회의 섬김과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웹 2.0을 섬기기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먼저 노력하여야 할 것은 더욱 더 섬기며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웹 2.0 시대의 문화가 기성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의하는 이유들을 들여보면 기존의 교회가 수용해야 할 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장유유서적인 관점에서 권위만을 내세우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웹 2.0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 더 사랑으로 섬기며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웹 2.0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웹 2.0 공간은 새로운 선교지이다. 먼저 선점하는 세력이 이 공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유로움과 새로움과 다양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쉽게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웹 2.0 영역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마지막 ‘땅 끝인 썸이다. 그 영역은 권위와 전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진 우수한 가치관과 문화로 채워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적극적인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전적 영성, 즉 몸과 영혼, 세상과 교회와 같은 이원론적 도식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경적 영성을 보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성훈련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전교회가 이를 중심으로 문화적 삶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육과 영혼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풍조를 지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더 통전적이고 성경적인 영성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실현해야 한다.

넷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지표를 교회는 적극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웹 2.0은 변화를 원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갱신을 추구할 때에는, 젊은 세대 특별히 웹 2.0 세대가 갖는 갱신의 방향과 접촉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웹 2.0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거나 수용하려는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보수하되, 새롭게 해석된 복음을 현실에 맞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박상규 | 만나교회 목사, 문화네트워크

Act Locally

1.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징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표어를 지닌 만나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분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신도시로서 높은 교육열과 함께 타 도시에 비해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특히 중대형 교회들과 설교와 목회 잘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분당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특성(2005년 통계청 기준 분당구 25.6%)을 갖고 있어 교회와 성도간, 교회와 비성도간, 성도와 비성도간에 복잡한 역학구조 속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 일희일비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가 참 평안하고 쉬을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동시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 교회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소통하는 공간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시대가 마침내 도래 하게 되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교육, 교계, 중상류층, 소외계층 등 각 계, 각 층 그 어느 곳에서도 ‘문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2. 교회 안과 밖의 문화선교 필요성 대두

21세기 문화의 세기 시작과 함께 주 5일 근무로 인한 여기문화의 확산은 교회들로 하여금 서둘러 대안 마련을 모색하게 하였고 이는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등과 같은 분야를 활용한 구체적

인 전략을 기획 추진하여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고 신앙의 성장과 함께 선교에도 기여하는 결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교회에는 “포괄적인 문화예술의 모든 영역을 복음적 정신과 실천으로써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헌신된 문화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영향력 있는 문화선교적 이론과 현장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교회 모든 세대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독교 문화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의 ‘문화적 영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아울러 성장 일변도의 양적 확산이 가져온 질적인 미성숙에 대한 염려와 지난 1세기의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력의 미진함을 우려하는 성찰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면서도 차별적인 문화선교 역할을 통해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다.

2004년 4월, 새로운 목회 리더십 승계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만나교회 발전을 위한 성도/비성도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바람직한 교회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봉사과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교회가 본질적인 종교 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대사회적인 부분의 사명감당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서 보고서에 의하면, 만나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교회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봉사와 사회적 활동’(비성도들을 위한 유아교육, 문화강좌, 스포츠 교육 등)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만나교회는 향후 2020년까지 15년간 교회의 비전과 구체적 목회계획을 제시할 <비전 2020>을 완성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표어를 실천하기 위해 교회 안과 밖으로 대두된 지역사회를 위한 감동 목회 프로젝트 ‘파구스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게 되었다.

3. 교회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과 콘텐츠

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문화 공간

만나교회는 지역사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꿈꾸는 교회이다. 다른 교회들도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타 교회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나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관 1층 공간과 새로 건축한 공간 파구스를 다음세대(교회학교)를 위해 배치하여 가장 최적한 환경 속에서 교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좋은 공간을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사용할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장소로는 본관쪽 어린이전용통로(평일과는 다르게 주일에는 어린이 전용통로가 적용됨)를 중심으로 다니엘홀, 한나홀, 소망홀과 함께 총 11개 세미나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공간 파구스쪽 프라미스홀(대체육관), 피스홀(소체육관)은 어린이, 학생,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정해진 신청절차에 따라 예약하면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표1) 주중과 주말 용도가 전환되는 공간 시스템

	장소	주중 활용	주말 활용
본관 지하 1층	레스토랑 파구스	- 지역 주민 및 교직원 식당 - 아카데미 수업: 요리 및 비리스타 교육장 - 소그룹 모임 - 경로대학 성경공부 * 외주 업체 위탁 운영 : 월~주일 점심 식사 가능	식당
	아가페홀 (1인 의자 - 자유 배치가능)	- 성남문화통화사업 “사랑방” 장소 공유(음악회 또는 세미나 진행) - 부서별 행사 - 아카데미 수업 : 음악프로그램 진행	토요일 : 지역주민 및 성도 결혼예식 주일 : M.KIDZ 예수마을 및 영어예배
	호산나홀 (계단식 의자 배열-소극장)	- 성남문화통화사업 “사랑방” 장소 공유 - 각종 세미나, 음악회 진행 - 지역 학원,유치원등 발표회 장소 공유 - 교회내 합창/중창단 연습실	성가대/오케스트라 연습실
본관 1층	세미나실	- 아카데미 수업 : 문화/취미,음악프로그램 - M-School : 성경공부 - 여선교회 및 셀 모임 - 성남문화통화사업 “사랑방” 장소 공유	M-School : 성경공부 기관별 월례회 교육기관 회의 및 성경공부
	다니엘홀 (1인 의자 - 자유 배치가능)	- 성남문화통화사업 “사랑방” 장소 공유(음악회 또는 세미나 진행) - 경로대학 예배 및 성경공부 - 부서별 행사 - 아카데미 수업 : 음악프로그램 진행	토요일 : 지역주민 및 성도 결혼예식 주일 : M.KIDZ 유년부 및 JC Club
	한나홀,소망 홀 (좌식 공간)	- 아카데미 수업 : 발레외 - 경로대학 취미 강좌 진행:스포츠/라인댄스외 - 영아부 활동 - 중보 기도 모임	영아부, 장아우 예배 장소

② 지역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한 명품 브랜드 ‘파구스’

파구스란 무엇인가?

파구스는 헬리어로 ‘언덕’이란 뜻으로, “아름다운 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만나는 이 곳, 파구스”라는 모토를 가지고 만나교회 1층 주요공간에 위치한 카페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대표 브랜드 ‘파구스’로서 지역사회 공헌과 섬김을 위해 편안한 쉼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칭한다(공간은 OO 파구스 / 콘텐츠는 파구스 OOO로 통일한다).

표2) 브랜드 파구스 표기법

	1	2	3	4
장소	공간 파구스	카페 파구스	북 파구스	외식 파구스
프로그램	파구스 콘서트	파구스 시네마	파구스 워십	파구스 갤러리

-. 문화카페 파구스

2006년 10월 1주에 시작된 만나교회 문화사역의 대표주자이다. 분당 정서에 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120석의 아늑한 좌석, 그리고 약 60품목의 다양한 메뉴가 잘 어울리는 카페 파구스는 새로운 컨셉의 ‘문화카페’를 지향한다.

음악, 미술, 영화, 책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으며, 주말 뿐 아니라 평일날도 지역주민들의 쉼과 여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학부형 모임부터 직장 동료 미팅, 지역 음악학원 발표회, 사랑방 문화클럽 콘서트 등에 이르기까지 비성도들에게도 환영 받고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공부방 지원사업, 태능선수촌 예배실 리모델링, 미자립교회 차량지원, 사회공헌과 선교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표3) 문화카페 파구스 메뉴표

커피류		티	
hot	ice	허브티	스페셜 티
에스프레소 콘파나	아이스 커피	그린티	밀크티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푸치노	아쌌	고구마 라떼
카푸치노	아이스 카페 라떼	다즐링	핫초코 / 아이스 초코
카페 라떼	아이스 카페 모카	카모마일	녹차 라떼 / 아이스 녹차 라떼
카페 모카	아이스 카페 카라멜	페퍼민트	유자차
카페 화이트 모카	아이스 화이트 모카	로즈힙	아이스 티
카페 카라멜		라벤더	레몬에이드
마론 카페 라떼		레몬 버베나	
마론 마끼아또		자스민	
고구마 마끼아또		로즈마리	

주스	생과일 주스	계절 메뉴	제과
오렌지 주스	키위	여름 : 팔빙수	빵
포도 주스	토마토	겨울 : 한방 대추차	파이
자몽 주스	파인애플		스틱케이크
사과 주스	감		쿠키 & 케이크

-. 공간 파구스(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2007년 2월, '다음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파구스'가 완공되어 교회 안과 밖으로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곳은 각 공간마다 부족함이 없는 음향/영상/조명 그리고 전동식 전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크게는 '예배공간', '콘서트홀', 그리고 '체육관' 이 3가지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멀티플렉스'이다. 주말에는 청소년(중1-고3)부서인 마이블루(MY.Blue)와 초등부(초4-6년)가 예배 및 기타 부서별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중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주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서는 스포츠선교회이다. 주중에는 2층 피스홀에서 매일 저녁 6시, 약 30명의 탁구 선교회 회원들이, 3층 프라미스홀에서는 저녁8시, 약 20명의 배드민턴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운동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회원들 중 약 40-50%가 비성도이거나 타 교회 교인이라는 점이며, 각 스포츠 선교회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 관계형성 후, 비성도에 한해서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파구스 아카데미 스포츠 분야 수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에어로빅, 필라테스, 발레 과목 이외에도 농구, 배드민턴, 난타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 토탈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반응이 뜨겁고 긍정적 기대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공간파구스에서는 세계 125개국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를 2008년도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아 체력단련 활동, 자기개발 활동,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수준 있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습과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4) 주중과 주말 용도가 전환되는 공간 시스템

장소		주중 활용	주말 활용
공간 파구스	흡연실	흡연실	
	1층 주차장	옥외주차장	
	2층 피스홀 (소체육실)	- 아카데미 수업 : 한국무용, 생활 체육외 - 지역 개방 프로그램(저녁) : 탁구선교회	M.KIDZ 초등부 예배 다양한 교회학교 음악활동 성남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2층 회의실 (에어로빅실)	- 아카데미 수업 :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발레외 - 경로대학 특별활동 : 공지압 요가	M.KIDZ 초등부 교사실 청소년/청년 CCD
3층 프라미스홀 (대체육관/농구장)	- 아카데미 수업 : 농구, 배드민턴, 난타외 - 지역개방 프로그램(저녁): 배드민턴선교회 - 금요일(저녁) : 비영리 토탈 스포츠 프로그램	MY-BLUE 청소년부 예배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국가인증제 (체력단련/자기개발/봉사활동 진행) 청소년 농구동아리, 성인 농구선교회	

-. 레스토랑 파구스

2007년도 후반기부터 교회 지하1층 식당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레스토랑 파구스’가 탄생하게 된다. 식당 같지 않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의탁자 그리고 외식전문업체의 위탁운영체제를 통해서 만나성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일부 직장인들도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 일부를 할애하여 ‘바리스타 교육장’, ‘여선교회 상설매장’ 등으로 꾸며 공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파구스 아카데미 차원에서는 커피전문가 바리스타 전문가반, 요리전문가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파구스 아카데미(신개념 문화강좌)

2007년 3월, ‘YMCA&만나 문화레포츠 센터’가 시작되어 2007년도 연 219강좌/연 1835명의 수강생, 2008년도 연 216강좌/연 2255명이 모집되어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소정의 실비를 받는 유료강좌와 무료강좌로 나뉘어 문화/취미, 스포츠/댄스, 뮤직아카데미, 문화체험단의 총 4개영역에 분기별, 방학특강, 스페셜 특강 형태로 진행되어온 이 프로그램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뜻하지 않은 실정법상의 어려움,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보다는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꼭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서의 중요성을 목회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을 설득하였고 실무자들에게도 실정법과 의사소통에 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여, 지금은 만나교회 교육시스템인 M-School안의 ‘파구스 아카데미’로 전환하여 성공적인 정착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파구스 아카데미는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삶의 쉽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비성도 “교회를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너무 예쁘고 훌륭한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지! 기존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좋은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 . 옆에 카페가 있어서 간식과 음료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나교회 장소를 적극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반응과 선교적 열매로 인하여 2007년도 22명, 2008년도 17명이 파구스 아카데미를 통하여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도 매일 매일 교회 곳곳의 공간은 삶의 쉽고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표5) 파구스 아카데미 운영 분기별 역할

봄학기	3월	봄학기 개강 및 겨울학기 결산/평가	전 전도 회계 결산 및 평가
	4월	여름학기 기획	여름방학 전략 준비
	5월	여름학기 홍보 및 접수	
여름학기	6월	여름학기 개강 및 봄학기 결산/평가	
	7월	가을학기 기획	
	8월	가을학기 홍보 및 접수	
가을학기	9월	가을학기 개강 및 여름학기 결산/평가	
	10월	겨울학기 기획	겨울방학 전략 준비
	11월	겨울학기 홍보 및 접수	아카데미 페스티벌(음악/댄스/스포츠/문화-취미 전시 및 발표회)
겨울학기	12월	겨울학기 개강 및 가을학기 결산/평가	
	1월	봄학기 기획	
	2월	봄학기 홍보 및 접수	음악교실 향상음악회-봄학기 홍보

표6) 파구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요약표

프로그램	성인반	유아~청소년
문화/취미	영어,일본어,중국어 네일아트,POP예쁜글씨,폼아트 바리스타교육, 타악 퍼포먼스	종이접기,초등미술,생각을그리는 아이, 노래가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어린이 난타,어린이 요리
스포츠/댄스	한국무용,라인댄스,에어로빅,필라 테스,요가,배드민턴	농구,배드민턴,발레
음악	동요(성악)교실,첼로,플룻,클라리넷,바이올린,만돌린, 오보에,반주법,피아노,일렉트릭기타,클래식기타,드럼	
특강/문화체험단	어머니 사관학교, 견학/체험 학습	

-. 파구스 콘서트 / 파구스 시네마

파구스 콘서트는 “카페 파구스에 다양한 사람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쉽고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달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교회 이미 지 브랜드화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카페 파구스 운영에도 적지 않 은 도움이 예상된다.

매달 첫 주(나머지 3주간은 파구스 시네마 상영),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고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섹션화 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컨셉으로 해서 교회 안과 밖의 많은 사람들 즉 성도 중에서 음악공연이 가능한 성인, 청소년, 아동과 사랑만 문화클럽의 음악클럽들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학교, 학원 등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열려져 있는 ‘열린 문화예술 팩토리’가 되 어가고 있다. 예산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표7) 파구스 콘서트 계획안

목적	카페 파구스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 제공
효과	교회 이미지 브랜드화에 큰 역할 기대 및 파구스 운영에 도움
방법	정규적인 ‘섹션화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진행
프로그램	카페 파구스 및 문화선교부 예산으로 년12회 공연, 파구스시네마 52주로 편성

월	프로그램	내용	구성	실무책임
1월	파구스 기획 콘서트1	소극장 공연 컨셉으로 진행하는 ‘기획공연’	‘게스트’섭외 (공연 기획/연출사)	임진기
2월	만나 향상음악회	뮤직아카데미 발표회	뮤직아카데미 강좌별 연주	파구스 아카데미
3월	사랑방 문화클럽 문화프로그램1	사랑방 문화클럽 섭외	공연 및 전시	성남문화통화
4월	파구스 앙상블 공연1	금관5중주	크로스오버 장르	장석근
5월	청소년 오케스트라 - Old & New -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TS협연	클래식과 팝의 만남	박용준
6월	만나 작은음악회 - 7080콘서트 -	교회내 음악부	클래식과 포크	파구스기획 김기범
7월	파구스 기획 콘서트2	‘기획공연’소극장 컨셉	‘게스트’섭외(공연 기획/연출사)	임진기
8월	사랑방 문화클럽 문화프로그램2	사랑방 문화클럽 섭외	공연 및 전시	성남문화통화
9월	파구스 앙상블 공연2	금관5중주	크로스오버 장르	장석근
10월	창립기념 지역주민 초청 노래방 경연대회	대내외적으로 함께하는 전도방식	예/본선후 축제	파구스기획 김지영
11월	파구스 콘서트4 ‘Thanks Giving’	대극장공연 컨셉-1년 결산	‘게스트’섭외 (공연 기획/연출사)	파구스기획
12월	파구스 송년 음악회	성탄과 송년 축하	코로스오버 컨셉	파구스기획 문용택

③ 사랑방 문화클럽(신모델 문화선교 네트워크)

사랑방 문화클럽이란?

성남에서 시작된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전문 혹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문화생활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다.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랑방 문화클럽'은 2009년 현재 136개의 클럽들이 자신의 문화적 취향과 끼를 발산하려면 배우고, 연습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재단 측에서 발행한 통장 '문화화폐-넘살'로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적 거래(주고/받기)를 각자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공간, 공연, 교육, 사랑방활동, 장터등)으로 문화통화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공식지정 '사랑방1호'인 만나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교회의 공간을 필요한 클럽에 제공하고, 교회는 필요한 공연 및 교육을 '문화화폐-넘살'로 주고 받으며 문화품앗이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는 주로 공간과 악기 그리고 영상과 음향 장비를 제공하며, 실력 있는 음악 관련 클럽들의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교회는 확보된 '문화화폐-넘살'은 디지털카메라 촬영법, 만돌린 레슨 등의 강사비와 음악공연에 대한 섭외비로 지급하였으며, 최근에는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지는 연극과 뮤지컬의 티켓가격으로 지불되어지거나 클럽회원간 이루어지는 '성남 문화통화 장터'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어졌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화의 시대에 교회/지역주민/관공서(지자체) 세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21세기형 문화선교 네트워크의 신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공서는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문화클럽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다가 준비가 되면, 지역의 소외된 지역과 계층들을 찾아가 '문화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성남의 문화공헌 프로젝트를 통한 '우리동네 문화만들기' 사례).

④ 흡연실

남성들을 전도하거나 예배참석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핑계는 술과 담배이다. "제가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요... 나중에 끊으면 꼭 나가겠습니다." 만나교회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남성들도 편하게 올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감히 교회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가장 편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 놓았다. 그랬더니... "분당에 가면 재떨이를 놓고 예배드리는 모교회(?)가 있다더라...", "만나교회는 담배피우는 것을 묵인(?)한다더라..."식의 유언비어도 들려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은 사라지고, 실제로 흡연실을 사용하는 흡연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 특히 젊은 남자 청장년 그룹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만나교회는 참 편안하고 열려 있는 교회이구나~"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흡연자라도 교회에 올수 있

고 아니 꼭 와야 하고, 오면 신앙의 힘으로 변화되어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표현! 그 결과물이 바로 만나교회 흡연실이다.

4. 타 교회나 기관에서 진행시 참고사항

① 목회철학과 리더십

만나교회의 비전 2020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사명선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이다. 이를 통해 늘 생각해 왔던 목회 철학은 “우리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전도의 전략들이 난무하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면서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 중심적이고, 교인 중심적이고,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삶이 교인들을 섬기는데 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만나교회는 끊임없이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②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다음은 2009년도 문화선교부장을 맡은 한 장로님의 이야기이다. “올해 문화선교부장을 맡게 되면서 순종은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불편했다. 교회에서 왜!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왜! 저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지... 왜! 성도들이 사용하기도 부족한 여러 장소를 양보해야 하는지... 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부족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싫었다.

그러나 3개월간 현장에서 매일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회원들과 운영 내용을 깊이 관심을 두고 알아 가는 중에 깊이 알려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의 교육과 훈련이 기존 성도와 사명자들에게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강사진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필요 경비에 대한 회비는 분명 필요했고, 투자 또한 당연한 것이었고,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를 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 들어오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말로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시도와 참여는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더욱

더 초기에 세부적인 계획과 치밀한 진행이 필요하다.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 그리고 평신도와 비성도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③ 결론 -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파구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공간을 개방하고 효과적인 문화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감동 스토리텔링’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이와같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한 교회와 공동체에서 꼭 명심하고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창조성과 지속성이다. 문화의 영역은 창조성에 기반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문화적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일꾼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조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좋아 보인다고 따라하지 마라! 개 교회가 위치한 상황은 모두 다 같을 수 없다. 교회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지역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 어떤 교회나 공동체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문화사역을 시작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실패하는 이유는 몇몇 전문가에게 그 사역을 맡겨 놓은 채, 교회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나, 문화선교는 1-2년 안에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성급하게 결과를 보려하지 마라!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고 충분히 기다려라!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탁월한 문화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이를 꾸준히 발전키시고 지속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다양성과 전문성이다.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성이다. 그러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개 교회 목회자나 일부 영향력 있는 중직들의 편협한 문화예술적 식견과 편견이 사역의 성공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 안에 전문가 그룹을 충분히 활용하라! 현재 문화예술계를 이끌고 있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교회에서 그 분야의 모티브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다. 만일 교회 안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라! 전문성이 갖추어진 상태이어야 포용력과 응용력이 설득력 있게 발휘될 수 있다.

셋째는 평신도 동력화와 네트워크 사역이다. 문화는 그 특성상 ‘자발성’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동력화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대그룹보다는 소그룹으로 그 사역의 ‘매니아 층’을 단계적으로 형성해나가야 한다. 만나교회는 ‘파구스 스토리텔링’(대외적 만나교회 대

표 브랜드)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동 프로젝트' 핵심인력을 평신도로 동력화하고 브랜드 가치 창조를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분당지역 뿐 아니라 다문화/다세대/양성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전적으로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다.

만나교회에도 지금까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그것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 뒷정리에 대한 부담과 물품의 분실 및 망실 우려 등 문제가 발생되어 질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꼭 감수해서라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감동 스토리'는 반드시 이어가야만 한다. 이 명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개 교회 차원이 아니라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문화정책을 연구 검토하고 이를 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매뉴얼 제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창천교회(서호석 목사) - 서울 서대문구 소재

* 인터뷰어 : 최지선(장신대 신대원) / 인터뷰이 : 양재영 전도사(창천교회)

1. 문화쉼터의 시작은?

1993년도 신촌에 창천교회 건물을 짓고, 큰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KBS PD장로님께서 공연을 제안하였다. 그해 4월 "목요쉼터"란 이름으로 2년간 진행하다가 박양식목사님을 통해 전문기획팀이 구성되어 "광야기획사"가 시작되면서 "문화쉼터"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다.

2. 교회에서 진행되는 문화쉼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점이 있다면?

문화쉼터 자체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외부사역"이다. 교회에서 발표회는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외부를 위한 자리이다. 그래서 신촌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장점으로는 교회를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3. 문화쉼터를 진행하며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과거의 상황에선 공연장소가 부족하여 문화쉼터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요즘은 문화공연 장소가 많이 있어서 관객이 많지 못하다. 무료공연이라는 인식이 공연의 질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사명을 가지고 스텝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과거엔 문화 안에 있던 분들이 섬겨주셨는데, 요즘은 교회 청년들이 봉사차원에서 섬기고 있다.

4. 시스테마란 어떤 프로그램인가?

1970년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했던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했던 곳이 있었다. 창천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였는데 학생을 추천 받아, 불우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고, 선생님을 통해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다.

시스테마란?

1. 문화쉼터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 el sistema를 모델로 시작된 청소년 Mentoring 프로그램이다.
2. 시스테마는 한국 사회와 문화계의 차세대 주자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운동이다.
3. 시스테마는 예술교육의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문화쉼터가 나아갈 모습은?

신촌지역이 먹고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노래가 들려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신촌지역에 유흥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쉼터를 통해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의 뒷풀이 공간이 아닌, 앞풀이 마당으로 문화쉼터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문화쉼터가 오래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베푸는 것이기에 가능했다.

=> 문화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오래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확산을 추구하기 보다 기독교가 문화를 선도해가도록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 대전시 만년동 소재

* 인터뷰어 : 박용순(장신대 신대원) / 인터뷰이 : 오대희 목사(새로남교회)

□ 카페

1. 새로남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새로남카페(오정호 담임목사)는 새로남서점과 체육관과 더불어 이웃주민들과 대전 시민들을 섬기고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만년동에 세울 때 계획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전의 명소가 되어 불신자들도 많이 찾는 편안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로남교회는 예배를 위한 돔형태의 워십센터와 교육을 위한 비전센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카페는 비전센터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탁 트인 대로와 정부청사, 연구단지, 갑천 등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 눈에 들어 옵니다.

2. 카페의 운영과 수익금의 사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카페의 수익금은 전액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카페를 찾는 분들의 보람이기도 하며, 저희 교회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카페는 한명의 유급 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카페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새로남 카페의 절대원칙은 품격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격에 맞을 때 아름답습니다. 커피는 신선도와 맛을 고려하여 이테리 고급커피인 라바짜를 직수입하여 가장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과일 주스나 허브티와 같은 기타 음료들도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격은 최초에는 커피 한잔에 천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종에 종사는 주변 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대거 와서 카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일반 커피숍의 절반 가격에 해당됩니다.

새로남 카페에서는 일 년에 약 2억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고등학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장학금 지원, 인근 복지관 지원, 북한 동포지원, 장애인 시설지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영어캠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100% 사회환원하기 때문에 봉사자들도 마음이 기쁘고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이웃들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새로남 카페는 기쁨을 만드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3. 카페 운영의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카페의 운영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남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교회여서 그런지 자원봉사자들의 공급이 원활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카페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 일반인들에게 오픈될 정도면 아무래도 커피와 음료 등의 퀄리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카페에서 가장 잘 만드는 메뉴도 하나 추천해주시면 더 좋구요.)

카페의 생명은 맛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 분위기, 맛에서 최고급 품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고급 원두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들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커피 종류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홍시 주스나 인삼주스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먹기 힘들고 맛있는 음료를 선호합니다. 퀄리티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카페에는 음악을 여러 가지 장르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오는 날, 맑은 날, 손님이 많은 날, 적은 날, 오후, 밤 등 시간에 따라 틀수 있는 음악을 새로남 교회 음향실장의 도움으로 준비해 두어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메뉴가 나올 때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진동호출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음료를 받아 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시민들의 카페 이용 현황은?

작년 통계로는 연 인원 1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담임목사님과 제가 동행해서 카페에 올

라가면 저희들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그룹이 전체에 한 두 그룹도 안됩니다. 그것은 담임목사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최초에 교회에서 카페의 개설을 기획할때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교회의 예배공간과 교육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중에 가장 좋은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섬기겠다는 최초의 비전이 실현되도록 카페와 서점, 그리고 지하 체육관을 공간과 상관없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 곳은 지금 주민들이 교회라는 의식없이 편안하게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 서점

1. 서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새로남교회에는 워십센터 일층에 새로남서점이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신앙도서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서적의 경우에는 주문할 경우 구입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도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이웃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체육관

1. 체육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지하에 있는 체육관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격화한 농구장입니다. 지역 아이들이 신청해서 사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농구장에서는 교회 주체로 매 년마다 지역 고등학교 대항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우승과 준우승 팀에게는 학교에 장학금 지급, 팀에 장학금 지급, 개인에게 장학금 지급 그리고 심판으로 수고해주신 지역 체육선생님들에게 격려금 지급 등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 라디오 방송

1. 러브레터라는 라디오방송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러브레터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교회들이 자체 인터넷방송을 통해 찬양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 점점 반응이 없어지고 방송을 내리는 것이었다면 러브레터는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며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같은 방송을 통해 꾸준하고 점차 조회수가 증가 청취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방송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많은 교회가 탐방 및 자문을 구해왔으며 현재는 시즌3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모두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J 이지혜(청2), 작가 이진희(청2), 기술 장병훈(장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선곡에 대해서는 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벅스(음원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구입한 곡만을 사용하고 불법카피본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제교회

1. international church를 통해 타 문화권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문화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국제교회내에는 영어예배부, 중국어예배부, 일본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위한 한글공부반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한 한글공부와 문화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은 수련회 형태로 추석이나 설날 한국문화체험, 한국민속 문화체험테마 여행, 한국음식 만들기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 외국인 사역을 하는 SAM 선교회 대표가 국제교회 부장으로 섬기고 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2. 실제 외국인 참여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중국과 일본 사역도 원활히 이루어지는지요?

영어예배는 50명, 중국어예배는 70명선 많을 땐 100명이 넘기도 합니다. 일본어팀은 10명선입니다. 대전지역 대학으로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제교회중에 가장 활발한 모임은 중국어예배팀입니다. 일본인들은 가장 늦게 출발했고, 모임이 작은 편입니다.

3. 농아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로남교회 내에 새로남농아교회가 있습니다. 농아부를 전담하는 목사님과 약 30명의 농아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2부예배와 수요일, 저녁예배는 수화통역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자체 모임시간을 갖습니다. 장애우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문화전반

1. 이 밖에 새로남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평신도성장프로그램을 통한 기타, 드럼, 색소폰, 오카리나, 사진, 서예반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기 연주회와 발표회를 합니다. 절기때마다 교회내 구성된 찬양대나 혹은 외부초청 찬양, 대전시민초청 음악회 등의 음악회가 진행되고, 성탄절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스포츠클럽 모임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골프, 축구, 등산, 테니스, 수영, 마

라톤, 풋살, 족구, 볼링, 탁구) 매 월마다 정기모임을 하고, 매년 11월은 스포츠의 달로 행사후 저녁예배시간에 공식적인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대전지역내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매년 영어캠프가 진행됩니다. 미국 데이비스 한인교회 청년들이 방문하여 약 2주간 대전지역 가난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영어와 미국문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을 2년째 갖고 있습니다.

2. 문화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회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문화사역은 음악회가 주를 이룬다고 봅니다. 교회 옆에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어 이들을 초청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 내의 찬양대 중심의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발표회, 어린이 부서의 발표회 등이 활발한 편입니다.

교회 내에 평신도 성장프로그램이 일년에 8주씩 3차례 진행되는데, 여기에 드럼반, 기타반, 오카리나 반, 색소폰반, 사진반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문화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정기발표회 혹은 정기 연주회 등이 진행되어 성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독교인 미술가들과 함께 미술전시회를 가지기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악활동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교회내 성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새로남지라는 교회내 메거진이 매 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 성도들의 간증, 시나 수필 등의 내용들을 실어 성도들의 교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정도이며, 매달 발간되고, 발행부수는 6천부가량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활동은 주일학교 전체담당하는 슈퍼바이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배와 더불어 문화활동을 갖거나 5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극, 공연 등)

3. 교회 예산의 몇 퍼센트가 문화사역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문화사역이라고 정해놓고 배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음악회관련은 예배부안에 있을 것이며, 문서 제작 발간은 문서 선교쪽에 포함되어 있어 굳이 몇 퍼센트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는 대전지역 교회들중에는 교회예산이 많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새로남교회의 문화사역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문화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의 대사회적인 긍정적 이미지 연출, 성도들의 문화적인 욕구 충족과 교제 등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5. 문화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교회는 시설이나 교회구성원들의 문화수준이나 제정상태 등 모든 부분에서 타교회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6. 문화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있어, 혹은 교회에 있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으며, 교회의 건강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2008년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90점 만점에 40.95로 C-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한국교회에 대해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남 교회의 문화사역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대전에 있는 대형교회 중 하나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페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케익을 주는 사역이나, 결식아동돕기, 구청, 시청에 기부금 전달, 장애인관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기름유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는 봉사자들을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오정호담임목사님은 사역을 한번 하면 꾸준히 계속 하는 특징이 있어 모든 사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최소 10년이상 장기화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섬길때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섬기기만 한다면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새로남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교회로 인식하길 원하시나요?

우리교회가 표방하는 표어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시점부터 담장을 없앴고, 가장 좋은 자리에 주민들을 위해 카페를 만들었으며, 공간의 부족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농구장을 열었습니다. 주차장은 처음부터 개방해 왔으나 주변 식당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차장 개방은 현재 중단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늘 우리교회가 지역에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재적으로도 대전지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교회의 대안을 소개할 때 카페의 수익금을 환원하는 우리교회를 새로운 모델로 소개한바도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문화 사역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의 문화사역은 열약합니다. 공연다운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팀도 그리 많지 않고 설령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문화 - 교회사례

저는 교회들이 기독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기독교 뮤지컬 같은 것을 준비한 팀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춤추는 나무라는 뮤지컬을 2부로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건강한 기독교 문화가 계속해서 많아지도록 장을 마련하고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음악회, 전시회, 공연 등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 2008년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에서
기윤실 조제호팀장(교회의 사회적책임 사례발표)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교회(조영진 목사) - 서울 성북구 소재

* 2008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기윤실 조제호 팀장)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 전문 사서를 두고, 단순 도서관 기능을 넘어 지역아동교육센터로 운영.



가베학교
가베학교는 3년전
되고 있는 프로
(가베) 총의의의
1946년 7월 시작된 본교회는 돈암동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의 담임목사인 조영진 목사가 부임한 후 2006년부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의지로 본교회로 교회이름을 변경하였다.
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라는 사명선언 아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중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어 있으며 800여점 영상자료도 소장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도서관의 필요성

2. 다음세대를 위한 본교회

1946년 7월 시작된 본교회는 돈암동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지금의 담임목사인 조영진 목사가 부임한 후 2006년부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자하는 의지로 본교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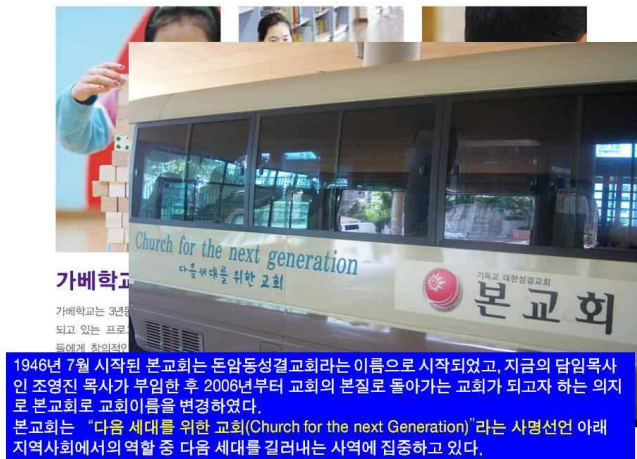
교회이름을 변경하였다. 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라는 사명선언 아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중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 꿈터지역아동센터 - 청소년학습센터

선생님사랑캠페인 : 공교육의 강화의 핵심은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믿고, '선생님은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기치아래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3. 본교회의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

- 도서보급, 책과 가까워지도록 노력 : 프로그램 운영, 교회 곳곳 독서가능하도록, 자체 독서박람회(북페어) 운영
- 북페어 : 100권 클럽, 스토리텔링, 독서퀴즈 및 감상화대회, 메이킹 북 전시, 캐릭터 전시 및 사진촬영, 도서바자회, 작가와의 만남, 책 읽어주는 연극 등
-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은 본교회가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설립한 문화공간입니다. 먼저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은 가정이 치유되는 공간입니다.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모두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 또한 꿈을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양질의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는 공간이며, 무엇보다 아이들은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책 놀이를 즐기며 수학, 과학, 철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학습의 공간입니다.
- 이와함께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을 보면서 삶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재 곰세마리어린이도서관에는 한국도서 약 3,000권과 영문도서 2,000권 등 총 5,000여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CD, DVD 등 기타자료 50여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있으며 800여점 영상자료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꿈 심어주는 '보물창고' 서울 삼선동 본교회 '곰 세마리 도서관'

[국민일보 2008.05.04]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도서관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못자리판'이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 삼선동 본교회(조영진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곰 세 마리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아동교육 센터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100㎡의 도서관엔 '꽃가마 탄 호랑이' '줄무늬가 생겼어요' '길 잃은 고양이(A stray cat)' '너는 행복하니(Are you happy?)'와 같은 한글도서와(5200권) 영어도서(2100권)가 빼곡히 꽂혀 있다. 바닥엔 소형 러그를 깔아놓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하연(11)양은 "도서관이 집에서 가까워 '그리스 로마신화'와 '와이' 시리즈를 주로 본다"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와서 책을 볼 때도 다"고 말했다. 임정숙(37)씨는 "주일 예배 때 책도 읽고 또래와 놀 수 있도록 아이를 도서관에 맡긴다"면서 "아이들을 위해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선동에 거주하는 박화정(42·여)씨는 김도헌(8), 도훈(6) 형제를 도서회원으로 등록시키고 홍보도우미를 자처할 정도의 '마니아'다. 박씨는 "집 근처 아리랑도서관과 성북도서관을 가봤는데 여기만큼 못하다"면서 "영어책과 신간도서가 많아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소개했다. 비신자인 박씨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친절한 선생님 때문에 늘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2006년 9월 개관했으며, 지금까지 589명의 어린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놓는데 하루 평균 40권, 월 평균 1050권을 빌려간다. 자원봉사자만 해도 11명이 달라 붙는다. 매달 20권의 신간도서를 들여놓으며, 영어도서는 조영진 목사가 미국에 다녀올 때마다 수백 권씩 구입해 온다.

도서관의 또다른 장점은 책 만들기와 논술아트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프로그램은 대부분 당일 마감된다. 지역 어머니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매주 월요일에는 역사연구반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영어 동화 읽어주기가 열린다. 영어 동화 읽어주는 '엘리스의 성경이야기(Alice Bible land)'와 같은 영어 동화를 직접 읽어주고 우리말로 설명한다. 수요일에는 책만들기를 하거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금요일에는 고흐전이나 부르델 거장전 등을 보고 와서 그림으로 소감을 표현하는 논술아트를 진행한다.

도서관 황순영(29) 간사는 "학교추천 필독서를 비롯해 다수의 영어책을 소장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교회가 도서관을 통해 조용한 선교를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래동교회(유영설 목사) -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반딧불어린이도서관 :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커뮤니티 문화교실로도 운영.



1. 소개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2004년 1월 말 개관하였습니다. 20여 평의 아담한 단독 건물로서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자연 원목으로 실내를 단장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늑하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합니다.

개관 당시 신간 3,500여권을 일괄 구입하였고, 그 후 회원들의 회비와 도서헌금, 영등포구 문고 보조금, 국무총리실 등 각 사회 기관의 기증을 받아 2006년 8월 현재 약6,2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영등포구 사립 문고 1호로 설립되었고 2005년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인증 센터로 지정되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봉사 수혜처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와 산학 협동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반딧불 에서는 분기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회원들의 실질적 문화 욕구에 더욱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교회가 하나 되는 열린 문화 공간. 반딧불에 오시면 세상에서 기대하기 힘든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서관 이용에 대한 약속들

- ①도서 대여는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 빌릴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비는 기존 평생 회원제로 2만원 입니다.
- ②한 번에 7권 대출이 가능하고 대여기간은 6박 7일입니다. 대여 기간 안에 전화 주시면 반납기 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 ③연체료는 권 당 하루에 100원씩 받습니다.
- ④빌려 가고 싶으신 책에 대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 ⑤구입 희망 도서 란에 신청하시면 선별하여 구입,비치합니다.
- ⑥대여하신 책을 분실 혹은 파손되면 책이나 책 값으로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 ⑦책에 붙은 바코дра벨과 청구기호 라벨은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 ⑧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⑨읽은 책과 반납하는 책은 제자리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 ⑩책을 대여, 반납 할 때는 담당자가 전산 처리를 잘 하였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반딧불 문화교실

- ①품앗이 육아 : 유아들의 이용이 활발한 우리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난 2004년 10월 발족하여 지금까지 20여명의 수료자를 내고 현재 3기 품앗이가 진행중입니다. 회원 어머니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며, 유아들의 또래 집단 형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4,5세 미 취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 2시간씩 진행됩니다.
- ②동화 읽는 어른 모임 : 동화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서 동화와 삶을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매주 화요일 1시간씩 책을 읽어주었고 2006년부터는 빛 그림 공연 모임을 발족하여 새롭게 매 달 1번씩 빛 그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 ③문화 체험 : 흙 피리 만들기, 도자기체험, 고구마 캐기, 자연 생태 박물관, 천연염색 체험장등 각박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찾아 회원들에게 제시함으로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 ④반딧불 자원봉사 인증센터 :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의 의미가 높아지지만, 도서관에서의 전문봉사는 소외시 되는 경향을 인식하여 사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많은 봉사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기별로 다양한 문화 교실들이 운영되어 회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독서교실, 노래교실, 전래놀이, 구연동화, 바이올린 교실, 역사교실, 점토교실, 비즈교실, 종이접기교실, 책 만들기 교실, 미술교실 등등



수유리성결교회(방인근 목사) - 서울 강북구 소재

* 2008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기윤실 조제호 팀장)



수성타워 :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의 나누는 도심속의 영성의 샘 : 공간개방

건축 설계에서부터 교회 전 공간(본당 포함)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 답지 않게(?) 건축한 교회

2005년 당시 음향시공 업체의 글

2005년도에 삼아 무역으로 부터 시공 용역을 맡아 공사 했던 수유리 성결 교회

수유역 바로 옆에 15층 빌딩에 세워진 이 교회는 지역 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 한다. 공사 당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 되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로 '도심속 영성의 샘'이라는 타이틀 아래 메마른 도시에 영적 휴식처로서의 소명 의식을 가진 참 보기 드문 교회다.

수유리 성결 교회는 음향과 영상 모두에 걸쳐 철저 하게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다. 또한 수유리 성결 교회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는 모든 시스템을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교회 장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역 사회에 오픈 함으로써 말 그대로 도심속 영성의 샘 이라는 교회 이념을 철저 하게 녹아 내고 있다.

이 교회를 공사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그래서 교회 음향이란 무언인가를 깨닫게 했던 공사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captainsound>

1. 공간개방 이야기

교회 공간 개방해야 하는가? 최근 인권위의 교회 선거소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문턱을 낮추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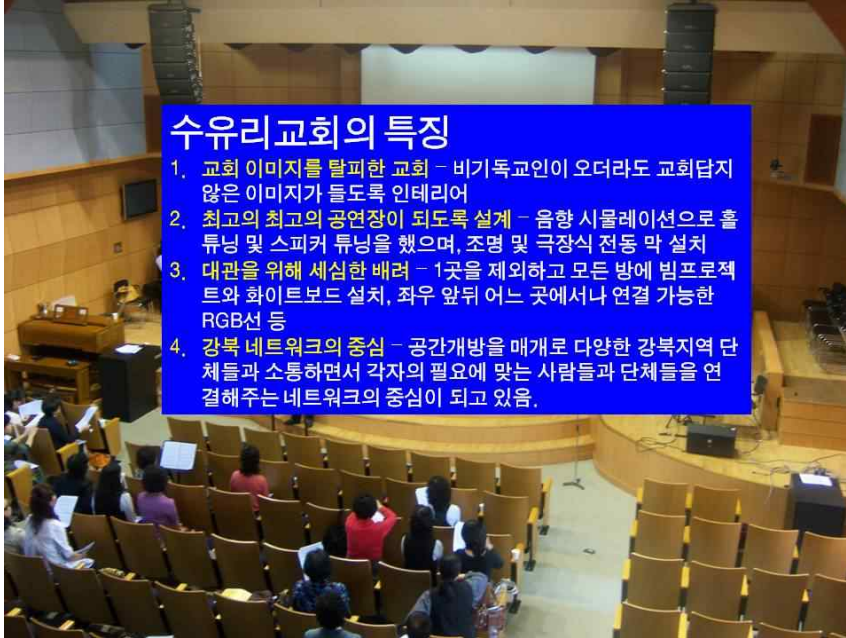
교회의 독특성 : 위치 좋은 곳에 있고, 항상 장소가 있고, 특별히 큰 장소가 있는...

2.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유리성결교회가 특별한 것은 건축 설계에서부터 꼼꼼한 배려를 통해 공간나눔을 생각해 왔다는 것.

주보 : 수유리교회는 열린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3. 공간개방 철학, 최고의 음향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 - 제주시 아라동 소재

* 2008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기윤실 조재호 팀장)

성안미술관 : 교회 미술관 중 최초로 1종 미술관으로 등록.

1. 미술관이 있는 교회

2. 제주성안교회 소개(제주 최초의 교회)

1908년 2월 1일 이기풍 목사가 세명의 신자들과 함께 향교골에서 기도회 시작

3. 체력단련실이 미술관이 되다.

- 21세기는 문화로 먹고 사는 시대이다.
- 새 예배당의 넓은 지하를 문화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기풍 기념홀에서는 매달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성안미술관에는 전시된 작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고, 푸른 감람나무 북카페에서는 책을 읽으며 커피와 차를 즐기는 사람들...
- 교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장으로 사용한다. 사진에 취미 있는 분들의 사진전을 열고, 교우들이 소장하고 있는 가보들을 모아 전시하는 일, 지역 사회 유치원이나 단체의 작품전도 대관을 해 주어 교회와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자.



- 교회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바 그동안 제주성안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일을 해 왔으나 고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한 차원 높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미술문화를 도민들에게 널리 고취시키는 일이 일견 교회의 사명과 먼 듯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고 내재된 정신세계의 아름다운 구상을 표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오덕철 미술관 운영위원장-제주성안교회 장로, 제주대 교수)

4. 제주성안미술관

성안미술관(관장 권용수)이 최근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회장 노준의) 신규 회원관으로 가입했다. 제주시 아리1동에 위치한 성안미술관은 2007년 12월에 설립됐으며 한국화, 서양화, 서예가 전문 분야로 무료임대도 한다. 이로써 협회 회원관은 모두 60개로 늘어났다.

문화 - 교회사례

1년에 정기전시 2회, 기획전 2회, 특별전 1회 등 연 5회 이상의 질 좋은 전시를 개최하므로 성도들은 물론 아직 주님을 영접치 못한 분들도 언제든지 와서 친교는 물론 선교의 장으로 이곳 미술관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각, 서각 등 현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명작가분들의 작품과 옛선조들의 서예, 그림 및 목기, 유물 등 250여점을 시작으로 1종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



동승교회(서정오 목사) - 서울 종로구 소재

* 2008년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기윤실 조제호 팀장)

엘림홀 : 뮤지컬 및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전문 공연장.

나루 소개 영상자문용 문화미아기 기독교 문화행사 찾아오시는길 **엘림** 예쁘

엘림 소개 신실안내 공연일정/소개 연락처 후원문의

리 천정이 높고 넓은 객석 및 갖추고 있다. 공연장으로 선호도가 높으며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부인 기독교화된, 비단노리끼 등 기독교 관련 단체 및 건물들이 근접해 있어 교제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건물 특성상 세미나, 강의, 발표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바로 옆 동승교회 1층에는 쾌적한 공간과 고급스런 맛으로 이름난 커피숍 "에프"가 있어서 찾는 이들이 공연 전후 담소를 나눌수 있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가능한 행사 요청으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정기 연주 기독교 문화행사, 교육회 그리고 제등적인 작품의 상설 전시, 심포지엄이나 뮤지컬 이용률을 대상으로 할 한양궁, 아동극, 장애인주인들을 위한 문화, 발표 공간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문화 공간이다.

문화 공간 "엘림"은 이제 서서히 대화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추후 미비점을 보완 하여 명실공히 대박으로 최고의 공연장으로, 그리고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의미가 있다.

문화 공간 "엘림" 전경

2007. 여름 공연인 "해안 자화상의 공연장면"

2007. 07 공연인 "오즈의 마법사" 공연장면

1. 이게 어디서 공연되었을까요?

2007년 6월 하얀 자화상의 공연장면
장화신은 고양이
2008년 7월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 / 극단 성좌 제 127회 정기 공연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를 돕기 위한 '소망의 바다'
연극<빈방 있습니까?>
극단 말죽거리의 <화이트 프로포즈>

2007년 7월 오즈의 마법사
기독교영화제
부활절 뮤지컬 <PETER>
문화행동 아트리어의 뮤지컬 <버스>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축제

2. 엘림소개

대학로에만도 무대 공연장이 수백 곳이다. 그러나 자선공연을 하거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공연을 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동승교회에는 200석 규모의 잘 꾸며진 공연장 '엘림'이 있다. 이곳에는 신장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 부스러기 사랑나눔회를 돕기 위한 '소망의 바다' 공연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자선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부활절 뮤지컬 <PETER>, 연극<빈방 있습니까?>등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다.

네트워크로 문화의 지경을 넓히다

* 빛과소금 2008년 4월 기사

"동승교회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옛 성전은 21세기 버전으로 리모델링 했다. 바로, 문화공간 '엘림'이 그것. 소극장이 밀집한 대학로 환경을 고려하여 3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꾸며진 엘림은 뮤지컬과 연극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을 펼치는데 절대, 손색이 없다. 오픈한 지 1년 남짓 되지만, 대관율 100%의 타석률이 엘림의 가치를 말해 주지 않는다. 엘림에서는 동승교회의 창작뮤지컬 팀은 물론 전문 극단들의 공연이 매월 향연을 이루며 골라보는 즐거움을 톡톡히 선사한다. 지난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문화행동 아트리오의 뮤지컬 <버스>, 가장 높은 곳에 살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의 코끝 찡한 이야기인 극단 말죽거리의 <화이트 프로포즈>, 서울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축제까지 소위 '뺏다' 하는 공연들 중 다수가 모두 엘림에서 그 막을 올렸다. 무엇보다 진가가 빛을 발하는 것은 기독교영화제. 해마다 동승교회가 엘림의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기독교영화제는 엘림에서 벌어지는 신나는 카니발이다. 그러나 사실, 축제는 막이 내린 후부터. 기독교영화제에 참가했다가 회심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지난달에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이곳을 방문했다가 동승교회의 건축에 한 번 마음을 뺏기고, 풍성한 문화 잔치에 두 번 마음을 뺏기더니 "이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는 유쾌한 고백과 함께 덜컥, 교회에 등록하여 크리스천이 된 것. 문화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동승교회는 엘림을 통해 상생의 조화를 이뤄나간다."

3. 의의

1952년 창립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을 문화 1번지 대학로와 동고동락하며 문화사역의 주춧돌을 마련한 동승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콘셉트로 문화사역 시즌 2의 시작을 알렸다. 전방에서 그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성전이다."

"대부분의 교회 건축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솟아 있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틀을 한 번 밟으려면 정말, 큰 맘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 동승교회는 교회 건축의 제 1원칙을 "문턱이 낮은 교회"로 삼고, 교회 안과 밖의 경계선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교회로 들어오는 문을 없애버리고 밖으로 난 길을 교회 안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 길을 걷다가 자연스레 교회 뜰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은밀한(?) 작전인 것."

4. 동승교회는 문화사역을 위해

①창작 뮤지컬 "교회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교회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은 깜짝 놀라고, 그 다음은 교회뮤지컬이라는 편견 때문에 작품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우리 청년공동체는 다르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의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최종률, 박재련 장르님의 코치와 <명성황후> 와 <콘보이쇼>의 음악감독으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구소영자매가 총감독을 맡았다.

또한 대학로 연극계를 이끌고 이끌고 있는 연출가 차지성, 그리고 실제 뮤지컬 무대에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배우들이 모였다. 기쁨의 50일 부활절 문화 프로젝트로 문화선교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뮤지컬<PETER>는 작년의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에 이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였다.

②기독교 영화제

부산에는 <부산영화제>가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곧 <부산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서울 기독교 영화제>가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게 되는 서울 기독교 영화제가 올 가을 동승교회에서 열린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소재들로 제작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대학로에서 최고 수준의 커피맛과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하는 커피숍 '에프'는 동승교회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시내특급호텔에서 맛볼 수 있는 동일한 커피맛과 넓은 공간을 활용한 테이블 배치는 이곳이교회 카페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교회는 이렇듯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에프'는 히브리어로 '나무'를 의미한다. 각박한 우리 삶의 그늘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나무 말이다.



•1952년 창립후, 반세기를 훌쩍 넘긴 시간을 문화 1번지 대학로와 동고동락하며 문화사역의 주춧돌을 마련한 동승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라는 콘셉트로 시도한 것이 엘림의 시작이다.
•대학로에만도 무대 공연장이 수백곳인데, 자선공연을 하거나 영적인 긴급함을 채워주는 공연을 열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데, 동승교회의 엘림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교회,
마을경제를
돌아보다

- ☑ 생각나눔 :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
- ☑ 실천나눔 : 사역적 기업, 커피밀
- ☑ 교회사례 인터뷰 : 광염교회/ 주민교회/ 열매나눔재단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김범석 |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Think Glob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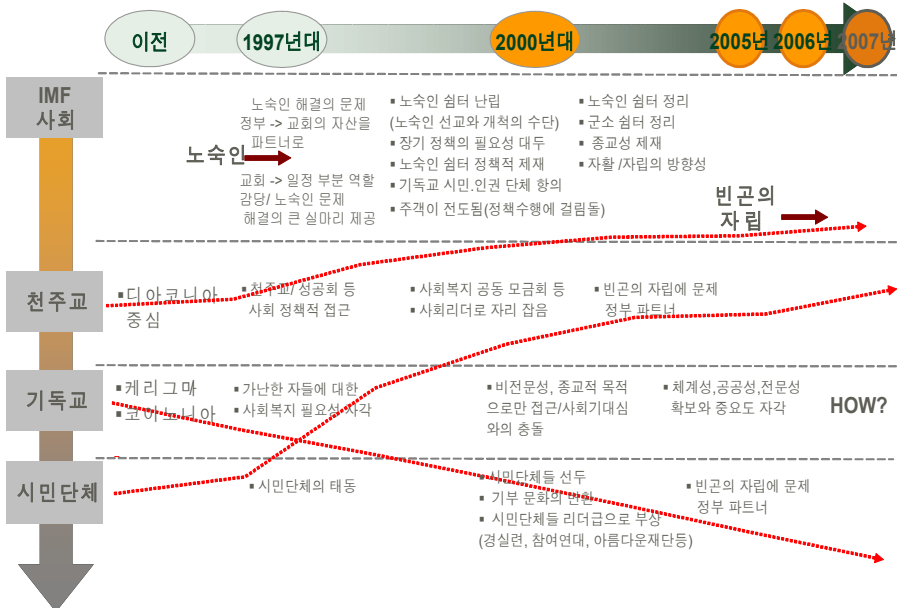
I

개요

1

배경 : 한국 사회복지 현황과 기독교 사회봉사 위치

한국 사회복지 현황과 종교 사회복지 참여 부분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교회는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성장에 있어 정체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기존의 성장 일변의 교육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이데올로기(growth ideology)'와 교회주의(churchism)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시각을 넓혀 가기 시작한다.

즉 복음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어 사회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1997년 IMF의 외환위기가 발생 하였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나 기타 민간의 역할을 기대 하였으나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단체나 종교는 어떤 곳도 없었다.

어려운 시기인 이때 교회가 사회적 참여와 사회 책임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며 사회복지 안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노숙인 문제를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어떻게 보면 예상 보다 더 빠르게 노숙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밥을 퍼주는 1차적 사회복지의 체험이었고 그 체험은 교회의 성장의 정체와 맞물려 새로운 대안과 같은 느껴졌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교회성장과 맞물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숙인들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노숙인 관련한 쉼터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는데, 노숙인이 줄어들다보니 지원 기관이 노숙인의 이름을 빌려서 보조금을 타는 부작용까지 생기게 되었다.

사실 외환위기가 정리된 시점인 1999년 정도에 서울의 거리 노숙인 수는 약 980명 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당시 매스컴을 통해 접한 노숙인의 숫자는 많게는 수 만명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거리 노숙인은 많이 잡아야 1200명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다.

외환 위기를 벗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거리 노숙인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시민단체나 교회의 노숙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 들은 당시 사회 참여로 대거 들어온 각 개별 쉼터 운영 기관인 교회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는 종교적 탄압이다 라는 말들까지 해 가며 가진 것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하였다.

많은 마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노숙인 사업이 구조 조정이 되었고 그 결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부는 교회의 사회복지 운동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지 않기에 이르게 된다. 교회가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잃어간 것이다.

당시 가톨릭은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립을 주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의 사회복지 파트너로서의 가톨릭계의 영향력이 커졌다. 사회책임에 강한 종교로, 사회정의의 외치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친구는 가톨릭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혔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기복신앙, 다른 종교 무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진 기독교는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질적 양적 감소의 아픔을 겪게 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1차적인 사회복지를 중요시했던 시대였다. 의식주에 관련된 복지에 전력 투구를 했던 것이다. 기독교는 그 사회복지 대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를 못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은 2차적인 사회복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구호와 구제를 넘어선 자립과 자활의 시대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2차적인 사회복지에 눈을 떠야 다시금 잃어버린 기독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독교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기업 전략 수립 필요성

1. 전략 수립 배경

1)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① 양극화 심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개방과 경쟁의 격화로 소수의 상위집단과 다수의 하위집단으로 산업과 계층이 양극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한국의 지난 시기 상대 빈곤율 변화>

(%)

1982년	1992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11.0	7.7	외한위기	12.8	10.5	14.2	14.4	14.3	14.0

< 상대 빈곤율* 비교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14.6	17.1	15.3	11.4	9.8	5.3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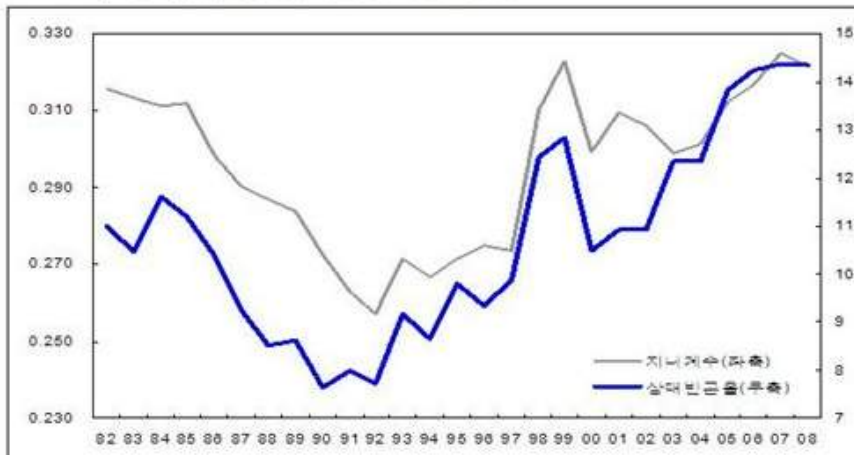
OECD 30개국 중 8위

* 2인 이상 전체 가구

* 통계청

< 소득 불평등도 추이 >

[그림 1]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한국개발연구원(KDI)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05)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나타남

각 연도 '상대빈곤율'은 1982년 11.0%에서 10년 뒤인 1992년엔 7.7%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 또는 정체 현상을 반복해 지난해엔 14.3%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는 1982년 0.316에서 1992년 0.25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한 끝에 지난해엔 0.32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지체될 경우 우리 사회에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고착될 것이 우려된다.

소득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적 상향 이동성(Social upward mobility)을 제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 빈곤의 악순환 초래

② **민관기업 및 NGO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중**
-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1조원에 달하는 기업 사회공헌기금을 이제는 개별 지원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을 검토중

* 지금 까지 기업의 사회공헌은 일방적인 자금 지원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기업 스스로 CSR과 SRI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을 수행하려 함

* ex) S.K 텔레콤의 사회적 기업 '행복 도시락 사업' 이나 S.K 그룹의 사회적 기업 자금 500억 집행, 포스코 09년 100억 규모의 사회적 기업 설립자금 지원으로 직접 사업 구상 중

- 시민운동 및 복지사업, 기업활동 등의 전통적인 영역의 경계가 없어져 가며 나눔의 이해가 확대 되어 나감. (1차적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2차적 사회복지 접근)

- 중앙 정부의 변화 - 관 주도의 빈곤층에 대한 단순·일방적 지원 사업에서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둠

2) 기독교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정비 필요

① 현재 진행 중인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독교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 및 역할,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 등 고려

- 지난 10년 잃어 버린 기독교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복지형태의 객관적 평가 및 향후 진행될 10년의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공유등 기능강화 필요

②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독교 사회 복지의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으로 지속적인 경영 기반 마련이 필수적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 + 도약의 발판 마련
= 잃어버린 기독교 사회적 책임 획득**

2. 잃어버린 사회적 책임으로서 열매나눔 재단의 새로운 나눔

(3가지 사업 :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크레딧, 교육 사업, 새터민지원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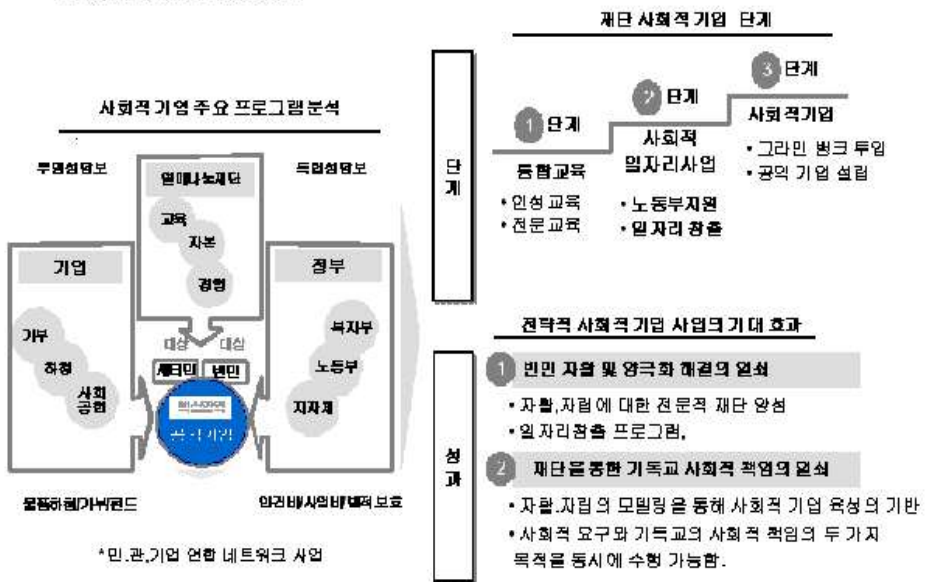
1)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사회적 기업 추진 경위 -

① 빈곤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3개(메자니 아이팩, 메자닌 에코원, 고마운 손)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
- 현재 취약계층 100여명 일자리 창출 및 10여개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확보
- 민간·기업·정부의 협력모델로의 기업 모델 제시

■ 사회적 기업 핵심 개요



- ② 기존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민간의 직접 투자 외 현물투자 등 간접투자방식을 통한 민간 자원의 투자 범위 확장으로 새로운 사회공헌 모형 제시
 - 직·간접 투자 기관이 협력 및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목적 달성 명분 확보

예) 주) 고마운 손



2)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씨앗은행'

- ① 현재 124개 희망 창업 가게 '씨앗터' 및 약 4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수행
-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2천만원까지 연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24개 창업 가게 오픈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까지 약 50개 가게 추가 창업 진행. (김밥천국으로부터 베이커리 사업등 진행함)

예) 김밥천국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사업

12명 × 500만원 대출 = 총 6000만원 빈곤계층들에게 대출 후 김밥천국 사업 진행(높은뜻 송의교회 인근에 사업장을 만들어 주었으며 매주 주일 교회 봉사자 식당으로 팔아 주기 선교를 진행함)
총 3년 동안 6천 만원 원금 및 이자 상환 후 현재 총 약 2억 4천만원을 벌어들여
12명중 2명이 새로운 밥집으로 재 창업 하여 나감.



- 세계 그라민 은행 총재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 방문 -

3) 교육연구

① 재단 사업의 연구조사 목적 및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투자 등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가치와 비전제시

- 연구사업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09년 4명의 연구위원 위촉

* 연구위원 : 김재수(인디애나 퍼듀대학 경제학), 이재원(카이스트 테크노 경영 대학원), 김현철(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김부열(콜롬비아대 개발학 박사과정)

② 세미나 학회 진행을 통해 사회 저변에 새로운 나눔의 확대 시도

2009년 사회정책 학회와 공동 주최로 학술 대회 진행 예정

4) 새터민 자립 지원 사업

① 남한 사회에서 새터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인권교육, 자립교육 수행

-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새터민들의 일자리 제공

* 현재 사회적기업 메자닌 아이팩 및 메자닌 에코원의 취약계층의 70%가 새터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재단운영 전략 목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적 책임 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 기독교 신뢰회복**

(질적목표)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모델 개발 및 확산으로 우리사회 빈곤층 자립정책의 변화 기전 마련. 이로 인한 기독교 사회적 책임의 역할 확보, 양극화 해결의 열쇠 선점

- (양적목표) 1>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2> 사업 영역에 대한 이론 체계 구성
3> 관련 재단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영역 역량 강화

II 2차적 복지의 사회적 기업 분석

1 2차적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의 모형

1. 사회적 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의 정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를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주요 동기가 사회적 목적¹⁾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를 위해 그 이윤과 자산을 재투자 되는 기업을 말하고 있다.

1)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

일반적인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갈라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사회적 목적이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수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법에 정한 수익의 배분 구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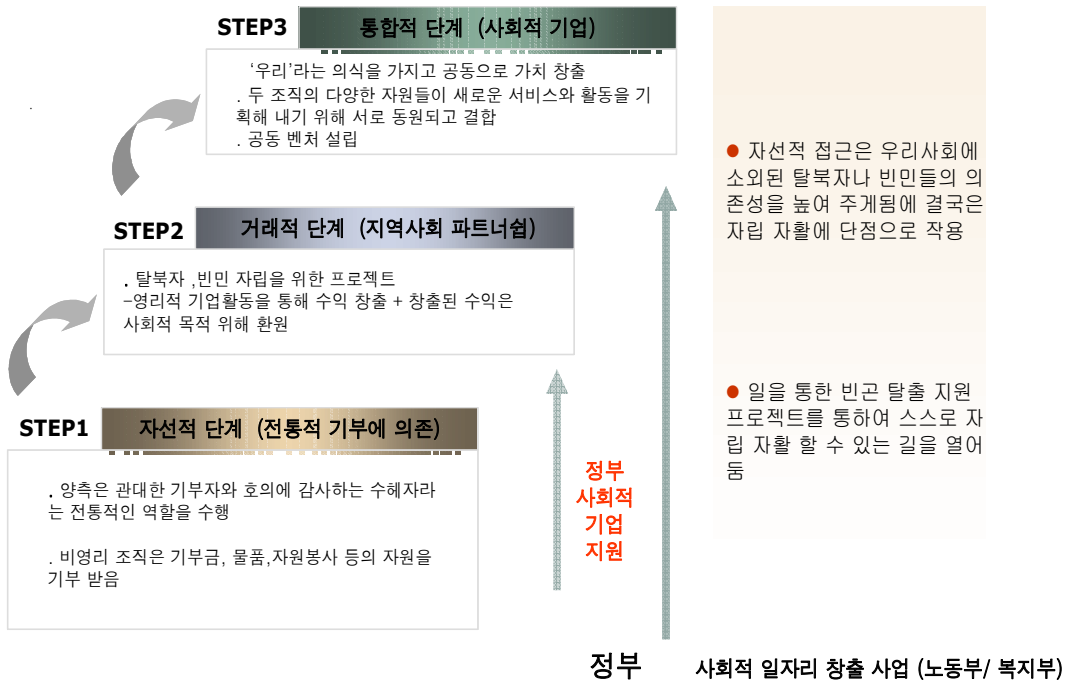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기업의 목적	주주의 이윤 추구, 극대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기업의 주체	주주 및 소유자	사업내용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다양한 집단
기업조직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모든 기업형태,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기업이윤배분	제약 없음	사회적 기업 법령등에 의해 제약적

결국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단체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기업의 목표/ '이윤창출' + '사회적 의무 달성'
 정상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 회복

2) 단계별 유형을 통해 바라본 사회적 기업의 위치

▣ 영리 - 비영리 - 정부간 협력 단계(재단 위치적 측면)



- 전통적 기부에 의존한 단계를 자선적 단계로 이야기 할 때 이 단계의 전통적 비영리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혼합한 가치 혼합 경제를 추구 함. 다만 이 단계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 환원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
- 자선적 단계와 통합적 단계의 중간 역할이 거대적 단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음. 즉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인 사회적 환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 이를 사회공헌 기업이라 분류함.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가 세계 적으로 확산 발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새로운 나눔의 유형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음.

특히 외환 위기를 벗어 나는 시점인 2000년대 사회 안정망 형성의 모습으로 형성된 자활사업의 보완으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²⁾은 출발부터 유럽의 사회서비스 중심에 맞추어져 있는 형태.

1) 사회적 환경 분석

① 고용여건 악화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신규 고용 창출 둔화 및 고용의 질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고용여건 악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근로자간 격차가 심화되고 불안전 취업계층 급증
 - * 임시·일용직 근로자수 : 6,122천명('97) → 7,079천명('08.9월)
 - 최근 고물가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취업난도 가중
 - *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05년 이후 30만명을 하회하다가 최근에는 15만명 내외에 그침
-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잠재력 높음
 - 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요구 확산
 - * '01~'05년 기간 중 늘어난 연평균 32만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분야가 14.6만명으로 45.4% 차지

2) 사회적 기업은 크게 유럽식 사회적 기업과 미국식 사회적 기업 두 유형으로 분류 하여 말할 있다. 유럽식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기준 보다는 사회적 기준(①지역사회 기여도②시민그룹의 주도적 설립 역할③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은 의사결정④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적 성격 ⑤제한적 이윤배분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함)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식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단 두가지 측면을 강조 한다. 즉 ① 비영리 기관의 수익 창출 목적 ②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 등 단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여 나간다. 즉 사회적 측면 보다는 경제 자립적 측면으로 고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② 제3섹터의 규모 및 역량에 관심

-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의 기반인 제3섹터의 규모나 제3섹터간 거래 비중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 시민사회조직의 노동력 비중은 비교대상 33개국 중 한국이 2.4%로 21위(평균 4.4%) → OECD국가로 한정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음(Salamon et al. '04)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협동조합이나 복지기관은
 - 관 주도로 발전이 지체되거나 국가 의존으로 국가의 복지전달체계에 머물러 민간조직 특유의 자발성과 혁신성이 약함
 - 선진 외국은 복지의 “민영화”나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초기수준
 - * 영국은 복지민영화, 미국은 복지재정지출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크게 발달

③ 민간의 사회적기업 투자 및 지원 기반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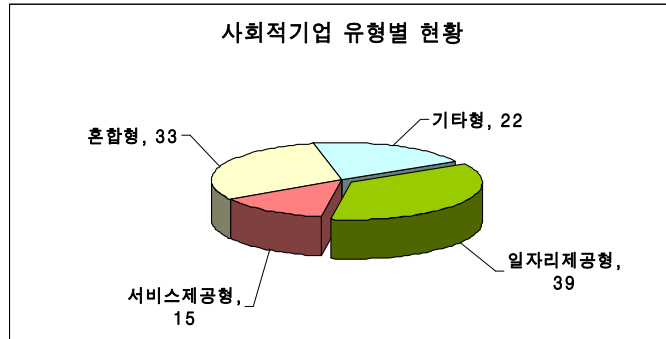
- 민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이 취약함
 -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자본시장과 비영리 금융전문기관 미미
 - *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자금시장('08) : 휴먼예금 20억원, 노동부 50억원
 - * 선진국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대부기관 역할 수행
 - 자금동원력이 큰 대형NGO, 복지재단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충이긴요하나, 아직은 관심이 부족
- 민간 대기업의 사회공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
 - 현금 지원 이외에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 필요

2) 국내 사회적 기업 현황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부 사회적 기업은 '09년 3월 현재 218개의 기업이 있다.

- * 업종별로 도시락·식품제조(26%), 돌봄서비스(21.3%), 재활용(13%)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함.
- * 기업형태로는 사회적일자리형(53.7%), 장애인 사업장(18.6%) 등 단순제조업 중심의 장애인 작업장 또는 단기 인력훈련·돌봄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주류를 이룸

『국내 사회적기업 현황』



현황

- ①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은 총 109개로서, 설립 모체를 살펴보면 3가지로 설명되는데, 즉
- ② 복지부 국기법에 의한 자활사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으로 이루어진 재할 작업장으로 출발에 지원을 두고 있음,
- ③ 109개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의 공통 특징이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 준비된 기업형태가 아닌 개별 단체가 주도하여 만든 점
두번째,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거나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이루어져 시장 경쟁력에 취약함을 볼 수 있다.

3) 국내 사회적 기업의 특징

- ① 국내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국가가 깊숙하게 개입하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국내 사회적 기업은 기존 복지의 한 부분인 자활 사업의 한 유형으로 발전되어 옴
 - 국내 사회적 기업의 생존의 문제인 인건비 항목의 의존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의 지원이 빠지게 되면 90%가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현실.
- ②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변화
 -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이 1차적 사회공헌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기업의 사회공헌은 책임적 존재로서의 CSR의 접근이 시작됨.

4) 국내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자활공동체의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장경쟁력 확보 어려움

- ①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사회적 기업 자체 자립이 어려움
 - 사회적기업 대부분 자활공동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3)

-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을 갖추고 정부지원 이후 자립 확률 낮음

② 사회적기업의 경영상 문제 및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의 질적 차이 발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집중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 임

5)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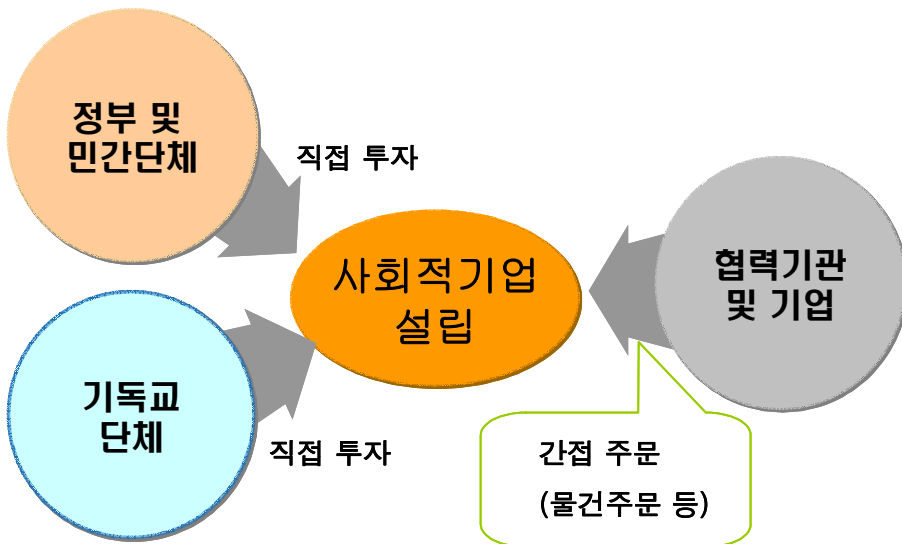
① 자립 가능한 기업모델 개발

- 민간기업·시민단체(교회) 등 협력체계를 갖춘 기업모델 개발
 - * 공동투자·공동운영을 통해 사회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연계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시장경제체계에서의 자립을 유도함

② 민간 투자를 통해 사회공헌기업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모형 제시 및 확산을 통한 자립 유도

6) 새로운 모델



3)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월 78.8만원, 전문인력의 경우월 120만원 지원(지원기간 최대 2년)/ 기타 법인세 50% 감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1. 2차적 사회복지 유형으로서의 사회적기업 클러스터 구축

1) 필요성

- ① 현재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종료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사회적기업 대부분 기존의 자활공동체의 형태로 유지되어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없는 경우 자립 확률 낮음
 - 사회적기업의 경영상의 문제 및 시장경쟁력 약화로 인한 일자리의 질적 차이로 대부분 저임금의 일자리임
- ② 기독교 참여의 사회공헌기업 모형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 양극화 해결의 새로운 대안
 - = 기독교의 잃어버린 사회적 책임의 회복

2) 추진방안

① 사회적기업간 연계 사업 모형 개발

- 단편적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해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유도. 이를 위한 기독교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확립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ex, 사회적기업가) 집단 구성. 기독교 사회선교의 한 측면으로 사회적 기업 전문가 인재 양성.
 - = 지속적인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사회적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아카데미 실시 운영

② 교계의 사회복지 운동과 네트워크 교계 인적 물적 자원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자립 방안 확보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조 변화에 맞춰 기업의 CSR의 적극적인 활용. 1기업·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의 지원 방안 마련하며 나아가
- 1교회 1사회적기업 결연 추진.

③ 연계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지 확보**

- 유사 및 연계 가능 사회적기업의 지리적 합치를 통해 사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며 지역 교회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진행

3) 추진상 고려사항

① 기독교 사회적기업간 의사소통 구조 필요

-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 교환이 가능한 조직 구성 또는 연계 필요 (ex, 기독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출발의 필요)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회의 사회공헌 활성화 프로그램 필요

-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기독교 교회 안에 교회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개별 교회 교육 및 연합 연합된 곳에서 아카데미 같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기독교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1) 필요성

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빠르게 증가

-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 수요 급증
* 최종증질환(1,2등급) 노인규모 전망('07 기획예산처) : ('05)75천명→('08)85천명→('10)91천명
-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 수 감소로 보육, 가사,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
* 이통인구의 15%, 노인인구의17.2%가 돌봄서비스 필요('08 서울대)

②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정부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확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

- 사회 책임적 존재로서 '복음의 사회화' 운동이 기독교에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와의 질적인 파트너쉽 형성으로 사회참여 운동 전개
- 민간에서는 개인기부, 기업사회공헌, NGO 단체의 비영리활동 등 다양하게 확대 중 .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활동 필요, 적극적 참여 운동
- 비영리활동의 법인체로서 재원투입이 가능한 기독교 재단의 역할이 요구됨

③ 사회의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기존의 지역에 한정된 기독교 복지의 틀을 벗어나 복음의 사회화에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

- 다양해진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재단의 관련정보 및 재원은 제한적으로,
- 정보공유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

2) 추진방안

① 유사사업 수행 기독교 재단 별로 네트워크 구축

- 장애인, 다문화가족, 장학사업, 취약계층사업 등 기독교 재단들의 주요사업 및 사회적문제 중심으로 조직
-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추진

②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 다수의 민간재단의 참여가 필요하나, 대규모 네트워크의 경우 정기적 모임 및 공동사업 수행 등의 실효가 적음
- 네트워크의 다양성 및 사업의 실효를 위하여 10개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네트워크로 구축 (예. 바른교회 아카데미등)

③ 공동 프로젝트 사업 수행 및 기독교 재단사업 정보 제공

- 민간재단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 및 프로젝트 기획·참여 기독교 재단 실무자에 대한 지원 실시

3. 성공모델 이론화

1) 필요성

① 한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기독교 재단의 사회적기업 모델에 대한 공론화 필요

- 정부 및 기업 사회공헌 활동시 기독교 주관의 성공모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벤치마킹 유도

② 교회, 정부,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만든 기독교의 주관의 사회적기업의 운영체제 및 의사결정구조 등의 확립이 필요

- 비슷한 형태인 제3섹터 경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구조 연구 자체가 사회 이슈화가 됨

③ 기독교 주관의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공론화함으로써 **정책반영 등 모델의 확산을 통해 기독교 사회적 책임의 비전 실현**

2) 추진방안

① 성공모델 공론화

- 기독교 주관으로 설립된 열매나눔 재단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관련학회, 세미나 등에 참여 그동안 기업운영 모델에 대한 발표 및 질의 등을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에 문제제기

② 기독교 내 관련 경영 사회복지 학자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창출 및 실효성 극대화 방안 제시

③ 이를 위한 기독교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가 필요하며 열매나눔재단 및 기윤실 내의 지원 센터를 연합 설립하여 교회 운동으로 확산 발전 시킴.

3) 추진상 고려사항

① 기독교 사과의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구성 필요(예. 열매나눔재단 및 기윤실 활용)**

② 사회공헌기업의 구조에 대한 이론 개발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론에 대한 논리적 다양성 부여**

4. 활동가(사회적 기업가) 양성

1) 필요성

① 체계적인 기독교 정신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과 대안 경제의 나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기독교 내에 대안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체계 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새로운 나눔의 시대인 앞으로 10년을 이끌어 갈 것임
-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활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

대다수임. (정부 의존도 높음)

- 일시적인 컨설팅이 아닌 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필요.

② 새로운 사업을 시험적으로 수행할 **인력에 대한 지원 부재**

-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업영역의 확장 및 개척 필요

2) 추진방안

① 기독교 내에 분야별 전문가 집단 구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 퇴직 전문인력의 재능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자활 및 사회공헌기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경영지원, 영업지원, 자원발굴 등의 다양한 분야 지원
- 활용 가능한 교계의 자원봉사 인력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필요

② 기독교내 **활동가(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기업 설립**

③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사례 발굴 및 지원**

- 논의에만 그친 내용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새로운 모델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계 내 사회적 기업 대상을 선정 성공모델화

IV

달라진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

1.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

단순 기부에서 참여적 기부로의 전환 - 돈만 주는 것이 아닌 기술과 마음을 주어 With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현 금전 외 재능 현물등 공헌의 대상화 다양화로 교인의 사회공헌 참여 확대

2. 새로운 정책 모형 개발 및 확산

교계 참여의 정책 롤 모델의 개발로 기독교의 잃어 버린 사회적 책임의 문제 해결. 신뢰의 회복은 복음의 확대로 이어짐. 교회의 인적 물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대안 경제의 네트워크 파트너로 자리함

3.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 탈피의 원동력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사회적 기업의 정신은 곧 기독교의 정신임. 1차적 사회복지에서의 2차적 자립의 복지로의 전환은 결국 대물림대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역할이며 이를 기독교가 앞장설 때 사회 책임적 존재로서의 역할 재정립됨.

지역적 기업, 커피밀

윤선주 | 디딤돌교회 목사, 커피밀 대표

Act Locally

1. 서론 - 교회와 지역사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집단이라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사회)을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해왔다. 곧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세상과 애써 구별시켜 온 것이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교회는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지역사회는 그것을 수락해야 한다. 이러한 일방적 편향적 관계 속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유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해왔는데, 성과 속의 이원론적 신앙관, 지역사회와의 단절, 집단이기주의에 가까운 왜곡된 개교회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에 대해 박종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지역을 간과한 채 단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원사업에 치중해온 결과. 둘째, 지역사회를 마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교회중심적 신조와 태도. 셋째, 교회가 존재하고 교인들이 생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재이다.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복지선교”,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p133) 이러한 태도는 세상(사회)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무대라는 것과 교회의 위치가 바로 그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교회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독단과 독선의 종교 집단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세상과의 소통과 이해의 수고를 등한히 해왔는데 어찌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그 대가를 비싸게 치루고 있다.

성서는 교회와 사회(세상)를 유기체적 관계로 결합된 통합적 개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그의 저서 “Living as the People of God”에서 구약 성경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도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신학적 도식으로 ‘하나님’, 둘째는 경제적 도식으로 ‘땅’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회적 도식으로 ‘사람’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서로 조화시키고 연관시킴으로서 구약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곧 하나님 통치(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속에 신학과 사회와 경제가 상호보완적, 상호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은 신약성경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에도 강력한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도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과 담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구체적 삶의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세계(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호켈다이크(J. C. Hoekendik)는 ‘흠어드는 교회(The Church Inside Out)’에서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참 모습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또 확실히 그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과 공존(co-existence)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pro-existence), 곧 세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지역사회’는 교회가 진정한 ‘pro-existence’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인 것이다.


2. 지역사회에서의 우선적 과제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필요와 당면 문제들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음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필요들’(needs)의 차원으로서, 개인적 빈곤, 신체적 장애에의 도움, 가정의 치유와 회복, 실직극복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이다. 자칫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며, 실상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문제들’(problems)의 차원으로, 지역의 비행청소년 문제, 이혼가정문제, 외국인근로자문제, 노숙자문

제 등과 같이 사회의 일부 집단과 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한다. 셋째, 보다 거시적, 구조적 차원으로서, 분배의 문제, 사회정의의 문제, 민주화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보다 큰 차원의 문제들이다. 넷째, 이 모든 문제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념, 가치(ideology, values)와 같은 차원으로, 이 차원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교회는 이상 열거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네 가지 차원 모두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최근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실물경제와 서민경제의 체감지수는 좀처럼 바닥권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교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지역주민들의 엄혹한 삶의 문제에 마땅히 개입하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한 사회자본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방법은 기존의 빵을 던져주는 식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교세확장을 위한 기회와 수단으로 활용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단발성의 일방적 구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수평적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식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교회는 지속 가온한 나눔의 방식으로 마이크로 크레딧과 사회적 기업 등, 일련의 대안경제 운동에 주목하고 그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디딤돌교회 사례 - 사역적 기업 coffeemeal

디딤돌교회는 '작은 교회(소공동체)와 'Local community church'를 표방한다. 여기서 '작은 교회'란 그동안 부흥하지 못했거나 대교회로 가는 잠정적 단계로만 여겨 온 부정적, 소극적 의미에서의 '작은 교회'가 아닌 한국교회의 대안으로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성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기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소공동체'를 뜻한다. 다음으로 'Local community church'란 지역사회의 일상과 단단히 연결된 교회를 의미한다. 디딤돌 교회는 교회가 자리한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장이자,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의 장, 나아가 교회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시도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창립 취지에 준하여 디딤돌교회는 BAM(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nistry)사역을 계획하고 2007년, 사역적 기업 interhold를 설립하여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Coffeemeal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 Coffeemeal 사업 소개

배경 1 -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

- 1) 전도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문제점
 -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의 전환
- 2) 기존의 '디아코나' 사역의 한계
 - 타 종교와 차별 없는 봉사과 섬김 사역
 - 교회성장의 또다른 방편으로 전략
 -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 수혜
 - 대형교회들만의 전유물이 된 현실
- 3) 생존에만 급급한 '작은 교회'들의 현실 극복
- 4)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 빌딩 사역의 필요성
 - '디아코나'를 넘어 '커뮤니티 빌딩'으로

배경 2 -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사역에 대한 반성

- 1) 수직적 일방적 선교에서 수평적 소통의 선교로 전환
- 2) 종교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배타적 방식에서 탈피
- 3) 교회 중심적 패러다임 극복
- 4) 교세확장(교세과시)을 위한 기존 선교 방식에 대한 반성
- 5) 창의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선교지와 선교사의 현실 반영

배경 3 -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도구

교회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신뢰도 개선 및 사회적 책임 수행의 새로운 모델 모색

◎ 기본 컨셉



◎ coffeemeal의 모토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가난한 이웃의 한 끼 식사가 됩니다.

coffee + meal = coffeemeal

coffeemeal 커피를 마시는 것... 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회사 CI 설명



스푼에 담긴 커피원두를 숟가락에 담긴 밥알로
형상화하여 커피밀의 창립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Coffeemeal 핵심가치

1.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합니다.

coffeemeal은 남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현지 커피생산자협동조합에서 구매한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합니다. 공정무역 커피는 커피생산자들의 권익향상과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는 커피를 말합니다.

2. 착한 소비운동에 동참합니다.

coffeemeal은 착한 소비운동에 앞장섭니다. 착한소비는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닌 '모두'를 위한 소비'를 뜻합니다. coffeemeal은 여러 NGO 및 공익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금 중 일부(20%)를 사회에 환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 굿네이버스 Good Buy 사업(세계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 동참

3. 지역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coffeemeal은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합니다. 카페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친밀한 교류와 유대감 형성을 장려하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합니다. 이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하고 주민자치의 성숙 과 공동체 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coffeemeal은 기업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자본주의를 꿈꿉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5.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합니다.

coffeemeal은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과 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두구매-운송-보관-선별-가공(로스팅)-블렌딩-포장-판매(추출) 등의 전 과정에 최상의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 시스템과 독자적 기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커피벨트 발전 기금

coffeemeal은 제3세계 커피생산국 곳곳에 현지 농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커피농장(사회적 기업)을 세워 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coffeemeal은 전체 수익금 중 10%를 커피농장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 커피밀에서 판매하는 “착한 커피”

1. 코스타리카 따라쥬(Fair trade)
2. 인도네시아 토라자(Fair trade)
3. 이디오피아 시다모(Fair trade)
4. 이디오피아 예가체프(Organic)
5. 브라질 산토스(Save the amazon)
6. 멕시코 치아파스(기아대책)
7. 착한커피 스페셜(브렌딩 커피)

◎ 사업 현황

- 매장 : 5곳 (방이점, 성내천점, 명일점, 하남점, 봉담점), 4곳 open 예정
- 공장 :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
- 납품처 : 25곳
- 커피문화 교실 : 현재 14기까지 총 100여명의 교육생 수료
- NGO와의 협력 사업 : 커피 로스팅 및 납품
- 월매출 : 매장마다 평균 700~800 만원 내외

◎ Coffeemeal 효과

- 제3세계 커피 노동자의 생계에 도움(공정무역 커피).
-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기여(유기농법 커피).
- 수익금의 30%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착한커피).
- 고용창출 효과(직원 - 가맹점 포함 15명)
-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community building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앞으로의 과제



광염교회(조현삼 목사) - 서울 도봉구 소재

* 인터뷰어 : 전선영 간사(기윤실) / 인터뷰이 : 박현덕 목사(광염교회)

대안경제포럼을 준비하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 광염교회(조현삼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이 눈에 띄었다. 대안경제 중에서 특별히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크레딧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면서 지역교회의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사실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의 역사적 원류를 따라가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양심과 고민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은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



1. 박현덕 목사님, 광염교회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하는 SOS뱅크나 생명의쌀은행, 그리고 나눔마켓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 왔습니다.

나눔마켓은 현재 장애인가정이 운영하시는 1호와 모자가정이 운영하는 2호가 있구요 일종의 재활용가게라고 할 수 있지요. 다만 장애인가정과 모자가정을 직접 돕는 방식이 아닌 이분들이 이 가게를 운영해서 얻는 수익을 직접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물세와 중고물품 공급과 수거 등은 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세를 수익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구요. 수익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더라구요.

대안경제 - 교회사례

SOS뱅크 같은 경우는 2005년 한 청각장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생긴 벌금 70만원을 내지 못해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신 한 재미교포분이 보내주신 5천만원과 저희교회 5천만원이 씨드머니가 되어 이 뱅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말그대로 생계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지역목회자나 사회복지사의 추천으로 10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그냥 드리는 것보다 위급할 때 대출을 한다고 할때 받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도 덜 되는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현재는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구요.

생명의 쌀은행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 쌀 살 돈이 없는 분들에게 쌀을 공급하는 구제사역입니다.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마땅히 현금이 없고 또 아직은 일을 할만한 준비가 안되신 분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린 적도 있구요. 집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또 상황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도 하구요. 요즘엔 절대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해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독교연호봉사단
Korean Church Relief

장애인을 위한 SOS뱅크

“ 장애인을 위한 SOS뱅크는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은행입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만 대출하고, 일상적인 빚 상황이나 공과금 납부 등 일반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신청은 받지 않음. 때문에 대출 결정기준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가족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의 정도가 심사기준

SOS BANK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3번지 Tel. 02-606-8295 Fax. 02-3493-3061
후원구좌 | 신한은행 100-022-512314 (예금주: SOS뱅크)

2. 뭐랄까. 작은 부분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섬김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그 감수성도 참 중요한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 내부적인 원칙 같은게 있나요?

저희는 일명 '맞춤형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모든 저소득층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뭔가를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드린다던가, 또는 뭔가를 나눠준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게 참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택배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하는 방식도 취합니다.

3. 광염교회 재정운영원칙을 들자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 셋째는 헌금한 성도들에게 보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집사역이 있는데 저희가 교회이름으로 전세를 얻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세집이 너무 좋아서 헌금을 하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집에 지낸다면 성도들 중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요. 또 너무 시설이 안 좋거나 지하방을 구해주면 지내실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구요.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절기헌금의 경우, 대부분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택배로 배달을 하기보다 성도분들이 가는 길에 가족당 한 팀을 꾸려 조용히 배달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도 그냥 가기 뭐하니까 선물을 준비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기회가 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된답니다.

또 이런 물품을 살 때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신뢰를 받으려면 그 지역 슈퍼마켓에서 인심을 얻어야지요^^ 그래서 좀 번거롭고 조금 돈을 더 주어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을경제를 돌아보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작은 실천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염교회 박현덕 목사님과 2시간 조금 안되게 사역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역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섬세한 감수성이 전해져 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눔을 받는자나 나누는자 모두를 생각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민교회(이해학 목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 인터뷰어 : 김영재, 안진욱, 전교정(장신대 신대원생)

1 사업의 개요와 목적

79년 시작 월세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같은 교인들을 47명 47만원을 시작으로 처음에는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일 좋은 일이다 보니 지역적으로 나왔다.

<교회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정신은 공유하고 있다. 신탁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것이다. 시작과 함께 이런 이용은 계속되고 있다. 신탁은 종교시설, 직장 내, 지역 내의 신탁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종교시설에서 시작하여 지역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94년부터 보면, 첫째는 imf때 힘들었다. 그러나 이후로 부터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둘째는 2003년에 100여개의 신협을 퇴출시키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에서 신협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 시기에 실질적인 위기가 있었다. imf때를 제외하고 2003년을 포함해서 언제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교회와의 관계는 경영은 분리, 정신은 통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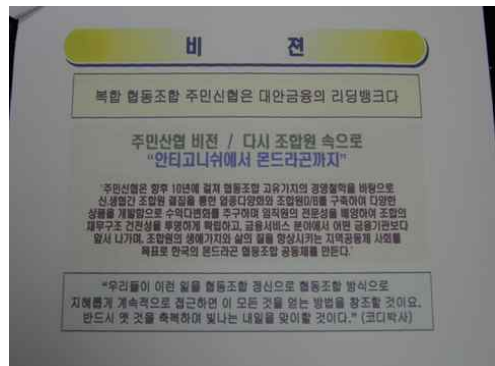
3.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많은 교회, 대형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역할을 약자를 돕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신협은 서민을 위한 기관이므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한다. <실질적으로는 힘들다.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

4. 앞으로의 비전

지역으로 진출한 상태이다. 이것은 교회를 넘어 지역의 공동체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의 은행으로서 제도권 금융권에서 살피지 못하는 틈을 매우는 금융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김동호) - 서울 강서구 소재

* 인터뷰어 : 김영재, 안진욱, 전교정(장신대 신대원생)

1. 개요와 목적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우리는 사업도 합니다. 사회복지와 사업은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 열매나눔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부분이다. 탈북자를 돕거나, 구제하는 기관은 많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복지와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드물다.



2.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은 얘기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공장을 세우는 일은 어려웠다고 들었다. 탈북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종이박스 만드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고, 운영을 목사가 한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찬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다.

3.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높은뜻승의교회가 사회에 대한 섬김의 재정정도가 7-8%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높은 뜻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더 큰 교회가 자극을 받고 이런 일에 동참하도록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4. 앞으로의 비전?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 탈북자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중 통일되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사람을 먹이는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씨앗은행

200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4개의 희망씨앗터(씨앗은행 자금으로 세워진 창업공동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창업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외 쪽방탈출 전세자금 융자 및 응급 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이란?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

- ☑ 생각나눔 :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공교육을 중심으로
- ☑ 실천나눔 :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School in School
프로그램 - 씨드스쿨을 중심으로
- ☑ 실천나눔 : 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프로젝트-에듀투게더

우리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산업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노동 유연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받기 기회가 적거나 거의 없는 빈곤층의 자녀들과 사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중·상류층 자녀들 사이의 학업성취도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이 상위직일수록, 즉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소위 상위권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기회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 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¹⁾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러한 현상은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해방 이후 90년대 까지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간의 순환 또는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하여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이후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교육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교육을 통한 계층 간의 순환 또는 이동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 즉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오늘에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공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은 먼저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실존적 차원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보고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개개인을 일대일로 교육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특정 공

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이 87.3%, 대졸이 85.7%, 고졸이 69.7%, 중졸 이하는 44.8%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대학원졸이 88.4%, 대졸이 87.7%, 고졸이 72.7%, 중졸 이하가 45.5%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별에 따른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100만원 미만 5.4만원, 100-200만원 미만 10.8만원, 200-300만원 미만 17.7만원, 300-400만원 미만 24.5만원, 400-500만원 미만 30.6만원, 500-600만원 미만 35.6만원, 600-700 만원 미만 40.2만원,, 700만원 이상 47.4만원이다. 최저 소득(100만원)과 최고 소득(700만원 이상) 사이의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무려 9배에 달한다.

동체의 가치와 관습과 문화가 전제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은 본질상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의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공교육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추구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다. 공교육은 흔히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교육” 또는 “국민교육제도”로 이해된다. 공교육제도는 교육의 내용, 형식, 실제 활동방향 등에 대해 법적 행정력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와 조건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립·공립·사립의 제도교육 전체를 공교육으로 간주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의미의 공교육 제도에서 공공성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필수적인 조건이다.

공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공교육의 목표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공교육의 목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전달하는 능력 신장을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공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상호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인재상은 사회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인재의 양육을 추구하는 더 높은 차원의 보편적이며 또는 공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적 요청 또는 상황이 공교육의 목표에서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공공성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왜곡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교육의 목표에 내재된 공공의 선에 대한 공헌이라는 차원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 교육을 단지 개개인의 출세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의 공공성과 더불어 교육의 공공성에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보편적인 또는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다. 이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미달 학생들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대하여 불리한 여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공식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해 준 뒤 생겨나는 학업성적의 격차, 이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가능성 여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은 각 아동이 책임져야 할 일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적 평등이해와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긍정적인 차별로서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³⁾

2) 강영혜, “공교육,” 브리태니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2g0368a>

3) 교육에 있어서 평등에 대한 보수주의적 해석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계층의 형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능주의적 사회관에 입각하여 평등사상을 해석하고 있으며, 단지 공교육 제도 속에서 모든 아동들을 등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65년에 통과된 “초등·중등교육법(ESEA)”이 그것이다. 이 법의 중심은 제1법안인데 그 기본전제는 빈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의 실시이다. 빈민층 가정의 어린이는 취학 전에 환경과 학습동기 면에서 학습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학습부진 현상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저임금의 직업을 선택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제1법안은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빈민층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중산층의 자녀와 비교하여 지능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적 여건들을 가진 빈민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취학 전에 필요한 여건을 미리 충족시켜줌으로써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들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산층의 자녀들과 동등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헤드스타트(project headstart)는 바로 이러한 보상교육의 정신에 기초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빈민층 자녀들의 교육을 다른 계층의 아동들 보다 1-3년 일찍(head) 시작(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기간 중에 1) 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지적·신체적 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2)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분위기에 일찍 접하게 하여 취학 후 학업성적 부진의 약점을 피하게 하며, 또한 3) 후에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빈민층 자녀들을 구별하여 돕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기회균등 또는 긍정적 차별화로서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4) 국가와 학교는 학생들이 이러한 평등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사회의 교육은 형식적인 차원의 기회 균등만이 존재하며 실제로는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도 볼 때 2008년도 우리나라의 취학률의 경우, 초등학교는 99.0%, 중학교는 93.2%, 고등학교는 99%, 고등교육기관은 67.2%에 달한다. 또한 진학률의 경우도 초등학교 -> 중학교는 99.9%, 중학교 -> 고등학교는 99.7%, 고등학교 -> 대학교는 83.8%에 육박한다.5) 그러나 이러한 높은 취학률과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경제력에 의하여 자녀들의 교육성취도가 양극화되고 있으며, 사교육은 이러한 양극화의 매개변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교육 제도는 형식적인 차원의 기회균등은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차원의 교육기회균

등하게 취급하는 형태만을--곧, 꼭 같은 입학기회의 부여, 똑같은 교육내용에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똑같은 교육시설의 사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교육에서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강희천, “기독교 교육에서의 평등,”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1), pp. 177-78.

4) 강희천, “기독교교육에서의 평등,” pp. 195-96.

5)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연보』. 취학률은 취학적령 학생수 / 취학적령인구수 * 100, 진학률은 상급학교 진학자수 / 졸업생수 * 100.

등은 제대로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효과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또는 평등한 교육의 실현이라는 공교육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교회는 지난 12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를 향한 다양한 봉사를 실천 해왔다. 그 가운데 학교를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사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봉사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 학교설립을 통하여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시키며 민중을 계몽해 나가는 일에 교회가 적극 참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교육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의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자신을 공적인 공동체(public community)로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공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오늘의 공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이념, 가치 등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의 공공성 확립에 공헌하여야 한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늘의 공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 엘리트교육, 수월성 추구, 또는 경제적 세계화 교육 등과 같은 목표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경쟁과 기능을 강조하는 이러한 목표 또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목표 또는 가치가 너무 협소해짐으로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 또는 가치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성의 회복, 공동체성의 회복, 연대성, 공생, 공존 등과 같은 목표나 가치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교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개념화 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월성(excellence)”이라는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은 주로 1) 국가경쟁력의 수단, 2) 교육평등성과 대립 되는 개념, 3) 일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수월성에 대한 이처럼 협소한 이해는 주로 국가 경쟁력과 시장 원리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회는 공교육이 지향하는 좁은 의미의 수월성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즉, 교회는 수월성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의미들과 동시에 성서적 의미들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이를 재개념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월성에 대한 다양성과 사회적, 도덕적 차원과 1)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추구하

며, 2) 공동체의 유익을 기치며, 3)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서적 차원의 수월성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재 공교육이 추구하는 수월성 개념이 지닌 지평을 더 확장하여 재개념화 해 나가는 노력에 교회는 적극 참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⁶⁾

둘째, 교회는 **공교육 제도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세력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와 더불어 감시하고 견제하는 노력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교육이 한 바탕 흥역을 치르게 된다. 공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 입장과 차별화 또는 수월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이 정권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요즈음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폐지에 관한 문제도 많은 경우 발전적인 논의 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목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교회는 공교육제도가 특정한 세력의 이기적 목적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를 제도적, 법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법적차원의 노력은 개교회적 차원 보다는 교단적인 또는 교회 연합적인 차원의 연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교회의 기득권만을 고수하려는 또 다른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공존의 교육으로 변화되도록, 또한 학력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 현상이 무한 경쟁의 전투장이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한 마디로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든지 사람 사는 곳이라면 경쟁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득이 경쟁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오늘날의 상황은 결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해 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에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즉, 학업성취도의 경쟁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진 학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거나 도태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6) 강영택,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 개혁,” 강영택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pp. 24-37.

김성천은 이를 “복지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적 차별화로서의 평등”에 기초하여 우리의 공교육이 무한 경쟁의 교육에서 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한경쟁 입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이에 기초한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열 입시경쟁의 뿌리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입시 출세주의, 입시 가족주의, 입시 지상주의 그리고 입시 세속주의”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의식개혁이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⁷⁾

교회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수행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먼저 교회내의 회중을 대상으로 입시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와 왜곡된 학력주의에 대한 다양한 각도(특히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하여)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연 현행 입시제도가 가져올 장·단기적인 차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내의 세미나, 특강, 성경공부, 설교 등과 같은 각종 교육기회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회중들에게 공존, 공생, 다양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공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성서적·신학적 기초 - 특히 공공신학적 관점과 같은 - 를 가르치고 동시에 입시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독교부모 운동, 기독교사 운동, 시민단체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인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격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인적, 물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오늘의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연대를 통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공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현재의 공교육이 지닌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기독교 대안 학교가 또 다

7) 박상진,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강영택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p. 51.

8) 이종태는 일반교육에 있어서 대안학교의 출현 배경을 근대주의적 교육의 한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1) 대량생산 체제에 맞는 획일적인 방식, 2) 전지구적 생태 위기로 나타나는 근대적 합리성의 한계, 3) 근대적 개인주의의 한계, 4) 과학적 합리성과 가시적 세계만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영성과 초월성의 상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대안학교는 1) 자율성과 다양성, 2) 자연친화적이며 생태적 특성, 3) 협동적이며 공동체적 특성, 4)

른 엘리트 입시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와 더불어 오늘의 공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는 미국의 Teach For America(TFA)에서 얻을 수 있다. TFA는 웬디 콕(Wendy Kopp)이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부 졸업생에 의하여 설립된 일종의 공교육 개혁을 위한 비영리 교육단체이다.⁹⁾ 이 단체는 우수한 대학졸업생들 가운데서 자원교사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의 공교육 현장에 파송하는 단체이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인생의 2년을 떼어 저소득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TFA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2만명의 우수한 대학교 졸업생들을 소외된 지역에 교사로 파송하여 공교육 현장에 새로운 열정과 소명을 불어넣음으로서 미국 공교육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¹⁰⁾ 비록 기독교단체는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개혁을 위한 TFA의 비전, 열정, 그리고 전략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외 계층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멘토링과 튜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seed school)이 TFA와 상응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씨드스쿨은 교회가 공교육 개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¹¹⁾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로 몇 가지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대교단은 지역교회가 공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공교육에 에너지와 열정, 소명을 불어넣어 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학교(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신들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을 통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멘토링과 튜터링을 통하여 섬겨나감으로써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이다.

나가는 말: 구원이 필요한 공교육

오늘 우리사회의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 회복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입시문제에서 수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교육은 이제 치유의 단계를 지나 그야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학교(大


초월과 영성 등을 강조한다. 이종태,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2001), pp. 40-47.

9) Wendy Kopp, 최유강 역, 『열혈교사 도전기』 (서울: 에이지 21, 2009).

10) 현재 하버드와 프린스턴과 같은 유명 대학 졸업생의 10%가 TFA의 교사로 응모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TFA가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이상적인 사회적 기업 순위 10위에 올랐다.

11)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은 2009년 1월에 기독교영양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한국리더십학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빛누리재단 등의 전문기관들의 협력으로 결성된 비영리공익단체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사업명칭이다.

學敎)”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가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공교육과 대학교의 신자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비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자녀교육의 목적, 성공 및 출세 요인, 희망교육 수준, 자녀의 진로 결정 등 교육적 가치관에서 일반 학부모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교육의 목적에서 신앙적 가치를 더 높이 두는 점과 희망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일반 학부모 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²⁾

여기에 바로 우리가 공교육을 구원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뿐 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와 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공교육 구원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차원의 타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들과 더불어 공교육 개혁에 적극 참여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자연의 탄식 소리와 더불어 오늘날 공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탄식소리에 공감의 자세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12) 김창환, “한국교회에서의 입시이해,” 박상진 외,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pp. 154-55.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School in School 프로그램

박경현 | 한국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씨드스쿨 교육이사

Act Locally

대한민국교육봉사단

Seed School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과거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미래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씨드스쿨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
고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씨드스쿨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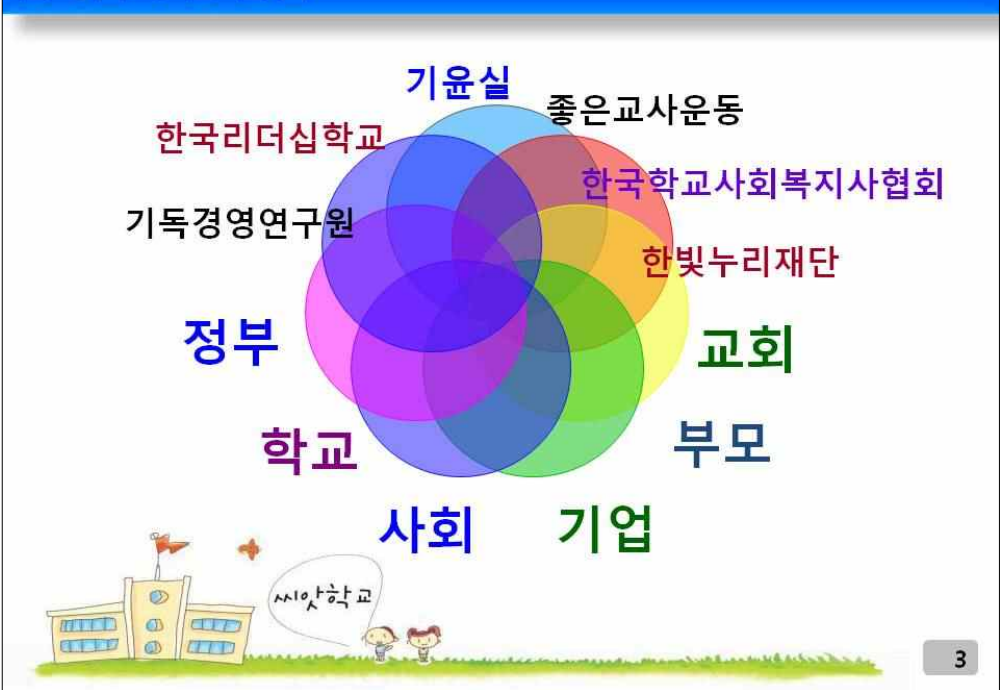
2009.12. 박경현(교육복지연구소 소장, 씨드스쿨 교육이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번지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seed@seedschool.kr

www.seedschool.kr



협력을 통한 섬김



Seed School 이란?

핵심가치: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나눔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룹니다.

동행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전인적 동행을 이룹니다.

변화 나눔과 동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꽃피웁니다.

존재이유

1. 복지사각지대 존재: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역전히 다수

2.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필요: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양적으로는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높은 수준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3. 여전히 중요한 사회투자:

범죄예방, 사회복지비용 절감, 세금납부 증가, 질 높은 노동력 증가 등 사회적 투자효과



이 프로그램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백성민(학생)
씨앗학교



주요 사업

사업 1. School in school 사업

- 학교 안의 학교(School in school)로 방과후 저녁시간에 운영
-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운영

사업 2. 자기성장 전문 교사아카데미

-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봉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 대학생 사회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사 봉사 전문교육

사업 3.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개발

- Seed School 및 기존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연구개발
- 전국에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씨앗학교에 대과교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지금이든 환경이 어려우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고운(교사)-



Seed School의 구성원

씨드스쿨은 기대감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교사, 그리고 열정으로 참여하는 스태프의 3박자가 시너지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동행의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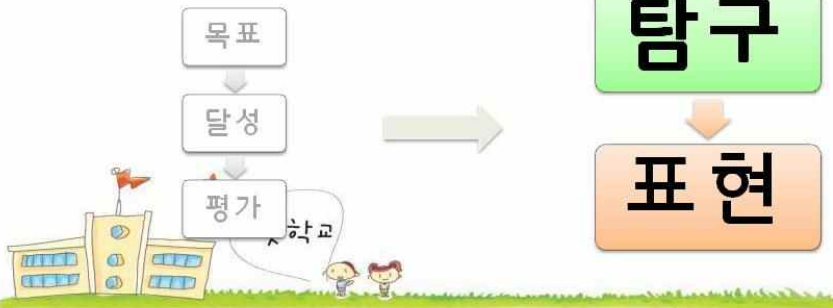


Seed School의 배움 철학

주제 · 탐구 · 표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배움의 철학

목표 · 달성 · 평가의 배움 철학은 대량 생산의 공장 작업 프로세스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시킨 전근대적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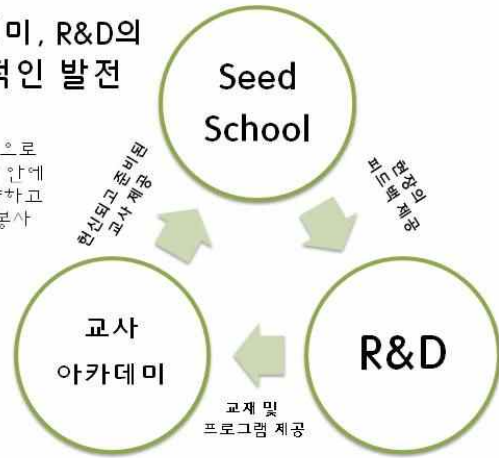
씨드스쿨은 교육과정에 배움의 개성과 공동체성에 기초한 주제 · 탐구 · 표현의 배움 철학을 적용시켜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적이고 협동적인 탐구를 통해 학습을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했다.



Seed School의 사업 지향

SeedSchool 현장과 교사아카데미, R&D의 "선순환 구조" 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SeedSchool 기수가 거듭되는 것만으로도 자족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향후 5년 안에 전국 멘토링 사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계몽함으로써 교육봉사 운동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씨앗학교

지금처럼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생성호(학생)-

프로그램의 차별점

1. 아이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 After after school로, 방과후 학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저녁시간에 운영

2.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교재가 있는 프로그램

- 교사아카데미와 R&D를 통하여 높은 질의 프로그램 제공 가능

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동행' 의 프로그램

- 교사도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운영



씨앗학교

교사 하면 돈 얼마 받아요? 라는 삼천리의 질문에 돈을 안받겠다고 했더니 돈도 안 주는데 이걸 왜 하시는 받을까였다. -권정훈(교사)-

Seed School 브랜드화 전략

1. 전문 교사 교육 프로그램

: 총40시간 교육

전문 멘토링&코칭, 중학생 이해, 리더십개발 등 훈련



2. 커리큘럼 매뉴얼 및 학생 워크북 제작 및 보급

: 전국에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 보급



www.hopsond.kr

www.hopsond.kr

10

Seed School 사업 기대 효과

효과. 학생:

정체성 발견, 재능개발, 학습능력증진을 통해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효과. 교사:

봉사의 실천으로 성취감 느낌. 사회적 인식과 이해 증진, 사회적 리더십과 기업시민정신 함양.

효과. 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효과. 기업:

기업 이미지 제고, 간접적인 기업투자.

효과. 사회:

나눔과 동행의 교육봉사운동 확산.

효과. 교회: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신뢰회복 가능.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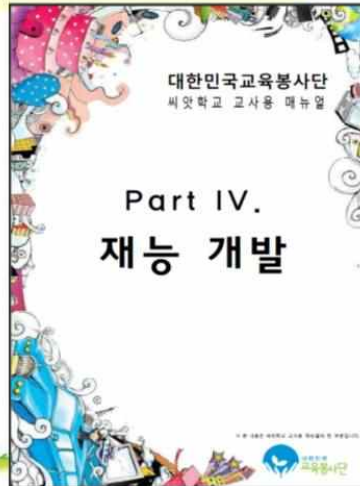
1. 교사양성을 위한 워크숍과 아카데미



※ 1기 교사아카데미 수료자 42명
2009 씨드스쿨 교사 파견 36명

2. 씨앗학교 커리큘럼 개발

- 현장에서 검증된 멘토링과 튜터링 프로그램 도입
- 학생들 상태와 욕구에 맞게 활용가능한 모듈화된 커리큘럼 제공



3. 교사용/학생용 워크북 제작 배부



4. 운영본부 Staff 진과 전문위원회의 지원

- 운영본부의 staff 들이 현장에 밀착한 프로그램 지원
- 다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조언과 수퍼비전
-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 학교(교사)와의 유대와 협력





Seed School 은 나에게 ...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곳 - 이현
 일주일의 비탄만! - 최한나
 값싸는 실력은 믿고 기고 올 때는 따뜻한 믿고 오는 곳 - 이현
 슬기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 - 정승희
 따뜻한 버디버디! - 이종영
 따뜻한 관심과 열정이 승리는 즐거운 교육 - 임재영
 커요즘 허드스를 때문에 살아요 - 권운진
 내 삶에 처음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선물

다음 세대의 희망씨앗을 심어주세요!

씨앗학교

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프로젝트 ; 에듀투게더

김윤태 | 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실장

Act Locally



분당우리교회 소개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2002년 5월 분당우리교회 개척(현 분당구 이매동 송림중고등학교 내)

분당우리교회 목회철학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분당우리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과 그들이 처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이 찬 수 담임목사 -



분당우리교회 4대 비전(Vision)

1.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2.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3. 젊은이를 깨우는 교회
4.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육양극화 해소를 교육지원 사업

'에듀 투게더 프로젝트'

"에듀 투게더(Edu-Together)" 프로젝트는

빈곤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을 통해

꿈과 용기를 주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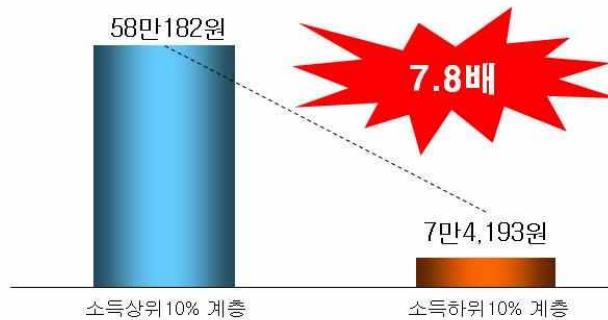
분당우리교회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9월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 광고 -

에듀투게더 시작 - 1. 사회적 문제

교육비 격차 무려 7.8배 심각 소득별 교육비 격차 고착화 가난 대물림 현상 심화우려

- 소득계층별 월 교육비 격차(2003~2008) -



2008-09-22 국민일보 류장훈 기자

-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봉사 희망
- 성도들의 다양한 봉사활동 욕구 증대
- 성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처 필요
 -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필요
- 전문봉사자들에 대한 특화된 봉사프로그램 필요

에듀 투게더(Edu-Together) 프로젝트

성남지역 빈곤가정 청소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에듀 투게더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

저소득계층의 교육양극화 심화

- 공교육 붕괴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임(사교 시장 규모 2003년 18조4천억원)
- 교육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기회단절(소득상위 10%와 하위 10%계층 교육비 격차 7.8배)
- 교육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교육지원 필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필요

- 지역 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증대
- 사회 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적으로 증대 추세
- 지역사회가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 대한 욕구 증가
-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및 구제(지역) 실천
- 본 사업을 통해 교회복지사업 확대 및 건강한 교회로써의 모델 제시

에듀투게더 의미(Meaning)

“에듀투게더”는 “Education(교육)”과
“Together (함께)”라는 단어를 접합한 것으로,
빈곤 가정의 청소년 교육문제에 분당우리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뜻으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장기적
인 프로젝트입니다.

에듀투게더 로고(Logo)

에듀투게더 로고는

어린 청소년들이 에듀투게더 프로젝트를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이 시대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교회와 지역사회 기관연계(네트워크 형성)-

분당우리교회

World Vision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 예산지원
- 전문학습 봉사자 지원
- 전문교육커리큘럼 개발

전문학습봉사자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대학생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까지 교사, 과외교사, 학생지도 경력이 풍부한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EDU|together

- 프로그램 개발 및 담당
- 학생선발 및 관리
- 학습공간 제공

(하드웨어 및 대상자 관리)

저소득 가정 청소년 중 공부에 욕구가 있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60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에듀투게더 사업내용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1. 학습수행 능력 향상

- 정규반 수업진행(영어, 수학 집중식 교육)
 - 일 시 : High class(월, 수 18:00~21:00), Low class(화, 목 18:00~21:00)
- 특강반 수업진행 : 매주 금, 토, 수준별 단과반 운영(3개반)
 - 영어 리스닝(금 19:00~21:00), 수학 집중반(금 19:00~21:00),
 - 영어 리딩(토 14:00~16:00)
- 영어회화반 수업진행 : 금, 토(18:00~21:00) / 수준별 6개 calss 운영
- 장학금 지급
- 기타 학습환경개선, 저녁간식 지원, 참고 교재지원

2. 올바른 가치관 확립

- 멘토링 프로그램, 비전캠프, 문화활동, 집단활동, 생일파티 등

3. 교육지원체계 마련

강사교육, 월례회(평가회), 멘토교육, 부모교육, 교사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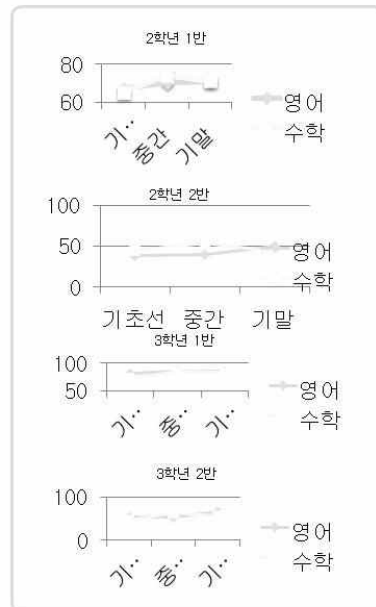
에듀투게더 성과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1. 성적향상

성적 사전, 사후 비교가 가능한 2,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성적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성적향상 결과가 나타남.

- 2학년은 영어평균점수가 5점, 수학평균점수가 6점이 올랐으며 3학년은 영어 평균점수가 5점, 수학은 13점이 올랐음.
- 특히 영어, 수학 성적이 50점대 에서 100점으로 오른 학생, 전교 30~40등 에서 전교1등으로 오른 학생 등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에듀투게더 성과

2. 공부습관 형성

부족한 학습에 대한 보충 및 지도를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습관이 형성

3. 자신감 고취

학습습관이 형성되고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적응력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형성

4. 건전한 정서함양

비전캠프, 비전트립 등을 통해 건전한 자아상 및 비전 형성

5. 저변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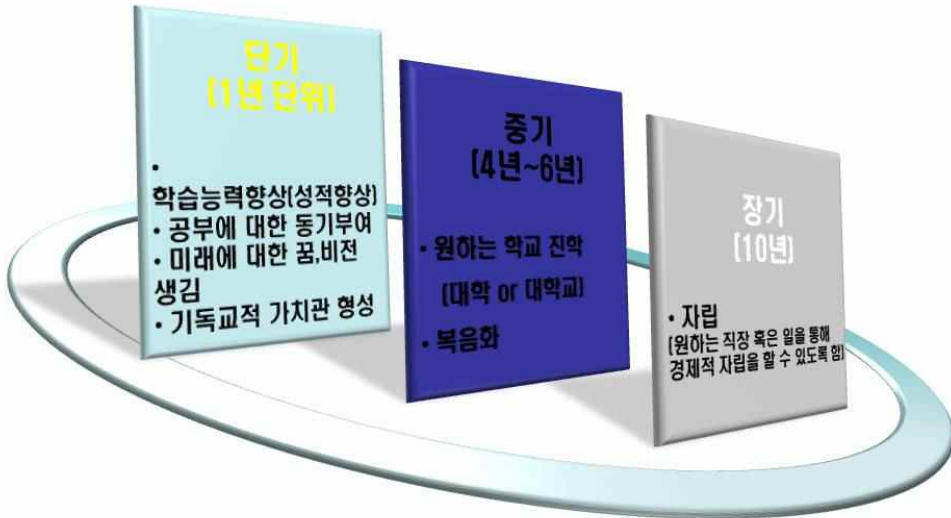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에듀투게더 사업 포지셔닝



에듀투게더 향후 계획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에듀투게더 월드비전과 지원협력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에듀투게더 감사예배 및 헌판식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헌판전달

에듀투게더 봉사자 기념촬영 ▶



에듀투게더 전문학습봉사 활동

분당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 에듀투게더 봉사자 시강

에듀투게더 교사회의 ▶



에듀투게더 청소년 학습활동

보단강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에듀투게더 청소년 정서함양 활동

보단강우리교회
BOONDANG WOORI CHURCH



집단활동



생일파티



에버랜드로 오 해피데이 에듀투게더



에듀투게더 비전캠프



◀ 분당우리교회 다락방 및 봉사부서
청소년 격려 방문



분당우리교회 꿈자람 도서관 지원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회적 책임!

- ☑ 생각나눔 :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 ☑ 실천나눔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

양용희 |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엔씨스콤 대표

Think Globally

1. 들어가는 글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표준화 작업으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UN Global Compact 그리고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ISO 26000)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의 확산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자 보고해 온 환경, 윤리, 사회공헌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기업과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가 증가하고 시민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업은 생산, 판매, 고용, 납세 등 기업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환경, 인권,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다원화 사회에서 기업은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사회적책임의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수십년 사이에 기업이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면서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한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만큼 한국기업들의 환경, 인권, 윤리,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책임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매우 커졌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도 기업과 같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배경

20세기 후반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확산으로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와 시장의 지배력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NGO들의 비판과 감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조직, 기업, 기업인들의 힘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¹⁾ 한편 시장의 확대와 기업의 확장가운데 발생하는 환경, 노동, 인권 등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NGO의 비판과 감시 또한 증가하고 있다. Corporate Watch의 경우 기업의 생태학적 사회적 파괴에 대한 감시와 고발의 역할을 위해 탄생된 대표적인 NGO 가운데 하나이다.²⁾ 미국인들조차 기업이 그들의 생활전반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기업의 막강한 힘과 사용은 NGO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힘과 영향력은 곧 바로 기업의 책임성과 연계된다.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모든 행위에서 윤리와 책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생산과 고용, 세금 납부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강조는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으로 생각했다. 기업인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납세를 하는 것이 사회공헌이라 생각하였다. 기업 본래의 목적은 고용, 생산, 이윤 추구

1) Edwin M. Epstein은 기업의 힘과 사용에 대하여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업 조직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기업연합회(Corporate America)와 같은 조직에 의한 거시적 차원(macro level)의 힘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가격인상, 시장조정, 소비자 지배와 같은 매개차원(intermediate level)의 힘이다. 세 번째는 Microsoft, Wal-Mart, Procter & Gamble, Nike와 같은 개별 기업에 의한 미시적 차원(micro level)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Ted Turner, Michael Eisner(Disney), Bill Gates(Microsoft)와 같은 기업인에 의한 개별적 차원(individual level)의 힘의 사용이다. 그리고 이들 힘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개별적, 기술적, 환경적, 정치적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Archie B. Carroll, Ann K. Buchholtz. 2003).

2) <http://www.corporatewatch.org>

3) Business Week, Sept 11, (2000)

에 충실하는 것인데 기업이 사회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되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고 결국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로 기업은 실패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기업의 경제활동 역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더 이상 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할 주요한 경영 지표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환경, 노동,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외면하게 되면 결국 사회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성과를 가져준다는 긍정론적 시각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제 기업인들 스스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걸림돌이 아니라 수용해야 할 경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Price water house coopers가 1161명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불과 25%만이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CEO들은 60%로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이윤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CEO들이 68%로 조사되어 CEO들에게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영에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제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 성과가 중요하며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수용하는 변화를 보이고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마케팅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해석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공존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향상하고 기업가치과 올라가 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단순한 이타주의적 시각이 아닌 기업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이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회사 내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 관련 부서가 조직되고 GRI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UN의 글로벌컴팩에 가입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점차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다.

4) Pricewaterhousecoopers, 5th Annual Global CEO Survey, (2002)

3.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윤리, 지역사회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기업의 업종, 규모에 따라 매우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법과 제도, 사회의 전통,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개념은 학자, 국제조직, 기업 들 마다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개념의 정의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기업이나 학계에서도 아직 공통된 정의가 없이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⁵⁾ 'CSR'이라는 표현은 장소, 기업,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다.⁶⁾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 윤리, 인권, 지배구조, 사회공헌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폭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으나 "CSR"을 "기업사회공헌"으로 번역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Carroll(2003)교수가 잘 정립하고 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경제적책임(economic responsibility), 법적책임(legal responsibility), 윤리적책임(ethical responsibility), 자선적책임(philanthropic responsibility)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자선적행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책임과 법적책임, 윤리적책임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으로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자선적책임은 기대되는 책임으로 자발성이 강조되고 있다.⁷⁾

5) Dahlsrud Alexander, (2008)

6) Welford, (1996)

7) Carroll B. & Ann K. Buchholtz(2003), p.39

CSR에 대한 주요 정의

<p>Michael Hopkins</p>	<p>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란 사회속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자세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에 대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책임의 광의의 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사람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일이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e of Age 중에서)</p>
<p>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p>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CSR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사회와 사회전체와 함께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다.</p>
<p>World Bank</p>	<p>CSR은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크기는 사회전체를 위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p>
<p>UN</p>	<p>CSR은 기업경영의 주관심사와는 별도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기업의 행동들이 기업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시민과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
<p>IBLF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 Forum)</p>	<p>CSR은 종업원,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중요성에 기초한 기업들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활동이다. 큰 의미에서 주주들에게와 같이 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p>
<p>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p>	<p>CSR은 윤리적, 법적, 경제적, 시민의 기대를 부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다.</p>
<p>Pfizer</p>	<p>기업시민정신이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업이 지역사회와 지구촌 사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위한 노력이다. 좋은 기업시민이 된다는 것은 화이자의 정책과 경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는 화이자의 경영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나 그룹이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는 기업시민정신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화이자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이자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미션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p>

CSR의 주요 용어

용어	개념
Corporate Citizenship (기업시민정신)	기업시민정신은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Simon Zadek)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시키려는 경영활동이다. (지속가능발전한국위원회)
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지속가능성)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PWC)
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라는 새로운 자본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도하라운드에 이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제 자본시장은 국제 정치사회보다 사회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데 펀드 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가치투자와 함께 새로운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 사회책임투자협회(ASrIA)는 2004년 미국에선 15%, 유럽에선 12%, 일본에선 0.02%가 책임투자펀드였다고 보고 있다.
기타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Ethical Accounting, CSI (Corporate Social Investment)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흐름

최근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인식을 높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에서부터 안전, 노동, 기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OECD와 최근에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UN의 글로벌컴팩, ISO의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책임을 표준화 작업은 표준화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의 대상은 환경, 노동, 윤리, 사회공헌, 사회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보고서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⁸⁾ 1999년에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EU는 유럽국가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그린페이퍼(Green Paper)를 2001년 발간하였다. 그린페이퍼의 주요 지표로는 기업내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적자원관리, 작업장에서의 건강안전, 환경관리 등이 있으며 기업외부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하청업체, 고객, 국제 환경 등이 있다.

GRI는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에 의해 1997에 시작되었으며 2002년 독립하였다. 현재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의 공적인 공동연구 센터로써, UN의 지구협약(Global Compact)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GRI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는 기관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공적으로 알리는 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재무보고만으로는 전반적인 조직의 성과에 대한 주주들과 고객, 지역공동체, 다른 투자자들의 필요를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있음으로 Sustainability Reporting을 통해,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후생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GRI의 가이드라인은 모든 유형, 규모, 어떠한 입지의 조직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지구협약(Global Compact)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진전시킴으로써 기업 책임을 촉진시키려는 United Nations initiative이다. Global Compact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인권과 노동 기준, 환경 분야에서 10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10가지 원칙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Fundamental Principles of Rights at Work', 'Rio Principle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유래된 것이다.⁹⁾

ISO의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작업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의미하는 'CSR'에서 'C'를 삭제한 'SR'로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ISO의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의 타당성 검토가 논의된 이래 SR(Social Responsibility) 보고서가 2004년 4월 30일 발간되었으며 2005년 3월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제1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회의를 개최하여 43개국 ISO 회원국과 24개의 국제기구(ILO, UNCAD 등)에서 300여명이 참가하여 SR 표준화 제정을 위한 Working Group의 조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

8) OECD Guideline for MNEs,

9) <http://www.unglobalcompact.org>

였다. 그 후 매년 표준화 작업을 위한 국가간, 섹터가 국제조직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ISO에서는 2009년을 목표로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마련을 마치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으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회적책임을 연계한 표준화 작업으로는 CR 인덱스가 있다. CR 인덱스는 BITC(Business in the Community)가 개발한 인덱스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전략에서부터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수를 매기고 있다. 전략, 경영과의 연계, 운영(지역사회, 환경, 시장환경, 근로환경),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CR 인덱스는 특히 사회적책임과 환경부분을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 인덱스로서 2002년 처음 인덱스를 발표한 이래 참가 기업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참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들 순위의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¹⁰⁾.

그 밖에 비영리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으로는 AA1000, Global Sullivan Principles, GEMI(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의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성과 등이 있어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5. 기업과 이해관계자(Stakeholder)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역시 기업의 경영활동, 의사결정,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 중심에서 경영 중심으로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경영의 폭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제 1그룹과 제 2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그룹은 기업의 경영과 직접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주주, 종업원, 고객, 지역사회, 관계사 들이며 제 2그룹은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위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 정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과 이해가 달려있는 제 1그룹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 본연의 목적 실현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제 2그룹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

10) <http://www.bitc.org.uk>

향력이 증가함에 기업들이 이들 제 2그룹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투명성과 신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GRI 등 모든 표준화 작업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다.

6. 기업의 사회적책임 표준화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와 같이 기업들의 무역거래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표준화 작업은 제3자 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가입과 보고의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 당장 표준화 작업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시민사회, 고객, 언론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과거 기업이 관행대로 행해온 분식회계, 비합리적 지배구조, 분식회계, 인권유린, 환경훼손과 같은 관행은 비록 법적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외국의 기업에 비해 많은 사회공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¹¹⁾ 이에 못지않은 사회적책임의 수행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NGO나 외부의 환경, 윤리, 지배구조, 인권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압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본질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7. 미치는 글


2006년 1월 27일 이노베스트사에서는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에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6년 글로벌 100 지속가능기업 명단을 발표하였다.¹²⁾ 100대 기업에는 영국 기업이 30개, 미국 기업이 17개 그리고 일본 기업이 10개 포함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책임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확산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이루어지

11) 전경련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경상이익대비 2%선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기업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지출이다.

12) www.innovestgroup.com

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행은 고객과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투자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내 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기업들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마지못해 낸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공헌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배구조, 노사관계, 인권, 환경, 사회공헌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들을 이행할 때야 비로소 사회적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현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의 성장은 유사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기업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세계적으로 큰 교회와 기업들도 탄생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한국기업이 늦게나마 사회적책임의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스스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환경, 인권, 노동, 윤리, 지역사회 등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기업에게 부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과 사회가 파괴되고 인권이 상실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손상 받는 시대가 되었다. 기업들은 이제 기업과 사회가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경영진, 주주의 주장 뿐 아니라 종업원, 고객, 협력사, NG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교회도 기업과 유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교회와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참고 문헌

- Archie B. Carroll & Ann K. Buchholtz. (2003).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
- Charles O. Holliday, Jr. Walking The Talk - The Business C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2002.
- Dahlsrud Alexander(2008),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Defined: an Analysis of 37 Definition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 Soc. Responsib. Environ. Mgmt. 15, 1.13, Published online 9 November 2006 in Wiley InterScience
- Khurshid Ahmad, Making Globalization Good, ed. John H. Dunning.(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K. Gordon(2001), "OECD Guidelines and Other Corporate Responsibility Instruments: A Comparison"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01/5, OECD Publishing.
- Pricewaterhousecoopers,(2002) 5th Annual Global CEO Survey
- Simon Zadek,(2004) Alex MacGillivray, Accounting for Change: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ed. Ed. Simon Zadek, Greenleaf Publishing Limited
- Welford, R.(1996),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Earthscan, London.

<http://www.bitc.org.uk>
<http://www.ethibel.org>
<http://www.ftse4good.com>
<http://www.gemi.org>
<http://www.unglobalcompact.org>
<http://www.globalreporting.org>
<http://www.iisd.org>
<http://www.innovestgroup.com>
<http://www.kld.com>
<http://www.sa-intl.org>
<http://www.sustainability-indexes.com>
<http://www.un.org>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사역

손병덕 |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Act Locally

지역사회 거주민의 상당 수는 사회 복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적 도움은 신체적, 정신적(심리/정서적)장애, 질병 혹은 스스로의 문제행동, 경제적/가정적 위기현상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 장년, 노년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활동의 주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들로 대표될 수 있는 빈곤층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재가보호 대상자, 실업자, 보육대상아동,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가까운 빈곤층)들까지 포함되어 그 대상 폭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나 전문적 사역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4인 가족 기준 월 수입 126만원 이하인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달하는 추정 장애인
- 노령인구: 전 국민의 약15%에 해당하는 625만 명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분들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그룹 홈 보호 아동, 학대·방임아동
- 위기·비행 청소년 및 피해청소년
- 가정폭력 피해자
- 노숙인
- 실업자: 15세 이상 6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이들의 사회 복지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각급 지역사회 복지관들이 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지역 사회 보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서비스 (식사배달, 일반 찬배달, 무료급식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 운영
가족 복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진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 가족기능 보완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지지원사업 - 부양가족지원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가정 문제 등 상담 -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 사회 조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주민복지 증진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후원자 개발·조직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1) 2005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보건복지부, p 6.

교육 · 문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 사업 - 성인 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노인 여가문화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문화복지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기능 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직업능력 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이처럼 사회복지지는 이상에 거론된 사회복지실천대상의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해결하고자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을 아우르고, 미시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집단의 구체적인 사회 복지적 필요를 채우는데 목표를 둔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인들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구현하려 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독교 지향적 사회복지 활동들은 거시적 사회복지 정책입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고, 미시적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의 제정과 반포로 시작되었다고 보며, 한국사회복지의 근간도 역시 기독교의 전래와 그 맥을 같이 하였고,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교회와 그 신앙인들의 값진 헌신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신앙과 사회복지 실천은 깊은 연관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한국기독교 선교초기에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정동제일병원을 위시한 30여개의 병원과 연회, 이화, 경신 등 학교설립²⁾을 통한 간접 선교의 기독교 사회복지적 자리 매김은 중대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사회복지운영의 민간주체운영이 시작된 1980년대 까지 민간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주도역인 역할을 해왔다. 박종삼 등(2003)은 1986년에 한국사

2) 손병덕(2005). 기독교사회복지. 서울:예장출판사.
3) 박종삼외(2003).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회복지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초로 사회복지 기관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독교의 사회복지 기여도가 중차대하였음을 지적 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까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일반에게 그간 보여 온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노력들도 교회의 직접전도와 선교적 활동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손병덕⁴⁾의 연구는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과 성장과의 개연성을 통계적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증명해 보였는데, 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교회의 양적 혹은 질적 성장과 교회가 행하는 각종 사회봉사적 활동들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자원들을 확보할 때 교회의 긍정적 인지도가 상승되고 따라서 교회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살려고 할 때, 소외되거나 위기에 놓인 이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사회봉사적 활동들을 베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교회의 그러한 노력들은 성도들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게 되고 결국 교회 구성원들 전반의 인식고양이 도출되어 성숙한 교회이며, 지역사회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형으로 변모되어 민간 법인체의 운영권 수탁이 시작된 이래, 이 부분에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참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박종삼 등(2003)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1993년에 예장통합은 조사대상 2,008개 교회 중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여한 교회는 단 4개소에 불과했고, 1997년 조사에 따르면 감리회도 당시 전체 4,483개 교회 중 복지관 운영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양로원만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교회들은 선교원, 유치원, 장학사업/장학관, 무료식당 운영 등의 개교회 중심의 사회 복지적 활동들에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한국 사회복지계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처에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복음전파와 함께 동시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인의 실천적 사명의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이웃을 돕는 일 즉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필요를 채우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시설,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⁵⁾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개되는 전문사회복지 실천에 기

4) 손병덕(2003). 교회성장 요인으로서의 서울 경기지역 개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연구, 總神大論叢 제22집, 245-268.

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시행일 : '05.7.31)항에 따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에 따라 ①관할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②개선필요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의하고 공공-민간간,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복지관련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의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지역사회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동 법에 따라 2006년도부터 새로 수립된 사회복지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0년경에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독교계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1995년 이래 10년간 종교인구의 증감과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시설 투여여부를 함께 고려할 때 지역에 따라 심각한 기독교 인구 감소를 경험하는 곳들이 흥미롭게도 사회복지시설 위탁주체⁶⁾의 증감과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서울특별시의 기독교 인구는 2,675,580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엔 20.4%나 감소한 2,222,831명⁷⁾으로 조사된다.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의 총인구가 단 4.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독교 인구 감소로 이해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천주교 인구는 66%가 증가하였고, 불교는 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독교법인 위탁 사회복지시설위탁수준이 전체적으로 25.1% 증가에 그친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각각 33.3%, 226% 증가⁸⁾한 사실, 그리고 기독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천주교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불교가 거의 추적해온 양상⁹⁾을 고려하면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봉사가 기독교인구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사회인식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5세~29세 기독교 젊은층 인구의 경우 1995년 822,503명이던 것이 2005년 559,902명으로 오히려 4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이런 유추에 증거를 제공한다. 즉, 서울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위탁등 봉사참여 수준이 전체사회복지시설 증설의 일반적 증가와 비슷하여 기독교계가 사회봉사 참여수준이 저조한 것이 젊은층의 종교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기독교 청년인 선교에 부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울거주 천주교 젊은 층의 대폭 증가(70.6%)와 불교전체인구의 서울지역 감소폭(61%) 대비 젊은 층의 소폭 감소(42.8%)는 이들 종교계가 지역의 필요를 채우려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 결과, 천주교 젊은층의 대폭 증가와 불교 젊은층의 서울지역 감소율을 상당히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
- 6)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일반법인이 주체가 된) 민간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있으나, 만약 교회나 사찰도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잘 해 온 증빙이 갖추어지면 개별교회나 사찰도 위탁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사랑의교회 사랑의복지재단은 사랑의복지관과 반포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새문안교회복지재단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 7) 통계청. (1999). 1999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중 '종교인구' 부분 조사.
 - 8) 2005년 전국종합사회복지관현황, 2003년 전국종합사회복지관현황, 보건복지부; 2006년 아동복지시설일람표, 2001년 아동복지시설일람표,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2003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http://www.mahayana.or.kr>;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http://jigo.or.kr> 원불교 사회복지자원정보센터 <http://www.wonfare.or.k> 등 전체자료를 토대로 하되 파악되지 않는 기관들은 해당 복지관에 전화 연락하여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통계를 낸 것. 전통적 불교가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오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발달에 따른 종교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로부터 환영 받지 않는 종교가 쇠퇴 할 것이라는 사실을 1990년대 들어 파악하고, 지역의 복지시설들을 세우거나 위탁 운영하는데 매우 열의를 보인 결과 불교는 지역사회에서 그 기반을 회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9) 부산일보(2007.08.02)에 따르면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종교별 영향력 순위점수(6점 만점)는 천주교 5.83, 불교 4.41, 개신교 4.94 순으로 개신교의 역할이 천주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복지계는 1990년대 말부터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지표를 개발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이 기관의 목적에 준하는 사업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하는 등 조직, 인사, 프로그램관리, 재정 관리 등 체계적인 제도적 정착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자발적인 증대의 결과 기관과 시설 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가고 기타 시민단체와도 제한된 규모의 사회적 지지자원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49년 7월에 이미 제정·공포 되었으나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광역시도별로 구성, 운영 되면서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시작 하였는데, 지자체의 근간은 지역 주민 자신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사랑하고 살기 좋도록 만들고 누리는데 있다. 즉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써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과 복지실천에 참여하는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실천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혜적으로 지역주민들 중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었을 지라도 자신의 복지욕구를 충족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교회는 바야흐로 '권리'를 주장하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는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써, 이제는 당장 배부르게 먹는 문제를 떠나 얼마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느냐가 중요한 실천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이웃을 돕는 데에도 단순 시혜성, 단회적인 사업과 활동에 머무른다면 시대적인 시민의식의 성장과, 지역사회 복지의 근간인 권리적 복지실현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는커녕 복음을 정당하게 증거 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복지적 문제를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과 실천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해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재정자립을 근간으로 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사용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역의 복지문제 해소는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교회가 이들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부족현황을 함께 파악하여 부족한 복지시설 증설 및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다면 지자체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동시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에 위치하는 교회가 지역의 부분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교회와 지자체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에서 교회의 역할 증대는 자연스런 귀결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웃사랑의 실천적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되, 현대 지역사회복지체계의 흐름과 필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전문적 실천을 통해 효과적으로 호응하고 나아가 지역을 섬기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마땅히 할 일도 하고, 복음전파도 도모하는’ 자연스런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하여 ①교회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반 취약상황과 지역의 사회복지적 욕구를 고려하되, ②지자체의 복지계획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계획과 중복을 피하고 ③지자체 혹은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시도일 것이다. 이때 지역의 기독교인구 중 (일반, 젊은층, 노령층으로 구분한) 감소 혹은 정체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여 선교적 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타겟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전략적 배려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필요들을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단순 시혜성 봉사도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들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향하여 전문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다음으로 교회 밖 사정을 교회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교회의 봉사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교회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채우려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지역 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 위치를 공고히 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지역 내 교회기반을 튼튼히 하며, 결국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해 낼 것이다. 

교회의 사회적책임 활동 사례 목록

1. 조사대상 신문 : 기독교신문, 한국기독교공보, 기독교타임즈
2. 조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2009년 9월까지 발행된 신문
3. 조사방법 : 신문에 소개된 교회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
(총 450여건의 교회사례 정리)
4. 조사기준 : 일반적인 교회홍보 기사나 전도, 선교와 관련된 교회기사는 제외하고
사회적인 활동과 연관된 기사만 인용

조사과정에서 교회 또는 목회자 성함에 오타가 발생했거나,
(2007년 1월 신문부터 조사한 것이기에)
현재 교회 담임목회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교육	열방교회	김국명	"문턱 낮추기로 교회성장 이끈다"	기독교신문	08.11.26
교육	마량중앙교회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09.1.14
교육	세계인교회	김영철	"건강한 비전에 투자한다"	기독교신문	07.10.24
교육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교회 사회적 책임 해답 찾아간다"	기독교신문	09.4.29
교육	서울우림교회	김대영	"세계 영적리더 키운다"	기독교신문	09.3.18
교육	익산성락교회	박윤성	결식아동 겨울방학학교 익산성락교회 "힘내세요"	기독교신문	09.3.4
교육	광주중앙교회	석찬영	광주중앙교회 홈스쿨 열어	기독교신문	07.10.17
교육	비전사랑의교회	이충희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09.2.11
교육	열방을섬기는교회	신준식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09.2.11
교육	서대문교회	장봉생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09.2.11
교육	목민학사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09.2.11
교육	경성교회	박종걸	교회 '학사관' 소개합니다	기독교신문	09.2.11
교육	동인교회	송태훈	기독교 인재양성 원대한 꿈 '첫걸음'	기독교신문	09.1.21
교육	정읍내장교회	오현두	'다니엘 공부방'에 희망 싹튼다	기독교신문	08.1.23
교육	샘물중학교	박은조	대안학교 '샘물중' 개교	기독교신문	09.2.25
교육	대전좋은교회	양복석	'연속기획/건강한교회희망이다'"아동복지지역 천천히분명하게"	기독교신문	07.1.31
교육	실로암아시센터	유익웅	"사마리아 사람 같은 동역자 되자"	기독교공보	08.3.22
교육	성남지역아동센터	강은숙	그 아동센터가 18년간 사랑받은 이유	기독교공보	08.6.28
교육	삼양교회		꿈 키워주는 학교 되어야	기독교공보	08.3.15
교육	새롬교회	이원돈	우리마을 사람들은 이사가기 싫어해요	기독교공보	07.6.23
교육	염산교회	김종익	지역과 함께 한 60년, 하늘나라 소망과 비전 제시한다	기독교공보	08.3.15
교육	창천교회	서호석	'놀토' 교회를 활용해 보자!	기독교타임즈	07.5.19
교육	춘천 효자 교회	김종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 되고파"	기독교타임즈	08.8.2
교육	새홍성 교회	유인열	다문화 가정이 농촌교회의 희망	기독교타임즈	08.1.26
교육	창녕 교회	김근중	보릿고개도 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기독교타임즈	08.4.5
교육	빛과진리의교회 (부산)	석준복	영도를 밝히는 등대, 빛과 진리의 교회 석준복 목사	기독교타임즈	07.8.18
교육	밀알 교회	박기서	'원미동 사람들'을 위한 보금자리	기독교타임즈	08.7.5
대안 경제	옥방교회, 새누리 공동체	천정명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화답을"	기독교공보	09.2.14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대안 경제	생명을어는사람들	정봉덕	"작은 나눔이 생명을 구합니다"	기독교공보	08.3.29
대안 경제	여수중앙교회	이호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아름다운 헌신' 실천	기독교공보	08.1.19
대안 경제	한국목회자복지조합	임인수	목회자 '마이크로 크레디트'운동 확산	기독교공보	08.1.26
대안 경제	생명의길을걷는사 람들	황해주	소액대출 '확산주력'	기독교공보	08.2.23
대안 경제	천사사랑은행	안승남	아름다운/ 소액 대출 통해 서민 회생 돕는 천사 사랑은행	기독교공보	07.4.7
대안 경제	덕수교회	손인용	지역종교단체 연합바자회	기독교공보	08.11.1
문화	산정현교회		"옥중 주기철 목사 만나다"	기독교신문	07.8.22
문화	장수대성교회	현상국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09.1.14
문화	늘빛교회	강정훈	"지역주민 사랑이 대단"	기독교신문	07.2.28
문화	전주예담교회	조재선	[전주예담교회 가을음악회] "주민과 더불어 즐긴 다"	기독교신문	07.10.24
문화	완주대덕교회	박순진	"농촌 어린이에 꿈을"	기독교신문	07.8.15
문화	정운교회		10년 문화사역, 신앙생활 활력소	기독교신문	07.12.26
문화	고서교회	오명현	고서교회 청소년 악단 연주회	기독교신문	09.9.2
문화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문화대학 "좋아요"	기독교신문	09.3.18
문화	대성교회	김홍근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선물	기독교신문	08.6.4
문화	평안교회	이희운	사랑의 수화 마음을 열다	기독교신문	08.12.10
문화	광양중동교회	김성환	세가지 목회테마 '행복' 나눈다	기독교신문	07.10.3
문화	은샘교회	조승호	은샘교회 사역팀 강화 건강한 지역문화 유도	기독교신문	07.8.8
문화	익산 인성교회	이명동	"감동적 선물로 공감대 형성"	기독교공보	09.9.19
문화	대명교회	고범주	"여기는 행복의 샘터, 평안의 쉼터"	기독교공보	07.4.28
문화	삼청감리교회	문희수	담 헐고 이웃과 소통해온 1백돌 교회 "맘씨도 좋 네~"	기독교공보	09.4.25
문화	광양대광교회	신정	예수의 향기를 널리	기독교공보	07.4.28
문화	영락교회	이천신	지친 직장인들의 영혼의 쉼터 역할	기독교공보	09.9.5
문화	학익 교회	조중기	[향기로운사람들] 학익교회	기독교타임즈	09.7.25
문화	대림 교회	임준택	"교회가 우리 동네 사랑방이죠"	기독교타임즈	07.10.13
문화	홍성제일교회	김대경	"교회에서 해다주는 음식이 제일 맛나유~"	기독교타임즈	09.5.16
문화	하늘샘 교회(천안)	이성수	"교회의 벽 허물어 세상과 소통합니다"	기독교타임즈	09.9.26
문화	샘터 교회(부산)	안중덕	"책 속에 풍덩~ 더위가 싸악"	기독교타임즈	09.8.22
문화	대소원 교회(충주)	황대성	'문화' 코드로 지역 문화 중심에 선 대소원교회	기독교타임즈	07.2.10
문화	만나 교회(분당)	김병삼	선교적 힌트 무한한 'CCO'	기독교타임즈	07.3.3
문화	한사랑 교회	임영훈	세상 향한 한사랑교회의 '러브콜'	기독교타임즈	07.9.8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사회 복지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연속기획 /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다] '섬김의 저력' 교회 곳곳서 열매로 화답	기독교신문	09.4.1
사회 복지	오륜교회	김은호	[연속기획 /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다] 본질 잊지 않는 '문화예배'로 성장 견인	기독교신문	09.3.4
사회 복지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나눔사역은 계속됩니다"	기독교신문	08.5.7
사회 복지	예송전원교회	박정석	"마르지 않는 숲속의 웅달샘에 오세요"	기독교신문	09.3.25
사회 복지	광야교회	임명희	광야교회, 노숙인복지센터 마련	기독교신문	07.7.4
사회 복지	광주월산교회	장성진	광주월산교회 천사도우미 떴다	기독교신문	09.4.29
사회 복지	구미제일	함중수	구미제일교회 외국인사역 상반다	기독교신문	09.6.3
사회 복지	장대현교회(부산)		새터민 교회 세웠다	기독교신문	07.7.11
사회 복지	오륜교회	김은호	오륜교회 '다니엘세이레기도회'	기독교신문	08.12.8
사회 복지	화순온누리교회	김현용	외국인이주가족사랑으로품는다	기독교신문	08.9.24
사회 복지	삼호읍교회	김수일	외국인노동자의 든든한 벗 삼호읍교회 문화사역 호응	기독교신문	09.8.19
사회 복지	대구대동교회	이동관	차세대 영적리더 조기교육 대동교회 아기학교 '인기짱'	기독교신문	09.4.29
사회 복지	안동 푸른초장교회	임중구	푸른초장교회 '기적 성전'	기독교신문	09.1.14
사회 복지	도계교회	김영환	[우리교회]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 리더	기독교공보	07.4.7
사회 복지	동지교회(대구)	신경희	"그래도 너무 행복한 제주도 나들이였어요~"	기독교공보	09.6.27
사회 복지	신곡교회	최해협	"아픈 마음까지 느껴져요"	기독교공보	08.6.21
사회 복지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주민들이 교회를 '이웃사촌'이래요"	기독교공보	08.3.29
사회 복지	갈전교회	신광열	갈전리 어르신들, 저희가 정성껏 섬길게요	기독교공보	07.2.10
사회 복지	지산제일교회	신정환	대추차 향 진한 '하늘닭은집'으로 오이소	기독교공보	08.1.26
사회 복지	염광교회	전두호	복지 사업 통해 교회·학교 하나되다	기독교공보	07.3.24
사회 복지	상당교회사랑학교	정삼수	사랑학교 다니게 하려고 사업체도 옮겼어요	기독교공보	08.6.21
사회 복지	안산기독상담센터	안명숙	위기의 사람들, 교회가 돕는다	기독교공보	08.4.5
사회 복지	빛과소금교회	최상경	의술로 지역사회 섬긴다	기독교공보	08.1.26
사회 복지	대구남산교회	김태영	장애, 비장애 벽 허물고 만든 '가족 공동체'	기독교공보	08.5.3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사회 복지	동부제일교회	임은범	장애인 섬김 위해 스스로 팔 걸었다	기독교공보	08.8.9
사회 복지	창동염광교회	최기석	장애인들 성장 맞춘 연령별 예배로 특화	기독교공보	08.6.28
사회 복지	전주예수병원	김민철	전주예수병원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개시	기독교공보	07.1.27
사회 복지	대구 동지교회	신경헌	주차장에 늘 휠체어 대기...엘리베이터 타고 곧장 예배당으로	기독교공보	08.4.12
사회 복지	국수교회	김일현	특성화로 지역 섬긴다	기독교공보	08.5.17
사회 복지	부광 교회	김상현	"교회와 이웃 함께 돕는 다문화 가정"	기독교타임즈	08.7.12
사회 복지	세신 교회	김종수	"몸으로 섬겨 진하게 맞본 기쁨"	기독교타임즈	07.4.28
사회 복지	혜성 교회	한정석	"크리스찬의 삶이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기독교타임즈	07.6.19
사회 복지	은강교회	박용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타임즈	08.4.12
사회 복지	횡성 교회	양명환	"교회 가는 날이 가장 즐거워요"	기독교타임즈	09.7.4
사회 복지	한사랑 교회	임영훈	"놀이 속에 믿음 싹싹"	기독교타임즈	08.7.19
사회 복지	부천 제일 교회	이민재	"복지관은 보이지 않는 교회"	기독교타임즈	09.3.7
사회 복지	연수동 지방회	배익환	"어린이날을 지역 축제로 만들자"	기독교타임즈	08.4.12
사회 복지	괴산 중앙 교회	홍일기	"영혼을 살찌우는 사랑의 반찬"	기독교타임즈	08.12.20
사회 복지	성민교회	차창규	"일방적 소통 NO! 함께 하는 소통 YES!"	기독교타임즈	09.5.23
사회 복지	평지 교회	오범석	노숙인 '해피홈' 30호 준비 '끝'	기독교타임즈	07.11.24
사회 복지	등불 교회	장병용	등불교회, 에이블 아트센터 건립 위한 음악회	기독교타임즈	08.3.22
사회 복지	부평 교회	홍은파	세계교회에 한류(韓流)열풍 일으킨 부평지킴이	기독교타임즈	09.1.24
사회 복지	수표교 교회	김고광	수표교, 지방 수험생에게 '따뜻한 사랑'	기독교타임즈	07.1.20
사회 복지	수표교 교회	김고광	지나온 100년의 감사, 새로운 100년의 꿈	기독교타임즈	09.9.12
사회 복지	영천 교회	이재덕	지애엄마! 우리 이제 교회 같이 가요"	기독교타임즈	08.11.15
자원 봉사	전주열린문교회	이광우	"평생 기억할 보람 얻었어요"	기독교신문	07.8.8
자원 봉사	원당교회	유선모	원당교회 긴급구호봉사단 전천후 활동 "사랑 전한다"	기독교신문	09.4.15
자원 봉사	사랑의 한국교회 봉사단	오정현	한국교회봉사단 '러브하우스' 구슬땀	기독교신문	09.8.12

주제	교회명	목회자	기사제목	자료출처	연월일
자원봉사	안양제일교회		축복의 그물로 섬마을 건져 올린다	기독교공보	07.8.18
자원봉사	새롬교회(해남)	이호군	'거미줄식 복지지역' 펼치는 '새롬사회봉사단'	기독교타임즈	07.6.19
통일	계산교회	김태일	계산교회 '새터민 지역' 활기	기독교신문	09.3.4
환경	순천대대교회	공학섭	"우리 교회는 희망 발전소다"	기독교신문	09.1.14
환경	광동교회		[연속기획/녹색교회 만들기 프로젝트③] 전기	기독교신문	09.7.1
환경	신양교회	차정규	[연속기획/녹색교회 만들기 프로젝트④] 녹색교회 탐방(1)	기독교신문	09.7.8
환경	순천대대교회		[우리교회 좋은교회] 신앙 쑥쑥 키우는 생태프로 그램	기독교신문	08.9.24
환경	홍천동면교회	박순웅	"건강한 맘의 힘을 믿는다"	기독교신문	08.5.14
환경	제주도교회	김성욱	"건강한 재충전으로 복음화를"	기독교신문	08.2.13
환경	청파교회	김기석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08.6.18
환경	내동교회	김종욱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08.6.18
환경	지평교회	이택규	고유가 시대, 교회가 에너지 절약 앞장	기독교신문	08.6.18
환경	평화의교회	박경양	교회 곳곳이 생태운동 체험장	기독교신문	09.7.15
환경	용인제일	변우상	용인제일, 도농 자매결연	기독교신문	08.8.13
환경	갈릴리교회	인망진	"창조질서 파괴 우리가 주범"	기독교공보	09.6.20
환경	환경보호기정착협	이상기	"환경 지키미, 교회가 먼저"	기독교공보	09.5.2
환경	빈들교회	김규복	노동 주민 생명에 앞장	기독교공보	07.7.28
환경	포항 푸른마을교회	이상은	새,바람,웃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리는 교회	기독교공보	08.4.5
환경	광동교회	방영철	"교회 마당, 자연과 사람의 안식처"	기독교공보	07.4.14
환경	덕수교회	손인웅	아름다운세상"교회마당,자연과사람의안식처"	기독교공보	07.4.14
환경	내동교회	김종욱	아름다운세상"교회마당,자연과사람의안식처"	기독교공보	07.4.14
환경	석포교회	이상현	아름다운세상"교회마당,자연과사람의안식처"	기독교공보	07.4.14
환경	장애인교회 세상을 밝힌다		장애인교회 세상을 밝힌다	기독교공보	08.4.19
환경	함양 제일 교회	김성률	"생명을 돌보는 일이 바로 환경목회"	기독교타임즈	08.3.29
환경	송악 교회(아산)	이종명	"녹색교회가 있어 마을이 푸르다."	기독교타임즈	09.4.18
환경	어유 교회	이상백	닭장에 들어갈 땐 "노크하세요"	기독교타임즈	08.1.12
환경	홍천동면교회	박순웅	친환경 농사지어 생태기행 경비 보태	기독교타임즈	07.10.6
환경	백석 교회(일산)	신석현	하나님 세상 지키는 '초록교회'	기독교타임즈	08.5.24
환경	청파 감리 교회	김거석	햇빛발전소를 아십니까?	기독교타임즈	08.1.5

사회적 책임 관련 도서목록

사회적책임 관련 도서목록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책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서는 적지만,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론적인 도서보다는 실용도서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21세기 문화와 문화선교	정원범	한들출판사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무하마드 유누스	물푸레
공공신학	기윤실	에영커뮤니케이션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윤실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위하여	문화선교연구원	에영커뮤니케이션
기독교와 사회문제	아브라함 카이퍼	생명의말씀사
기독교시민의 사회적책임	윌리엄 템플	인간과 복지
기업은 왜 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데이비드 보겔	거름
나눔	프랑수아즈 바레 뒤크로	솔출판사
남북한 교회 통일 콘서트	김병로	기복선
녹색시민 보씨의 하루	앨런 테인 더닝, 존 라이언	그물코
녹색의 눈으로 보는 성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기독교서회
도시 속 희망공동체 11곳	시민의 신문	시금치
뜨거운 지구에서 살아남는 유쾌한 생활 습관 77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추수밭(청림출판)
마을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황주석	그물코
무지개 가게	사회연대은행	갤리온
보노보 혁명	유병선	부키
사회선교 한걸음	성서한국	뉴스앤조이
사회적 하나님	케네스 리치	청림출판
사회책임투자 세계적 혁명	러셀 스팅스	홍성사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전병길	꿈꾸는터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이의용	시대의창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실벵다르니, 마투르루	마고북스
세상을 바꾸는 돈의 사용법	야모모토 료이치	미래의 창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조성돈, 정재영	예영커뮤니케이션
열혈교사 도전기	웬디 콕	에이지21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	모티브북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신동식	예영커뮤니케이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아르케
피스메이커=Peace maker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중앙북스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이준범	이매진
희망을 여행하라 : 공정여행 가이드북	이매진피스, 임영신	소나무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역사비평사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로날드 사이더	IVP
가난한 휴머니즘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이후
그리스도와 문화	리처드 니버	IVP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짐월리스	살림
꿈의 도시 구리찌바	박용남	녹생평론사
내 딸아,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란다	오정은	글고은
다같이 돌아 골목 미술관	황정주	이매진
두개의 한국 : 북한국과 남조선	돈 오버도퍼	길산
리빙그린	그레그 혼	사이언스북스
변산 공동체학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윤구병, 김미선	보리
법싸야, 학교가자	강옥희	이매진
불편한 진실	엘 고어	좋은생각
사람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	찰스 콜슨	IVP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전우택	오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이창희	창지사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최수연	책으로여는세상
세 바퀴로 달리는 희망 자전거	김정희	이매진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중앙북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요구르트의 슬픈 비밀을 아시나요?	강태호	예지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박세길	시대의창
이런 사람 만나봤어?	한재량	이매진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에코리브르
하나님 나라의 향연	차정식	새물결플러스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박명림	나남출판
행복한 기부	토마스 람게	풀빛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IVP
Giving	빌 클린턴	물푸레
나쁜 그리스도인	데이비드 키드먼	살림
통일 그 이후	주도홍	IVP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	백종국	IVP
희심	짐 월리스	IVP
희망을 키우는 착한소비	프란스 판 데어 호프	서해문집
희망의 인문학	얼 쇼리스	이매진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포럼 2009년 일정

1차 포럼 : <환경 : 지구적 교회, 지역환경을 생각한다>

- 일시/장소 : 2009년 5월 8일(금) 오후3시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사회 :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 송준인 목사(청량교회, 총신대학교 석좌교수)
 - 생태문제, 교회의 책임 : 박영신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 실천나눔 Act Locally
 - 교회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제안 : 손석일 전도사(높은뜻정의교회, 환경공학 박사)
 - 친환경 소비, 먹을 거리와 생활재를 중심으로 : 김재일 이사장(예장생협, 연평교회 목사)
 - 기후변화 대응 교회실천 및 녹색교회 운동 : 유미호 정책실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2차 포럼 : <문화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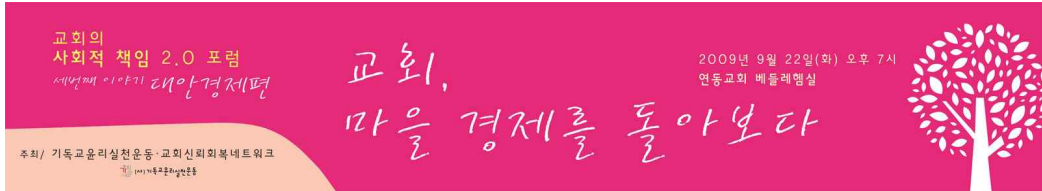
- 일시/장소 : 2009년 6월 11일(목) 오후7시 / 명동 청어람 3실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웹 2.0 시대와 문화선교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문화선교연구원장, 기윤실 공동대표)
- 실천나눔 Act Locally
 - 아름다운 상상 '세상에 행복을 주는 교회' : 최은호 목사(예장통합 문화법인 사무국장)
 -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게 하소서! : 신동주 PD(CBS TV 제작부)
 - 지역사회와 문화로 소통하는 파구스스토리 : 박상규 목사(문화 네트워커, 분당만나교회 문화사역담당)
 - 크리스천, 대중문화 홍수 속 래프팅을 타다 : 박준용 기획자(청어람 문예아카데미, 한양대 강사)

3차 포럼 : <대안경제 : 교회, 마을 경제를 돌아보다>

- 일시/장소 : 2009년 9월 22일(화) 오후7시 / 연동교회 2층 베들레헴실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 Think Globally
 - 교회의 사회적책임과 공동체 자본주의 :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새로운 나눔의 시작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 김범석 사무총장(열매나눔재단)
- 실천나눔 Act Locally
 - 사역적 기업, 커피밀 : 윤선주 목사(디딤돌교회, 커피밀 대표)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 조병준 팀장(행복한나눔 매장전략팀)

4차 포럼 : <교육 : 교육, 교회와 함께 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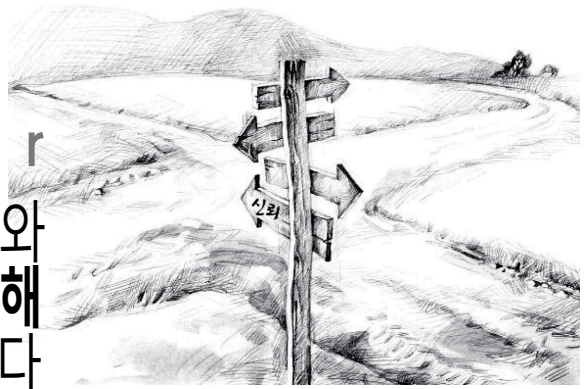
- 일시/장소 : 2009년 12월 4일(금) 오후2시 / 명동 청어람 5실



- 사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 생각나눔(기조발제) Think Globally
 -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장신근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
- 실천나눔(사례발표) Act Locally
 - 에듀투게더, 분당우리교회와 함께 하는 교육양극화 해소 프로젝트
: 김윤태 실장(분당우리교회 복지재단, 에듀투게더 담당)
 - 가정과 교회협력을 통한 기독교 대한교육 모색 : 이재현 목사(지구촌교회 글로벌홈스쿨링아카데미 담당)
 - 교회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눔 : 박경현 소장(한국교육복지연구소, 씨드스쿨 교육이사)

www.trusti.kr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2010 기윤실운동의 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숭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

임성빈 외 13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264면 / 12,000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요즘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룬 책
-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번 공공신학 출판은 외국문헌을 국내에 소개하는것을 넘어 국내 학자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내고, 신학적 토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철학, 행정학, 사회학 등 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화두를 함께 다루고 있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저자(목차순): 임성빈(장신대) 이윤경(안양대) 김호경(서울장신) 이상원(총신대) 이상희(한목협) 조성돈(실천신대) 장신근(장신대) 배요한(장신대) 최태연(백석대) 정재영(실천신대) 이승중(서울대) 강원돈(한신대) 김은혜(송실대) 양세진(기윤실)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위한
기윤실의 비전 나누기

우창록 외 34인 지음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엮음
192면(46판) / 7,000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온라인 상에서 '비전레터'라는 이름으로 기윤실의 이사장, 공동대표, 운동본부장, 기독교윤리연구소장, 사무총장 등이 기윤실 운동에 대한 꿈과 소망을 담아 회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어 왔다.

시민단체이자 기독교기관으로서 크리스천의 시대적 고민을 담당해 온 기윤실은 이제, 그 글들을 엮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 **노영상 소장**(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예영커뮤니케이션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중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